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석질불석의 모든 것
책임 성심껏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6881 / 편집국 :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 732-152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0월 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0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재가신도 법계

한국불교에서 재가불자는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것일까? 재가불자라면 한번쯤 품어보는 의문이다.

고급불자라고 할 수 있는 법사나 포교사의 경우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자격증 하나 딴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실정은 얼마나 불교자원이 낭비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 기본·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포교사가 된 이후의 후속교육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재가신도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재가신도 법계를 두자는 것이다. 재가신도 법계는 법계별로 일정기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도 부여하여 불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신도들에게 신행에 대한 성취감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고 당해사찰과 종단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다줘 적극적인 불자로서의 지속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법계따라 소임 부여
전문인력 부족해소

불교 입문자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기본교육, 전문교육기간을 거쳐 포교사고사에 응시키 한 뒤 종단에서 중앙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지도자교육을 통해 신도교육을 맡고 신행지도 상담등 스님을 보조하거나 신행단체 지도법사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전법사자격을 취득케 하자는 것이다.

이런 재가신도 법계제도가 실시될 때 교단은 신도 조직화를 꾀할 수 있고 재가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활용하여 불교의 사회적인 역할까지 해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기준없는 법사의 양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종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총무원장 재선거 불가피

"조계종 고산스님 선출무효"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서울지법, 직무대행에 도견스님 선임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에서 정영스님이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조계종 총무원장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수형)는 2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고산 총무원장은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관결 확정시까지 총무원장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도견스님(원로의원)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앞서 1일 정영스님이 제출한 조계종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고산 총무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결문에서 "136회 임시종회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이 종회에서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에 근거한 총무원장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월하스님과 정영스님이 낸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월하스님과 정영스님은 지난 해 11월 14일 열린 원로회의에서 종회를 해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산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 호계원은 2일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주재로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재선거 실시 여부와 현 고산 총무원장 체제 유지 문제를 놓고 장시간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 관결에는 반대하나, 총무원장 직무대행과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법통수호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앞서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선관위와 본사주지스님들과 협의, 정상 절차를 밟아 선거를 치뤄 새 집행부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개혁회의는 1일 판결 직후 "법원 관결과 종헌종법에 의거해 종단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타이완 만불사 지진 피해 9월 21일 새벽 발생한 강진으로 폐허가 된 타이완 우펑에 위치한 만불사. 26~30일 재해현장을 방문한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효성스님(용암사 주지)은 33m의 옥외불상과 법당 2동, 요사채 4동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본사에 사진을 제공했다. 〈관련기사 22면〉

해인골프장 환경평가 '부실'

서식식물 184종 누락…대구환경련 "건설 백지화" 성명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9월 28일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된 150건의 평가서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인 가야개발이 작성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분포식물군이 상당수 누락돼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자연도도 고의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야개발이 작성한 평가서에는 59과 138종의 식물이 골프장 예정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81과 322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184종을 누락시켰다. 또 11개 식물군락을 누락한 채 6개 식물군락만이 분포한다고 보고돼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감사결과가 공개된 9월 28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엉터리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반영해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인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허가무효확인과 착공연기등에 취소등 2건의 행정소송이 계류돼 있다.

한명우 · 이윤호기자
(mwhan@buddhapia.com)

"판결유감…종단 안정위해 항소"

총무원 · 종회 등 법통수호대책위 구성

조계종 원로의장 탄성스님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는 2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법 민사 42부의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관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또 법통수호대책위를 구성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탄성스님은 이날 발표한 유시에서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며, 향후 종도들의 뜻과 역량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은 공동담화문과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관결은 종단의 안정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자와 국민들의 여망에 반한 것이며, 당시 선거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3원은 이어 원만하고 여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종도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최종관결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종회의장단은 "조계사가 불법점거당한 긴박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사법부가 종회의 소집공고 절차의 하자를 문제삼아 종단을 분규의 회오리로 몰아넣는 이번 결정이 순수한 사법적 관단만으로 내려졌는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불교를 말살하고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사와 중앙신도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종단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중대한 오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4일 임시종회 열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4일부터 8일까지 143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종단 긴급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도 4일 총무원청사에서 회의를 연다.

12일 조계사 환경보존 결의대회

대선공약 이행촉구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이 주최해 12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결의대회에 스님 2천여명을 비롯 최소 3천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9월 30일 "조계종 소속 1백개 사찰에서 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이번 대회에서 김대중대통령이 97년 대선 당시 불교계 공약에서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공약의 성실한 이행도 촉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제5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경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5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됩니다. 2000년에 발표되는 신행수기 공모에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8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1999년 12월 18일
△당선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현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
(순금 행운의 열쇠)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생명나눔 10월 대법회 헌혈·화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일시: 10월 16일(토요일) 오전 9시
◇장소: 경북 영천 은해사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34-8050

담 화 문

존경하는 원로대덕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해 우리 종단은 종권에 눈이 먼 소위 정화개혁회의의 일부 폭력승들에 의해 종단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으며, 그 동안 사부대중이 땀흘려 쌓아 올렸던 사회적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리는 참담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애종심과 파사현정의 일념으로 종단을 바로 세우려는 스님과 신도 여러분의 의지를 모아 지난 12월 새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치르고 고산 스님을 제 29대 총무원장에 선출하였습니다.

고산 총무원장스님은 종단의 산적한 문제 가운데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지난 30여 년 동안의 징계자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했으며, 지난해 사태를 야기시킨 폭력승들에 대해 징계를 최소화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지방법원(민사제42부)이 현 고산 총무원장의 자격 없음을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이 소위 정화개혁회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단 운영의 적법성이 정화회의 측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오늘 함께 판결한 종회의원 자격 상실 소송에서 정화회의 측의 기존 주장을 일축하고 현 종단의 승소를 판결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종단체제의 적법성을 더욱 강고히 인정했다는 면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종단 집행부에서는 오늘 판결로 인해 종단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비화되거나 또 다른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단의 원로대덕스님의 의견을 물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종도 여러분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종단 집행부의 방침을 지켜봐주시고 이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폭력에 의해 종권을 찬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허황된 정화개혁회의는 그런 시대착오적 착각을 접어두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 종도들의 여망을 살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만 종도들의 관용과 화합이 가능하며 화합종단의 기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염원해왔던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원만하고 여법한 해결책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

사 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우리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와 특정 업체 등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탐욕과 결탁하여 거꾸로 우리 삶의 터전을 합법적으로 파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97년 9월부터 8개월간에 접수된 150건의 평가서 가운데 90%가 부실 작성되었다는 분석결과는 우리를 아연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부실 아래 얼마나 많은 환경훼손이 저질러졌을 것인가?

그 환경훼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환경파괴의 문제는 바로 불교의 계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불살생의 계율에 정면으로 부딪치게 된다. 대량학살이라 할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살생이 제도의 잘못된 운용으로 저질러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안이하게 방관하고 있다면 개인 차원에서의 불살생 계율의 준수는 거의 의미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과연 우리 불교계와 불자들이 이러한 비판의 화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가르침을 "환경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물고기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나무들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명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불교, 저것을 죽여서 결국 우리가 죽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불교는 대량 학살의 방관자이며 방조자일 수 밖에 없다.

불자들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부처님의 꾸짖음처럼,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환경파괴는 사찰환경의 파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아직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해인골프장의 경우 184종의 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사업이 승인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단적인 예를 통해 환경파괴가 바로 불교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 불자들의 의식이 눈뜨게 된 것을 계기로, 온 불교계가 '환경지킴이'로 나서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12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사찰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결의대회는 불자들의 환경에 대한 수호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우선은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의 파괴를 부채질하는 잘못된 제도 운영과 법개정에 대한 우리 불교계의 단호한 의지를 결집하여, 정부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힘과 고양된 의식을 바탕으로 좀 더 대승적이고 범국민적인 환경운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반 환경적인 정책은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의 해제 등으로 환경파괴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하기에 우리 불자들이 지켜주어야 할 생명들의 삶의 터전은 앞으로도 끝없이 발견될 것이다. 절박하게 불교계에 문제가 닥친 이 시점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안이한 자세를 한번에 떨쳐버리고 보다 큰 안목에서의 장기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모든 불자들이 나서야만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야말로 생명들의 터전을 지기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환경지킴이로 나서기 전에 그 명실상부한 운용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모든 불자들의 뜻을 모아 그 엄한 실행을 촉구하고, 또 그 엄한 실행을 보장하는 만족할만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 환경지킴이 운동의 첫 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해외유출 문화재 7만여점

日 3만3천여점 · 美 1만5천여점 · 英 7천여점 등

문화재청 국감자료…발굴유물 88만건 신고안돼

수월관음도, 〈왕오천축국전〉등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99년 9월까지 일본, 미국등 18개국 7만329건에 이르며, 국내 출토·발굴 미신고유물도 64년부터 지금까지 88만587건으로 누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관광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해외유출 문화재는 문화재청, 국제교류재단, 대우재단 등이 최근까지 40여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해외유출 문화재는 지난해 4월 이후1년 4개월동안 1천8백여점이 늘어났다.

나라별로는 일본이 가장 많은 3만3천75점을 갖고 있으며 미국 1만5천414점, 영국 7천189점, 독일 5천246점, 러시아 3천350점, 프랑스 1천519점, 덴마크 1천470점, 중국 1천434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문화재 가운데 지난 58년부터 지금까지 3천883점(일본 3천461점, 뉴질랜드 193점, 미국 228점, 프랑스 1점)만 환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환수 문화재에는 수월관음도(일본), 〈직지심체요절〉(프랑스), 왕오천축국전(프랑스)등 국보급 문화재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해외유출 문화재 반입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4천5백여만원에서 3천7백여만으로 삭감, 해외유출 문화재 회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64년부터 지금까지 발굴·출토된 유물 가운데 관계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유물이 88만58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들 문화재는 발굴 기관과 목록만 조사됐을 뿐, 사진·문헌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유물은 관련 학계에서 연구 대상으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또 84년부터 도난·도굴 당한 불교문화재는 316건에 총 453점. 그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7점에 불과했으나 비지정 문화재는 429점으로 94.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건수는 97, 98년 두 해동안 2천여점이 도난·도굴된 반면 99년에는 60점에 그쳐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비지정문화재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비지정문화재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군포교 제도 개선위 구성"

조계종 포교원…내년부터 군종병 자체교육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9월28일 포교원회의를 열고 정체상태에 있는 군불교의 진흥을 위해 (가칭)군포교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10월초에 신설되는 군포교제도개선위는 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 예비역군법사단,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군승특별교구의 추진 △군승 충원제도 보완 △군포교 관련법령(종헌, 포교법, 군승령, 군승칙 등) 개정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10월초 군승단 등과의 실무회의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말까지 군포교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군포교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500여 군종병들의 조직화 전문화를 위해 연2회 '군종병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포교원 관계자는 "올들어 예비역군법사단 등 군포교관련 단체와 종단간의 채널형성, 진각종 군승참여 개방 문제의 급진전, 종회의원 등 사부대중의 군포교 관심증대 등의 분위기 형성으로 인해 더 이상 군포교 활성화를 미룰 수 없다는 종단 안팎의 여론이 높다"면서 "이를 계기로 군포교제도 전반의 핵심적인 문제를 정리해 오는 11월 중앙종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안에 제도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현안대책위 해산" 선학원이사회 결의

선학원 이사회(이사장 정일)는 21일 서울안국동 중앙선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계종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구성한 현안대책실무위원회를 해산키로 결의했다.

선학원 이사회의 이같은 조치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9월 15일 142회 임시종회에서 '조계종-선학원 공동합의문(안)' 인준을 차기종회로 넘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선학원과 조계종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학원은 곧 현안대책실무위 해산에 따른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선학원 현안대책실무위원장을 맡아 조계종과 대화에 나섰던 성문스님은 "더이상 조계종과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이사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9월28일 열린 원로회의의 안건 논의에 앞서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이 종무보고를 하고 있다.

종헌 개정후 새 원로의원 선출키로

조계종 원로회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9월 29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새 원로의원 선출 건을 논의했으나 원로의원 연령 하한선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종헌 개정 후 선출키로 했다.

현재 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에 추천된 스님은 11명이며, 이 가운데 세납 70세 이상인 스님은 청화(광주 정광사), 이두(청주 관음사), 활안(송광사 천자암), 덕명(부산 안적사) 스님 등 4명이다.

원로회의는 또 10월 22일로 임기만료되는 전계대화상 추천 건도 논의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추천키로 했다. 새 전계대화상으로는 현 전계대화상인 청하스님과 보성스님(조계총림 방장)이 거론되고 있다.

전계대화상은 원로회의에서 추천하며 종정이 위촉토록 돼 있다. 전계대화상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전계대화상은 계단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계사의 위촉 및 해임,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증계아사리 위촉권을 지닌다.

이날 원로회의에는 원로의원 19명 가운데 의장 탄성스님과 부의장 종산 도원스님, 청하 녹원 도견 정천 승산 응답 지종 성수 보성스님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제11회 포교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4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추천분야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일반신도 등 일반포교분야와 군 경찰 공무원 교정교화 장애인 국제 방송언론 문화예술 출판 등 특수포교분야 등이 해당하며 후보자 이력서와 포교활동 공적서,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추천서 및 종단등록 신도단체 대표자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포교대상은 오는 12월 4일 시상된다.(02) 720-7060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회 대의기구 역할 미흡"

재가연대 '조계종 종회 모니터' 발표

"종회가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성원미달로 폐회하는등 종도들의 대의기구 및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142회 임시 중앙종회 모니터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종무보고시 부장스님들이 소관부서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수행자답지 않는 비어 사용과 산만한 회의 분위기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 출석 및 종책질의 내용을 보면 재적의원 78명중 4일간 평균 46.25명이 출석, 출석율은 59.25%를 차지했다. 종책질의 및 보충질의를 한 의원은 38명으로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며, 특히 비구니스님들의 종회 참여 및 질의가 미미했다. 종회기간내내 불참한 비구니 의원스님도 4명이나 됐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종책질의가 서면으로 이뤄지는 등 종회가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안건토의시 종헌·종법·종령에 의거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있어서는 안될 일

은해사 제 1190년 개산대재 및 본사주지스님 진산식

보살계 · 만등불사 대법회 안내

◈ 일 시 : 불기 2543(1999)년 10월 16일(음 9.8)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은해사는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에 혜철국사(慧哲國師)께서 창건하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신 원효(元曉)스님, 우리 문자의 기틀을 마련한 설총선생, 민족자주 역사를 최초로 선양한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성사(一然聖師)등 삼성현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도량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이 상주하시는 은해사가 온국민의 정신적 귀의처요 정해결사 도량으로서 개산한지 어언 1190년의 성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오늘에 되새겨 제방의 스님들과 선남선녀와 함께 일타조실 큰스님을 비롯한 3사 7증을 모시고 **보살계**와 **만등불사, 신임주지 진산식** 그리고 **지장보살 봉안식**을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3년 9월

證明 東谷 日陀

三師
전계아사리 (如天無比)
갈마아사리 (法融智霞)
교수아사리 (包雲性眞)

七證
包山慧印 (악천사 회주)
靑菴法祖 (고운사 주지)
錦牙慧國 (남국 선원장)
中和法陀 (은해사 회주)
海圓金龍 (승가대학원학감)
金潭智漠 (극락 선원장)
包賢法義 (은해사 주지)

· 법 회 안 내 ·

■오전 9시	다례재 - 부도전
■오전10시 30분	개산대재 및 본사주지 진산식
■오전11시 30분	지장보살 봉안식
■정오	점심공양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오후 4시	영가천도재
■오후 5시	저녁공양
■오후 6시	만등불사 점등식
■오후 6시 10분	대구불교방송 국악관현악단 초청 산사 국악 한마당

▷장 소 : 제10교구본사 팔공산은해사 금강계단
▷동 참 금 : 보살계 - 2만원, 만등불사 5천원, 영가천도 5천
▷문의전화 : 은해사 (0563)335-3318~9, FAX(0563)335-0293
평불협 (02)735-5558~9, 은해사 교구 각 말사

※은해사에서는 특별법회 및 정기법회일 (매월 음력 3일, 18일) 대구, 경산, 영천, 하양 지역 버스를 운행합니다.
※행사 전날(15일) 철야기도 하실 분은 미리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개발정책에 사찰환경 '더 악화'

조계종 '대선 불교계공약 이행 촉구' 배경

내년총선 · 집권 1년반 지나 재평가 시기

"공약이행 가능성 희박"…대통령 결심 바래

12일 열리는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결의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사항의 이행도 촉구할 방침이어서 결의대회가 대정부 촉구대회의 성격도 띠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결의대회 홍보자료집에 '대통령 불교계 공약과 그 이행 현황'을 별도로 넣었다. 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사찰환경 침해, 성보문화재 도난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 관련 부처의 더딘 움직임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분리징수 움직임도 조계종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과 불편함의 해소는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것들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를 다그치기 보다는 이제는 공약을 평가해 김대통령의 결심을 얻어내겠다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마침 16대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오고, 김대통령도 집권 1년반을 넘는 시기인 것도 고려됐다.

김대통령은 97년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총무원을 방문, 당시 총무원장인 월주스님에게 불교계에 대해 10가지 공약을 전달했다. 이 공약들은 당시 불교계의 현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조계종으로서는 반갑고 환영할만한 내용이었다.

10가지 중 팔만대장경 번역사업 지원만 순조로울 뿐 나머지는 "아직껏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거나 "전혀 지켜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조계종의 시각이다. 특히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해 놓고서는 건축법을 개정해 오히려 수행환경 침해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에 대해 서운함 이상의 정서를 갖고 있다.

기획실장 만성스님은 "공약이 단순히 조계종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 보존과 민족정신을 고취하려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러한 약속을 조계종이 대신해서 받아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총무원은 결의대회 홍보자료집을 통해 김대통령의 10가지 공약사항 이행 정도를 일일이 짚었다.

▩편향없는 종교정책 실현: 김대통령은 공공기관이나 군대 내에서 특정종교 편향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이를 공직자의 복무자세로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해 조계종은 "지속적인 지시와 강조가 없다면 이미 뿌리내린 종교편향적인 사고는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령면장의 심청각 연등 철거, 김태복장군의 법당 건립을 뇌물수수로 몰아붙이는 등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불교관련법 제·개정: 전반적인 사찰환경 관련 법령의 정비는 착수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건축법 8조4항의 폐지로 사찰환경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케 되었다. 고도보존법 제정은 공약으로만 제시되었고 실제 입법 추진 과정은 전혀 밟지 않고 있다.

▩사찰환경 보존 종합대책 수립: 해인골프장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단 유일의 종립선원이 있는 봉암사 인근의 스키장 조성공사 등 새롭게 발생한 사찰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정부여당 내 어디에서도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전사법 개정안만이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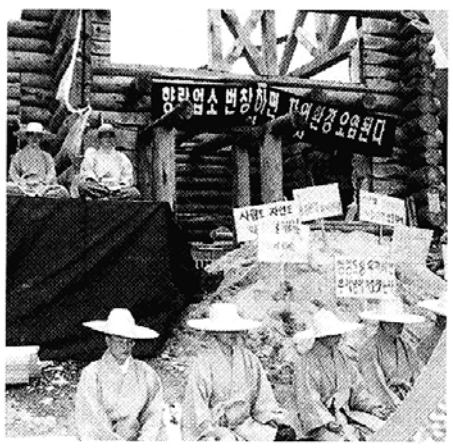
▩문화재 보존: 문화재관리국이 청(廳)으로 승격되면서 문화유산 보존의 기초적인 틀을 구축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에 불교계 인사를 참여시키겠다거나 주요 사찰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추진: 이 공약도 현실적인 검토나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찰에서의 성보문화재 도난 및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현 정부가 집권 전부터 조계종과 함께 요구했던 것이다. 공원입장료를 폐지하지 않고 다시 분리징수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 불교교류 지원 확대: 민간부문의 남북교류사업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활발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협력처럼 정부 차원의 종교·문화 교류 지원 방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조계종은 김대통령의 불교전통문화 복원 및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개국 지원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개발위주 정책으로 사찰의 수행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스님들이 석남사 앞 식당 및 상가 건물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9월19일 평양의 조선불교도연맹 접견실에서 대표 회담을 갖는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오른쪽)과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

통일토론회 내년개최 합의

진각종 성초통리원장 방북의 결실

국제불교성직자련 결성
보현사 대장경 공동 번역
필요성 공감 등 의견접근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휴명 종의회의장, 회정 국제불교연구소장, 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대표단 4인은 9월 18~25일 7박8일 동안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종단의 원장급으로는 최초의 공식 방북으로 눈길을 끈 진각종 방북단은 구월산 월정사와 성불사 보현사 등 7개 사찰을 참배하고 박태화위원장 등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과 두차례 회담하는 등 남북불교교류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북측에서 종단대표 초청이라는 점을 감안 각별한 예우를 해주었다고 전한 진각종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종단 차원은 물론 종단협 차원에서의 교류 활성화에 물꼬를 트는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북에서 진각종과 조불련은 내년 상반기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한 불교도가 참여하는 통일토론회 공동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의 허가와 실무차원에서 좀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가시화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 남북 불교도가 한자리에서 통일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일은 단순한 만남에서 한걸음 나아가 일불제자로서 함께 통일원력을 다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개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또한 진각종은 이번 방문에서 버스를 기증하고 복지시설 건립을 제안하는 등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앞으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가속화 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용유 의복 등 북쪽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 지원이 야말로 교류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밑받침이 된다는 판단이다. 또 진각종에서 제안한 '국제불교성직자연합' 창설과 묘향산 보현사 소장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본 공동번역 사업 제안에 대해 조불련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조불련은 평양 근교에 짓고 있는 통일기념탑에 남측 불교계가 기념표석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보현사에 삭발한 스님이 많이 늘어났고 성불사 참배시 주지스님의 은사가 통도사 출신으로, 도반들이 남한에 원로로서 건재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하는 등 북한에 불교 뿌리가 아주 망가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며 "남북불교가 '한건주의'를 탈피해 만남이 꾸준히 이어지다 보면 서로간에 신뢰가 쌓여 민족간의 동질성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이번 방문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고산스님-박태화위원장 '서신 교환'

진각종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고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조계종 총무원장)의 서신을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에 전달하고 그 답신을 받아와 고산회장에게 전달했다.

고산스님은 서신에서 "판문점을 통과하는 만남과, 신계사 복원, 통일을 위한 불교도의 할 일에 대해 위원장님의 대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불련 박태화위원장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박위원장은 "여건만 성숙되어 총무원장님이 평양에 오신다면 우리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뿐 아니라 남측 불교종단협의회 회장으로서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어

10월에는…

민족감정의 분출을 메뚜기떼에 비유한 재미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보통 혼자 사는 메뚜기는 가끔 등 위기가 닥치면 함께 모여 서로를 자극, 공격적인 무리를 이룬다. 드넓은 산하를 순식간에 황폐화시키는 그 메뚜기떼의 초(超)메뚜기적 위력은 이처럼 뭉치는 데서 나온다.

민족감정을 지닌 인간사회도 메뚜기떼나 다름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사회는 보다 복잡하다. 민족감정이 특정정권이나 종교, 권력집단의 순수치 못한 동기에 의해 부추겨지고 이용당하는 예가 적지않은 것이다.

한국군이 유엔 다국적군 일원으로 파견된 나라, 동티모르의 경우,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그들의 본능적인 단결의 힘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인도네시아란 강대국(적어도 동티모르에겐 그렇다) 민족주의에의 대응은 20여년간 20만명의 희생자를 낸 항거뿐이었다. 민족과 종교가 다른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는 원래부터 화합하기 어려웠다.

민족, 종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낭자하게 피 흘리고 있는 곳이 어디 동티모르 뿐인가. 아니 지금 세계는 민족분쟁이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자유로운가. 지난 1백여년 이민사로 이제 전세계에 5백60여만명의 혈통적 한국인이 흩어져 살고 있다. 더러는 잘 살기도 하나 당사국의 민족분쟁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한 일간지는 중앙아시아 타지크에서 쫓겨난 카레이스키(고려인)들의 참상을 보도하고 있다. 집도 먹을 것도 없다는 그들은 호미 한자루 헌 옷 한벌도 아쉽다 한다. 러시아 소수민족 중 한국정부가 동포들에게 가장 무심하다며 섭섭함을 털어놓기도 한다.

그것이 러시아의 고려인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 심각하다. 탈주 북한인들의 인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세계화라지만 아직 민족을 떠난 인간은 꿈과 이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딱한 동족의 처지를 외면하면서 인권을 운위할 자격이 있을까.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어 새삼 민족과 그 정체성을 생각케 한다.

김정자(칼럼니스트 · 본지 논설위원)

■동국대 이사선임

종회서 처리 못하고 이사회로

10월중 결정해야

동국대학교 이사 선임과 관련, 9월 13~17일 열렸던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이사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함에 따라 이사 선임은 동국대 이사회 손으로 넘어갔다. 종회 사무처장 영배스님은 "종회에서 추천동의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제는 이사회의 소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국대 법인사무처의 한 간부는 "종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종립학원으로서 무시하지는 못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교육법에 따라 임기만료(11월 22일) 1개월 전에 교육부에 새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해 조만간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동국학원 정관과 조계종의 종립학교관리법에 따르면, 이사 정원 13명 중 9명은 조계종 재적승려로 하며,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이사 등의 임원 후보를 선정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동국대에 복수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이사 후보로 선정한 12명은 녹원(현 이사장), 보광(해인사 주지), 현해(월정사 주지), 월서(호계원장), 벽파(현 이사), 종열(전 화엄사 주지), 정휴(종회의원), 장윤(전등사 주지), 영배(종회사무처장), 현각(동국대 불교대학장),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범종(종회의원)스님 등이다. 이 가운데 정휴, 장윤, 범종, 성관 스님은 이사후보를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이사 선임과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으며, 가장 설득력있는 전망은 이사회가 종회 내 종책연구모임인 육화회 청림회 일여회의 의중을 반영한다는 안이다. 이에 따라 종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사후보로 선정된 녹원 벽파 보광 현해 월서 영배 현각 종열 스님과 봉선사쪽 스님, 임기만료되는 이사 중 1명 등 10명 중에서 6명을 선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운 기자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법회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수행과 포교의 전당인 법련사에서는
새 주지스님을 모시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불자님들과의 만남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수회 동참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법련 불교대학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불교대학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전 강좌

-. 기초반
1. 내용 : 기초교리, 반야심경, 금강경
2. 일시
• 낮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저녁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3. 장소 :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
4. 대상 :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
5. 기간 : 1년 (12개월)
6. 강사 : 오경스님 (법련사 주지)
7. 동참금: 5만원 (3개월분)

-. 중급반
1. 내용 : 불교사 (인도, 중국), 원각경, 기신론
2. 일시 : (2000년 1월 개강 예정)

-. 고급반
1. 내용 : 불교사 (한국), 화엄경, 선어록
2. 일시 : (2000년 4월 개강 예정)

교양 강좌

-. 선체조
1.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법련사 2층 선방
3. 강사 : 백문수화 (동국대 사회교육원)
4. 수강료 : 4만원 (2개월분)

-. 시민선방
1.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철야정진
2. 장 소 : 법련사 2층 선방
3. 대 상 : 참선에 관심 있는 모든 분
4. 동참금 : 5만원 (3개월분)

일요 정기법회

불교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시간이 없는
직장인 및 청 · 장년층을 위한 일요정기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발원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생활이 언제나 정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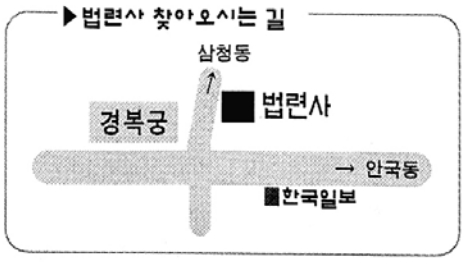
1.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첫 법회 10월 3일)
2. 장소 : 법련사 3층 대웅보전
3. 대상 :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4. 법사 : 주지스님 및 초청법사

서암 큰스님 초청 특별 대법회

법련사에서는 9월 초하루 기원법회에
서암 큰스님을 모시고 특별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큰스님 법문을 통하여
부처님의 정법의 향기를 느끼고
삶의 지혜를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1999년 10월 9일 (음력 9월 초하루)
오전 10시
2. 장소 : 법련사 3층 대웅보전
3. 법사 :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법련사 찾아오시는 길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 광 사 서울분원 **법 련 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문의전화 : 02)733-5322



행자교육 회향식 가족 축하속에…

Focus

조계종 제17기 행자교육원 회향 및 수계법회가 최초로 교육생들의 은사들과 속가 부모형제, 신도들의 동참·축하 속에 9월 18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됐다. 교육원은 행자들이 예비승려인 사미(니)가 되는 순간은 사부대중의 축복속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수계식을 일반인과 언론에 공개했다.

교육원장 일면, 행자교육원장 녹원스님, 유나 무관스님 등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사미 149명, 사미니 112명 등 총 261명이 수계를 받았다.

사진은 범어사 수용 사미〈사진 가운데〉가 수계식 후 은사인 능허스님(직지사 강사)과 축하차 온 가족·사찰 신도와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유일한 외국인 행자 청도 사미

"늘 내면의 마음 지켜봐요"



조계종 제17기 행자교육원에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자와 50세의 늦깎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있으나 특히 눈길을 끈 행자는 푸른 눈의 폴 스티븐슨(법명 再道, 44세). 수계자 261명중 유일한 외국인 스티븐슨은 미국 코네티컷주 출신으로 뉴욕의 알프레드 대학에서 사진예술을 전공, 20여년간 활동하다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위해 불교에 입문했다.

97년 한마음선원 시카고지원과 인연을 맺은 폴 스티븐슨은 한국에 오기위해 6개월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로 된 불교서적도 탐독하는 등 준비를 마친후 지난해 충북 음성군 광명선원(前한마음선원 금왕지원)에서 혜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강의내용을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오후불식과 묵언등 생활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었다"는 폴 스티븐슨씨는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어떤 스님이 되겠다는 의식보다는 한걸음 한걸음 오로지 정진할 뿐"이라며 보리심을 발했다. 김천=이윤호 기자

조계종 호법부장서리

종지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9월29일 종고스님의 사표 제출에 따라 공석이 된 신임 호법부장서리에 종지스님(연곡사 주지)을 임명했다.

종지스님은 70년 도광스님을 은사로 화엄사로 출가, 73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화엄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용화사 선원 안거 이후 20안거를 성만했다. 화엄사와 천은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은해사주지 법의스님



은해사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28일 재적승려 65명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은해사 주지직무대행 법의스님을 만장일치로 새주지에 추대했다.

신임주지로 추천된 법의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만 본사주지로서의 소임도 수행의 일부로 생각한다"며 "조실 스님의 뜻을 받들어 은해사 모든 대중과 함께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의스님은 1965년 추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2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백양사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내장사 교무, 안동포교당 법용사주지, 의성 대곡사주지, 대구 대성사주지, 은해사 총무국장등을 역임했다.

은해사는 법의스님의 주지 진산식을 16일 은해사 제1190주년 개산대재를 맞아 거행할 예정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고산총무원장 기독교회협서 설법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9월30일 성공회대성당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기념예배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교리 이전에 인간을 생각하고, 교세 이전에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종교 본래의 겸손한 자리에서 종교간 화합과 관용의 아름다움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고산스님(사진 왼쪽)이 KNCC총무 김동완목사의 안내를 받으며 예배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교수·기자등 국제포교사 22명 탄생

국제포교사 22명이 새로 탄생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일면)은 9월18일 2층 강의실에서 제4기 국제포교사 연수 수료식 및 품수식을 거행했다. 이번 품수식에서는 모두 21명이 국제포교사 자격을 품수받았으며, 에드워드 뮤지카 박사(前 미 UCLA대 교수)가 처음으로 명예 국제포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배출된 국제포교사들중에는 방송사 기자가 3명이나 포함되는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포함돼 눈길을 모았다. 비구니 도겸·혜연·정호스님을 비롯 김종걸 성균관대 교수, BBS 강선문·이송곤 기자, SBS 서쌍교 기자, 환경전문가 이추경씨, 선체조지도자 안중용씨, 학원장 김병곤씨, 영어통역사 이재원씨, 어린이법회 교사 김윤희씨 등이 그들.

이로써 4기까지 배출된 국제포교사는 모두 80명이 되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교차로

불우청소년에 2천만원 전달



현성 승가원 이사장 스님은 9월21일 서울 강북구청에서 승가원이 주최한 한마음음악회를 통해 마련한 1천8백만원 등 2천3백만원을 7명의 지역 불우청소년에게 전달했다.

소년가장·독거노인에 성금



혜광 법주사 주지는 9월22일 청주 시장실을 방문해 나기청 청주시장에게 청주권 소년소녀 가장 및 무위탁노인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제45회 백제문화제 유등제

장곡 공주시사암연합회 회장 스님은 11일 오후 6시30분 금강둔치 공원에서 백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제45회 백제유등제를 봉행한다.



남북통일기원 영산대재



혜승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원각사 주지)은 의정부시, 경기문화재단, 의정부시문화원 후원으로 10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시청앞 평화의광장에서 제6회 남북통일 기원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제1회 어린이 글짓기 큰잔치



지원 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 회장 스님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가족공원에서 제1회 어린이 글짓기 및 연예인 초청 큰잔치를 연다. 서울·경기지역 초등학생은 누구나 참석가능. (02)3281-3251

자비의 전화 이전개원 법회



정덕 '자비의 전화' 회장 스님은 9월 18일 조계종 포교원 건물 4층으로 이전, 개원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종합병원 기공식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4일 오후2시 동국대 의과대학·한의과대학부속 불교종합병원 착공식 및 축하공연을 고양시 식사동 병원건립부지에서 갖는다.

중앙신도회 사무처 이전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4일 서울 인사동 사무처에서 상임운영회의를 열고 99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또 5일 견지동 조계사 인근 상운중심빌딩 3,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02)733-7277

'동국의료원 개혁보고서' 발간



조재호 동국대 의료원장은 95년 선정한 23개 중점 과제 및 세부실천 업무 100여개를 실천해 온 결과를 정리해 〈동국의료원 100대 개혁과제 추진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부루나합창단 정기공연



채정희 제주불교부루나합창단장은 7일 오후 7시30분 제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정기음악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대구 동화사 봉황합창단 단장 유광스님이 우정출연 한다.



서울의 새천년 맞이 행사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9월29일 열린 새천년맞이 '한민족 희망과 평화나누기'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 자문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새천년의 꿈과 평화메시지를 담아 5천여개의 다양한 풍선이 날려졌다.

■ 권희로씨 영남불교대서 첫 강연

"봉사에 여생 바칠터"



귀국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권희로씨가 9월29일 영남불교대학(주지 우학)에서 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모정불심(母情佛心)'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씨는 어머니의 유골이 들어있는 목걸이를 내보이며 "오늘 이 자리에는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권씨는 앞으로 자서전을 발간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나 비행청소년을 위한 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불교학자 김인덕 박사 별세



김인덕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삼성의료원에서 9월28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4세. 영결식은 9월30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거행됐다. '삼론학' 연구로 철학박사를 취득한 김인덕 교수는 용수의 〈중론〉연구로 한국불교 발전에 공헌했다. 교수는 72년 대한불교삼론종 교리연구원장을 역임하고, 76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했다. 92년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편찬위원, 97년 불교학과 대학원 학과장, 한국불교학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인도 삼론의 기본사상〉등이, 논문으로는 〈백제의 삼론고승〉〈반야바라밀에 의한 세간과 중생 제도〉〈반야바라밀과 보살의 제염원〉〈대승신행의 본질〉〈반야경과 금강경의 특징적 가르침〉 등이 있다.

통도사 개산대재 1354주년 대축제

⊙ 통도사 개산 대축제 ⊙

귀의 삼보하옵고

결실의 가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음력 9월 9일(중양지절) 통도사 개산조이신 자장율사께서 부처님 정골 진신사리를 봉안 금강계단을 쌓으시니 이날이 곧 통도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불지종가 국지대찰인 본사에서는 연예인 설운도, 김세레나, 남보원, 장미화, 최석준, 김병찬 그리고 부산 MBC 악단을 초청 더욱 뜻깊은 대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을 접수받습니다(1매에 5만원 이상). 기업체나 자기소개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개산대재 전야제 박물관 행사

통도사 개산 1354주년 기념 제1회 통도사성보박물관 성보예술제

10월 16일(토)
- 오후 2시 제1회 성보예술제 개막 - 박물관 중앙홀
- 오후 3시 부도전 헌다의례 재현 - 부도전
- 오후 4시 통도사성보합창단 찬불공양 - 부도전

식 순

- 입 재 식 : 1999년 10월 17일 오전 10시 설법전
  - 삼귀의, 반야심경, 자장율사 행장소개(강주스님)
  - 헌향
  - 헌다 - 선다회
  - 상공 - 노전스님
  - 인사 - 집행위원장스님
- 11시 점심공양(경로잔치 겸함) - 장소 : 감로당 (신도는 식당)
- 12시 ~ 1시 합창단 소개(단장 및 지휘자 단원 명단소개)
- 1시 ~ 3시 연예인 잔치
- 3시 ~ 5시 어산법회, 구국영령 천도의 밤
- 6시 예불 및 점등식

※문의전화 : 통도사 0523-382-7182~7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월하 합장

탐방 부산 보현회



◇보현회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경남 연등회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들에게 '해탈의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연령 초월 2백명 봉사모임

82년 창립…가족회원 많아
소년가장 · 복지시설 후원

안면부지의 남남이 만나 '봉사'로 한가족을 이룬 모임,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 82년 안성이 보살의 친정식구 5명으로 시작한 보현회는 이제 2백명이라는 거대한 가족으로 자리를 잡았다. 20대에서 70대까지의 회원들이 형님, 아우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다.

봉사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불자 모임이 아니었다. 종교와 상관없이 만나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을 모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다. 또 보현회는 가족회원이 유달리 많다는게 특징이다. 봉사활동을 하는 진지한 부모, 형제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함께 불교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에도 동참하는 가족이 많아졌다. 젊은 청년 가족은 흥법청년회와 축구봉사단을 구성하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보현회는 현재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고아원, 결핵요양원, 군법당 등 어려움에 처한 곳이면 어디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렇게 보현회는 도움을 준 이나 받은 이가 둘 아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하나돼 어려운 세상 속에 밝은 연꽃을 피워내고 있다. 보현회가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과 동병상련의 정을 헤아릴 줄 아는 심성을 가진 회원들에게서 나온다. 회원들 상호간 길흉사를 챙기다 보면 자신이 받은 고마움을 더 크게 회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게 회원들의 말이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있는 보현회 회원들의 보현행은 한결같은 18년 세월을 훌쩍 넘어 21세기 포교의 큰 발걸음으로 새겨지고 있다. 수련회나 사찰순례를 따로 하지 않고 봉사활동 후 인근 사찰을 들러 참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을 만큼 철저한 봉사모임 부산불교보현회는 어렵고 가난한 할머니를 위한 시설을 꿈꾸며 오늘도 세상의 천수천안이 되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싶을 뿐"이라는 안성이 회장의 짧지만 많은 의미를 담은 말에서 보현회의 지향점을 발견하며 그 삶을 따라 배우고 싶어진다.

부산=천미희 기자

병원불자 연합회 결성

30여 신도회 11월 합동수련…연말 출범
이달중 실무자 모임…교류방안등 모색

불자 교수, 교사, 금융인, 운전기사들에 이어 병원 관계 불자들의 연합기구가 결성된다. 지난 6월 전국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지도자대회 이후 병원불자회 관계자들 사이에 병원불자연합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올 연말 연합회 출범을 목표로 15일 실무자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병원불자연합회 결성을 제안한 실무자들은 그동안 서울 지역의 병원불자회 창립법회나 기념행사에 참석해 단체장들과 교섭하는 등 연합회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9월 17일 봉행된 국립정신병원불자회 부처님 점안식에는 국립경찰병원불교신도회, 경희의료원불자회, 한일병원불자회, 중앙병원불자회, 국립의료원법우회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축하하고 병원불자연합회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실무자들은 1차 모임에 이어 몇차례 더 모임을 가져 의견을 나누고, 11월 중순 전국 30여 곳의 병원불자회가 참여하는 합동 수련회를 통해 내부적인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실무자모임에서는 각 병원불자회 교섭에 그치지 않고 연합회 구성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연합회의 실천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병원불자연합회는 향후 각 병원불자회 간 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를 통해 체계적인 신행활동과 환자포교 방안 모색을 위한 창구가 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경찰병원불교신도회 부회장 김정숙씨(물리치료실장)는 "연합회 구성은 각 병원불자회들이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유함으로해서 신심을 증장하고 불자회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히 몇몇 단체를 모아 연합회를 결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위축돼 온 불자회에는 인화의 힘을 보태고, 모범 불자회에서는 그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각 불자회의 잇점과 단점을 보완절충하고 배우는 알찬 연합회가 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고 말했다.

직장직능법회 연합회 결성에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은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병원불자연합회가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완급을 조절하고, 명실상부한 불교단체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국립정신병원 법당 열었다

불자회 창립 7년만에



국립 서울정신병원 불자회(회장 양동선)는 9월17일 창립 7년만에 본 병원 소아자폐증 진료소에 법당을 마련하고 부처님 점안식을 가졌다.〈사진〉

이충경 병원장의 배려로 법당을 개원하게 된 서울정신병원불자회는 조계종 포교원 화암(포교연구실장) 법경(포교국장)스님과 봉영사 주지 철안스님, 지도법사 이학주 교법사(명성여고),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 및 불공의식, 기념법회, 다과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동선 회장(치과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주셔서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됐다"며 "더욱 분발하여 법회활동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보살행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MBC 불교연구회 13곳 9-10일 갑사 합동수련

전국 문화방송 불자 방송인들이 돈독한 신심으로 불자의 연을 맺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본사를 비롯 전국 13개 지역 불자 방송인들이 9~10일 공주 갑사에서 합동 수련회를 갖는다.

본사 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수련회는 특히 마산 진주 청주 강릉 MBC 등 계열사의 불교연구회 창립법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예불, 신규 참석 계열사 불교회 창립법회 및 간담회, 참선정진,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02)789-2216 장영효

우리 모임에선

대구 정법회장 김주본씨

대구 개인택시정법회 제9대 회장에 김주본씨(48)가 당선됐다. 6,7대 회장을 역임한 김회장은 전임 류지순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회장직 보궐선거에 9월21일 단독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청량리 기관차회 사찰순례

청량리 기관차 불교법우회(회장 장만식)는 1일 서울 시립 중계 노인복지관 수용 불자노인 40여 명과 함께 경기도 여주 도드람산 연등사 사찰순례를 가졌다. 노인들을 부축해 사찰을 참배하고, 주지 성륜스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은 청량리기관차 불교법우회는 85년 창립 이후 시립 중계노인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노인 위로 사찰순례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백성욱박사 13주기 추모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9월28일 조계사에서 '마음 바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설파하고 금강경독송회 사상의 근간을 이룬 백성욱 박사(초대 내무부 장관)의 제 18회 추모식〈사진〉을 봉행했다.

정한용 · 배종무의원 출판회

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 부회장 정한용 · 배종무 의원이 9월2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남자〉 출판기념회와 후원의 밤을 각각 개최했다.

수원산악회 사찰환경 정화



수원불교산악회(회장 임병선)는 9월12일 충주 월악산 덕주사에서 사찰환경 보호활동을 벌였다. 수원불교산악회〈사진〉는 이날 경내와 월악산 일대 쓰레기를 줍고, 관광객에게 '산림보호' 스티커를 배포했다.

최경수 명예기자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

진각종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이 9월 30일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과 이상훈 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을 비롯해 총지화 총지종 통리원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 진영호(성북구청장)씨, 신도 5백여명이 참석했다.

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7백85평 규모로 치매주간보호 및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제8회 행원문화상 시상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9월29일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제8회 행원문화상 시상을 거행했다. 석주스님을 비롯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현성스님,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홍윤식교수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주영운 이사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화 포교에 앞장서는 이들에게 행원문화상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원각사 대웅보전 상량법회

서울 동작구 원각사(주지 활현)는 9월20일 대웅보전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성문스님, 활현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상량식은 김덕수 사물놀이패, 중요무형문화재 박초선씨의 관소리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불교사회교육원 추석 노인위안잔치

불국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은 추석을 맞아 9월21일 노인위안잔치를 벌였다. 이날 행사는 선린신경외과(원장 변영우)에서 실시한 무료검진을 비롯 교육원내 여래원에서의 무료급식,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이 마련한 다과와 선물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성타스님을 비롯 변영우 불국사 신도회장, 노인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생활禪으로 마음열자

국불회 창립 14돌 법회



국토연구원 국불회(회장 김의식)는 9월29일 관악산 백운사에서 창립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김의식 회장은 창립 14주년 회고사에서 "그동안 불교 학자를 초청해 귀를 열었고, 큰스님 초청법회를 통해 불교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때다"며 "마음의 눈은 생활 속 수행을 통해 개안(開眼)이 가능한 만큼 생활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불교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0343)380-0382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종단 등록기념법회 (및 나한전 봉불식)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본사 회주스님이신 **혜인 큰스님**께서 이땅에 부처님의 성전을 건립코자 원력을 세우시고 불사를 시작한지 10여년이 넘는 동안 국내외의 신심깊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원력에 힘입어 지난 96년 9월 동양 최대의 법당낙성 회향법회를 가진 뒤 만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스님께서는 불자 여러분의 온갖 정성으로 이룩한 성전을 종단에 헌납코자 98년 5월경 조계종단에 등록신청을 출원하였으나 종단사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1년여가 넘도록 종단 등록을 못하다가 종단사태가 정리된 최근에야 종단등록 신청이 수리되어 지난 5월 종단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나한전 봉불식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행사**를 봉행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제주 약천사에서 성불인연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불기 2543년 10월 일

일 정

10월 22일 오후 6시

6:00 저녁예불
7~11시 법문
①철웅 큰스님
②혜국 큰스님
보살계수계: 혜인큰스님

11시 영가천도재
〈오전〉 4:00 새벽예불
6:00 아침공양
8~9시 나한전 봉불식

· 낙성 3주년 기념식 ·
10월 23일 오전 9시

기타공연

· 동국실내 국악단 연주
· 조경자씨 판소리(심청가 눈뜨는 대목)
· 김하정씨 한량무, 승무
· 약천사 어린이 사물놀이 공연
· 약천사 탐라다도회 육법공양
· 박경숙씨 "신칼대신 무"

불사 동참안내

· 영가보살계 1위 - 오천원
· 보살계수계 - 일만원
· 영가등접수 - 일만원

송금방법

31-01-058513(제주은행)
예금주 : 약천사

댄스그룹 "신화"가 약천사에 옵니다.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10월 24일 댄스그룹 '신화'

10시 30분 ▸공연
무료 ▸신화 소장품 선물 추첨
▸선물추첨(CD, TAPE) 100명
▸기념촬영(추첨)
▸참석자 브로마이드 증정(30,000명)

10월 31일 개그맨 강호동
11월 7일 개그맨 김경식
11월 14일 개그맨 박수림

★ 시간 -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협력업체 : 협력업체를 이용하시면 값싸고 편하게 제주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 서울 선재여행사 02-582-6647~8 · 반야여행사 02-730-0020
- 부산 우진항공여행사 051-635-6333
- 대구 무궁화관광 053-423-5501~5
- 제주 대자연교통(교통편 문의처) 080-996-9999, 011-699-3348

대한불교 조계종 약천사 회주 慧印 주지 性空 합장 · 전화 064)738-5000 · 팩스 738-5022

이렇게 들었다 — 효와 노인

"내부모 대하듯 어른 공경하라"

〈부모은중경〉에 보면 부처님이 한무더기의 뼈를 보고 오체투지하여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은 그 뼈무덤이 전생의 부모이거나 여러대에 걸친 부모이기때문에 예배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어른인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이자 2일은 우리정부가 지정한 제2회 노인의 날이다. 경전속에 나타난 효와 노인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부모가 있으므로 우주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이 있으며, 사람의 도리가 있으니, 이 모두가 부모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므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지성으로 봉양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영가를 잘 천도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해야 하느니라. 또 자신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병든 노인이나 나이 많은 노인을 대할 때 마치 내 부모를 대하듯 공경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할 때, 불법승 삼보와 천인, 용이나 모든 선신들이 항상 보호하며, 힘든 지경을 당할지라도 세세생생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야만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명 또한 길어지고 자손대대로 많은 복을 누리며 부귀하게 살 수 있다. 〈삼세인과경〉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불효로써 부모를 괴롭히고 있다. 묻는 말에 대답이 불손하고 눈을 부라리며 욕설까지 퍼붓는다. 부모의 헐벗고 배고픔을 모른체하며 저만 잘입고 잘먹으려고 한다. 이런 자들은 지옥이나 아귀, 혹은 축생의 세상에 떨어질 것이다. 부처와 금강신, 다섯가지 신통력을 지닌 신선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해낼 수 없다.
〈부모은중경〉

▨늙은 부모를 잘 섬기면 의당 내세에는 제석천(帝釋天)의 궁전에 살게 된다. 그리하여 무수한 환희원(歡喜園)이 늘 사면을 에워싼다.
〈대승일자왕소문경〉

▨늘 부모를 존중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쉬는 일 없거라.
〈화엄경〉

▨만약 총명한 지혜를 지닌 지자(智者)가 있어서 생사의 피안(彼岸)에 도달하려 한다면, 응당 부모를 존경해야 할 것이다. 〈금강계주수행경〉

▨마땅히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여 존중해 섬겨서 신(神)인 듯 받드는 생각을 지녀야 하며, 부모의 생각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면서도 아첨하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보리자량론〉

▨자식은 마땅히 다섯가지 것으로 부모를 바로 공경하고 바로 봉양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무엇인가? 은혜를 잊지 않아 오직 보답하며, 가사(家事)를 오직 닦으며, 부채는 오직 갚으며, 분부는 오직 따르며, 섭기되 오직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함이 그것이다. 〈선생자경〉

▨자식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다섯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활동을 생각함이다. 둘째는 일직 일어나 종에게 명령하여 때에 맞추어 밥을 지음이다. 셋째는 부모의 근심을 더하게 아니함이다.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마땅히 생각함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병들었을 경우, 두려워하여 의사를 구해 치료함이다. 〈육방례경〉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독송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삼보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재계를 받아 지니며,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만일 능히 이렇게 하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할것이요, 이렇지 못한다면 이는 지옥에서 떨어질 사람이니라. 〈부모은중경〉

열 린 마 당

은평노인복지관 세미나 '고령화시대 노인역할'

1999년은 UNO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이다.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은평 은빛 대축제를 개최했다. '새 천년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역할'을 주제로 9월29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성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들은 20세기에 만들어진 산물로 앞으로 전개될 새 천년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분들의 역할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제가 대두돼야 할 시점"이라며 복지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배영 은평구청장, 노상학 강남대학원장 등은 축사에서 노소가 함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동고동락하는 사회를 형성해 주기를 기원했다. 발표된 4편의 논문들을 지면으로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노인복지세 등 신설해야"



김동배〈연세대 교수 · 사회복지학〉

노인복지는 국가가 노인들에게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라 노인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인복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세를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복권 발행 등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노인복지사업계획수립을 위해 노인복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정책입안의 체계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노인생활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노화학, 노인병학, 사회노년학 등 노인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국립노인연구원'을 설립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한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참여민주주의가 제도화돼야 하고 노인들이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노인 사회참여 기구 필요"



정길홍〈서울시 노인복지관협회장〉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구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과를 노인복지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에도 노인복지과와 계를 두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 정치 환경 사회 교육 과학기술 의료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인 임파워먼트(empowerment) 단체 또는 노인사회참여단체를 신설해야 한다. 노인복지회관을 통한 노인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자생력 있고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공장 신설 및 노인복지법 시설 종류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이 앞서야 한다. 남북노인교류 창구를 일원화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케어(Care)복지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체계적 운동으로 건강관리"



임미자〈이화여대교수 · 체육학〉

고령자에게 정기적인 운동은 혈압유지, 정신건강에 필요한 엔돌핀 · 에피네프린 등 호르몬을 분비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에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전신지구성이 떨어져 있어 적은 신체활동시에도 수축기 확장기 혈압이 증가된다. 동맥경화의 예비현상으로 보아 누구나 매일 자신에게 적당한 운동을 가능한대로 실행하여 건강관리를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전개, 체력검사 혈액 화학적 분석 심전도 개인의 활동 프로그램 계획과 트레이닝의 실시가 요구된다. 건강유지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노인 건강복지 계획 작성의무화 등의 계획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여가활동은 중년기 부터"



혜 도〈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여가는 인간신체의 균형적 건강특성에 효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질병요인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여가는 인간의 사회화와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간의 평생교육에도 긴요한 역할을 한다. 여가는 사회적 가치나 유형의 인식, 타인의 권리와 즐거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여 나가는 가운데 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다. 여가활동에 관한 기술과 지식은 적어도 중년기까지 사회화를 통하여 습득돼야만 노년기에 이르러 잘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가 활동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도 중요하므로 낙관적 태도, 자신감,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의 감정을 갖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토 론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복지수준은 그 나라의 선진국 척도의 지표가 된다.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계 · 의료 ·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민정애 관장(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소비적인 노인에서 생산적인 노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학습교육보다 본인의 신상은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생생활 훈련 및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정학 강사(동국대):주어지는 사회복지에서 본인의 복지는 본인이 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이는 노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는 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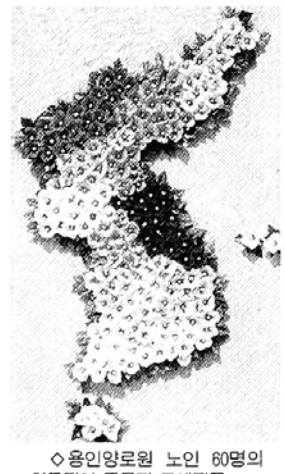
▲임창덕 교수(명지대):이론상에 그치는 노인복지가 아닌 실천적인 복지로 전환돼야 한다. 사회복지 학계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지표부터 현실적인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채준안 소장(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여가는 잠재돼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여가가 치료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여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성희 관장(송파노인종합복지관):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노인작품전시회' 전국순회

연꽃마을 주최…3천여점 출품



◇용인양로원 노인 60명의 합동작인 주름지 공예작품.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주최한 '노인작품 전시회'가 1일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에서 막을 올렸다.

'나누는 기쁨,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1달간 전국순회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출품된 작품수만도 모두 3천여점. 그 수도 엄청나지만 5개월여간 작품을 준비한 노인들의 정성이 돋보였고, 작품 모두가 노인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은 감각의 세련미와 정교함이 보는 이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게다가 작품 종류도 주름지 공예, 자수 공예, 민속공예, 매듭 공예, 지점토 공예, 서예, 그림 등 모두 30여종에 달해 마치 생활 주변의 온갖 조형물을 옮겨 놓은듯한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작품 제작에 참여한 노인만도 연인원 3만여명. 여기에 자원봉사자도 연인원 1만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전시회는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뒤, 안양(7~8일, 여성문화회관) 평택(12~13일, 남부문화예술관) 용인(15~16일, 노동복지회관) 대구(18~19일, 안실 3 · 4동 사무소) 인천(22~23일, 동구노인복지회관) 수원(27~28일, 여성회관) 등 7개 지역을 순회하며 계속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무료진료를 받고 있는 어른신들. 3일간 1천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은평노인복지관 '은빛대축제'

어르신들의 흥겨운 잔치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최한 노인의 해 기념 '은평 은빛 대축제'는 말그대로 '노인들의 잔치 한마당'이었다. 평소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온 노인들을 위로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행사는 교계 복지관으로는 처음으로 노인들을 위한 종합축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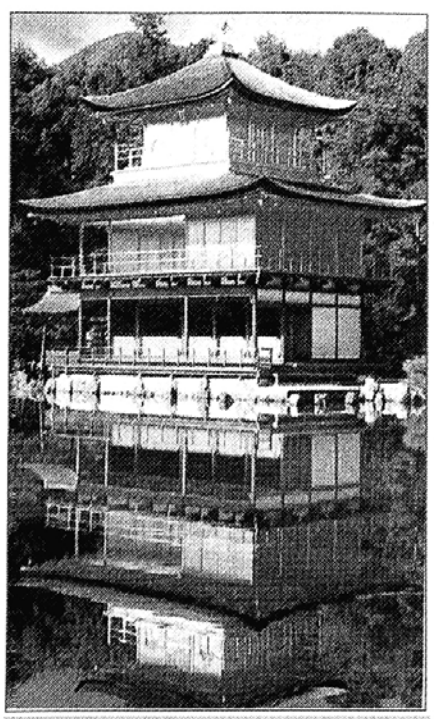
행사 첫날인 28일부터 3일간 실시된 노인무료진료에는 무려 1천여명이 넘는 노인들이 몰려들었으며, 셋째날인 30일 치뤄진 노래자랑과 체육대회, 서화백일장대회는 노인들이 가장 기대했던 '메인 이벤트'였기 때문인지 온종일 복지관 안팎이 노인들의 탄성소리로 채워졌다. 강당에서 열린 노래자랑에서는 70여 노인들이 노래솜씨를 뽐내고 5백여 청중들이 연신 박수를 치는 흥겨운 장면이 계속 이어졌다.

같은 시간, 밖에서는 게이트볼 대회가 열리면서 노래자랑 못지않은 열기를 뿜어냈다. 탁구, 포켓볼, 당구 등 실내 종목도 함께 열린 체육대회에서는 비록 몸은 '노인'이지만 마음만은 '청춘'임을 노인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일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에 이어 연예인 초청 축하공연, 노래자랑 · 체육대회 시상식, 민속 대동제 뒷풀이가 이어지면서 5일간의 행사가 막을 내렸다.
한명우 기자

관음사 낙성법회 및 일본불교 성지순례

21세기를 맞는 한일 불교 친선의 상징 법회와
관서지방의 일본불교 핵심사찰을 참배하는 행사를 안내합니다.



· 금각사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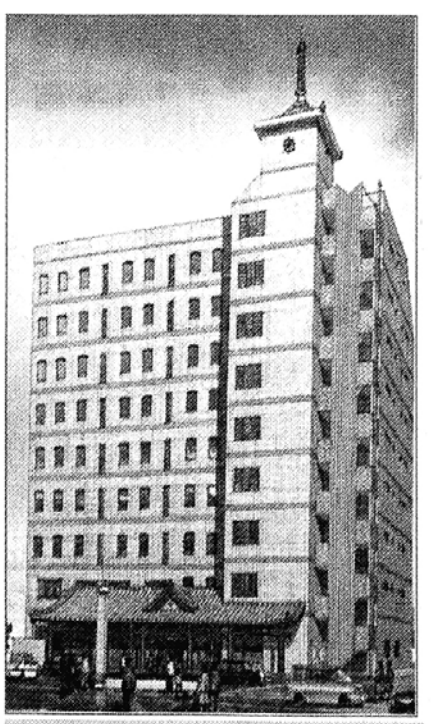
아 래

日字	地域	時間	日 程
12월03일 (금)	오사카 교 토	11:55 18:00	오사카 도착후 교토 이동 삼십삼간당 참배후 석식 및 호텔 투숙
12월04일 (토)	교 토 나 라 오사카	09:00 18:00	조식 후 호텔 출발 금각사, 광륭사, 동본원사 참배후 나라동대사대불, 법륭사, 약사사, 비조사 참배 석식 및 호텔 투숙
12월05일 (일)	오사카	09:00 18:00	조식후 호텔 출발 ※관음사 행사 참석 오사카성,신사이바시, 도톰보리 관광 석식 및 호텔 투숙
12월06일 (월)	오사카	09:00 15:10	조식후 숙소 출발 사천왕사 참배후 공항 이동 오사카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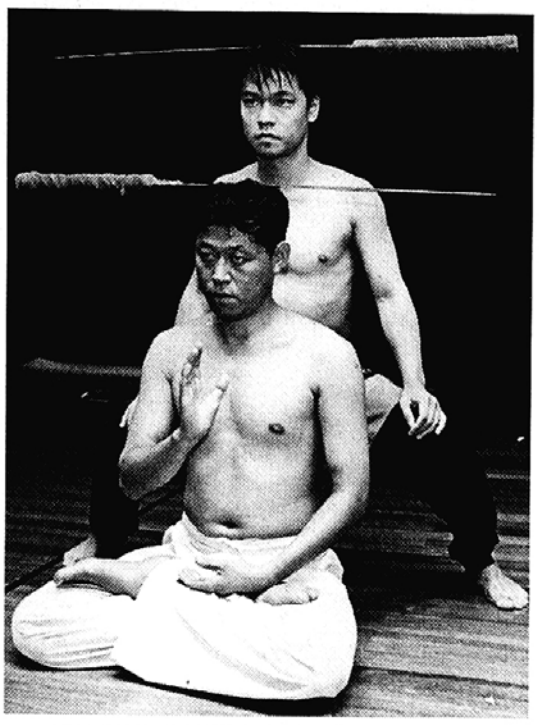
◆ 가 는 때 : 1999. 12. 3 - 12. 6 (3박4일)
◆ 가 는 곳 : 오사카, 교토, 나라
◆ 동 참 비 : 1인당 89만원정 (신청금 20만원 포함)
◆ 접수마감 : 1999. 10. 31 까지
◆ 문의 및 접수처 :

임조선사 (0344)903-9121 임조스님
원주불교회관 (0371)764-9888 이선행법사
광주연합회 (062) 226-4729 이장국거사
부산반야포교원 (051)761-1908 김종호 법사
제주 (064)757-1622 김매강 보살
제주한라불교 (064)755-2203 조인석국장
서울 평불협 (02)735-5558 이지범 국장

◆ 수속대행 : 두성관광 (02-730-6100)
◆ 후 원 : 현대불교신문사



· 관음사 조감도 ·



◇99 서울연극제 출품작인 '철안붓다'가 물질 문명의 극치가 가져온 결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8일부터 24일까지 붕괴의 아픔이 있는 성수대교 확장공사 현장 특설무대에서 공연된다.

깊어가는 가을밤 성수대교에 가면 부처님의 공생적 연기관을 연극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인간 복제기 가능한 미래 사회속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와 생명의 영속성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한 편의 연극이 성수대교 공사 현장 야외 특설 무대에서 마련된다.

연극 '철안붓다' 야외서 본다

8~24일 성수대교 확장공사현장 특설무대

인간존재 가치-불교의 연기관 등 표현

8일부터 24일까지 공연되는 극단 유씨어터(대표 유인촌)의 불교 창작 연극 '철안 붓다'(작·연출 조광화). '99서울연극제의 출품작인 작품은 특히 급속도로 발전된 물질 문명과 산업화의 극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붕괴의 아픔이 있는 성수대교 북단 확장 공사현장을 무대로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처음에는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을 꼽았으나 관계기관과 유족들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후문. 유씨어터측은 또 공사현장에 가득 널려 있는 철재와 고철 등도 무대 배경과 소품으로 여과없이 사용해 극적인 전달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연극 '철안붓다'의 무대는 석존 열반 3000년 후인 25세기 중반의 먼미래. 석가모니의 출가 항마성도와 석가족 멸망의 신화를 SF(공상과학)적인 요소를 가미해 미래 세계로 옮겨 재구성했다. 개체의 수명 연장을 위해 인간이 만든 복제 인간이 오히려 인간 종말을 불러 일으키므로 부처님의 윤회와 공생적 연기관만이 생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복제인간 철안족과 순수 인간과의 며칠간 일어난 대립을 이야기로 꾸몄다. 또 철안족들이 무대위에서 인간의 존귀함들을 무시하며 인정 사정 없이 파괴해 가는 섬뜩한 장면도 이 연극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특히 순수인간인 닥터역의 유인촌씨를 비롯해 붓다역의 권성덕, 철안족 안회역의 이남희, 닥터 아들인 시원역의 홍경인 등 출연진들도 국내 정상급이다.

연출가 조광화씨는 "야외무대에서 야기되는 분주함과 산만함 등의 단점은 인도 전통무예인 '칼라리파야트'를 익히는 등 혹독한 연기 훈련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며 "인간 사회의 갈등 요인인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공생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털어놨다. (02)3444-065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17세기 제작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조선중기 목조불상 '공개'

영남대 박물관

조선조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 제작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최근 공개됐다. 특히 불상의 복장물로 조성 발원문과 불경, 부적, 액을 쫓는 베(布)와 종이가 함께 나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불상은 영남대 박물관 유홍준관장이 국립중앙박물관 발간한 〈미술자료〉 제62호를 통해 관련 사진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불상은 33.1cm 크기로 소나무를 깎아 옻칠과 금을 차례로 입힌 것. 보관상태는 가슴부분의 금가루가 약간 벗겨진 상처를 제외하곤 거의 온전하다.

불상의 발원문에 따르면 1637년 경북 성주 비슬산 명적암에서 조성됐다. 부적은 고운 한지에 결명주사로 찍어낸 목판본 불경이다.

김리나교수(홍익대 불교미술사)는 "조선시대 불상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명확한 조성연대와 내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상묵스님 '비구노사나 유화전'

북 어린이돕기
서울·부산·마산
13일부터 순회전



◇상묵스님作 '비구노사나'

선승이 북한 어린이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붓을 들었다. 서울 공평아트센터 공평아트홀에서 13일부터 19일까지 상묵스님(지리산 지통사 주지)의 '비구 노사나 유화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상묵스님은 20여년동안 수행과 울력을 하며 틈틈히 그려온 명징한 선계, '쌍계사 팔영루'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 '보리의 시원' '피안을 찾아서' '산사의 합창', '세월은 흐르고' 등 유화 180여점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에서 엄마따라 달맞이에 나선 소녀부터 고행을 떠나는 선승의 아름다움등 동심과 천진 그리고 선의 세계에 빠져든 중생들의 다양한 삶을 만날 수 있다.

활발한 선수행을 통해 닦여진 관조와 절제의 미학이 가득담긴 상묵스님의 화풍에서 유화와 선화의 어울림 속에서 경계 없는 무애자재한 그림세계를 엿볼 수 있다.

10년전부터 지리산 지통사에 머물면서 선승으로 드물게 유화를 통해 깨달음을 표현해내고 있는 상묵스님은 96년 지리산 정상에서 '동심전'을 열어 화제가 됐다. 이 전시회는 서울 청담동 기산화랑에서 18~24일, 부산 국제신문 갤러리에서 22~28일, 마산 동서화랑에서 29~11월 4일 각각 순회 전시한다. (0595)883-3751



◇자은스님의 불교 창작 무용극 '재생(再生)' 중 한 장면.

한국불자무용인회 창립공연

'재생' 日서 성황

30여년 동안 무용 포교에 앞장 서온 자은스님(하와이 불은사 주지)이 2일 불교 창작 무용극 '재생(再生)'을 일본 오사카 시민회관에서 공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죄를 지어 문둥이로 태어났다가 부처님의 가피로 출가한 한 스님의 구도 역정을 그린 무용극 '재생'은 역동적이고 희화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불자 무용인회' 창립 기념 공연인 이번 행사에서는 최창덕(무형문화재 제27호)씨의 '승무'를 비롯해 이현자씨(무형문화재 제92호)의 '태평무', 김진홍씨(무형문화재 제97호)의 '한량무' 등과 일본 무용수들의 전통춤이 공연됐다.



◇김유경 作 '누비 마고자'

누비승복에 담긴 불심

김유경 '손누비展'

13~17일 갤러리 LGF

수익금전액 심곡암 중창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을, 명주와 면으로 지어낸 누비 승복 한 벌이면 산사의 겨울을 거뜬히 나지 않을까. 전통 손누비로 만든 승복등 누비옷전이 열릴 예정이라 색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디자이너 김유경(30)씨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 LGF에서 '김유경 손누비전'을 마련한다. 이 전시회에서 김씨는 5년간 침선삼매로 지어낸 승복등 누비옷 40여벌을 선보인다.

프랑스 에스모드(ESMOD)에서 공연의상을 공부한 김씨 서양의 '퀼트'와 동양의 '누비'를 접목시킨 의상디자이너로 호평을 받아왔다. 또 96년 '삼성 에버랜드 20주년'의 공연의상을 제작했다. 이 전시회는 천연염색의 옷감을 땀땀히 누빈 손누비 통해 자신의 뜬 마음을 다스리며 김씨가 구현한 신심(信心)의 세계를 여여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 수익금은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의 중창불사금으로 전액 사용된다. 김씨가 보시한 40여벌의 누비옷 총 가격은 1억 5천만원.

독실한 불교신자인 김씨는 "심곡암은 말 그대로 북한산 깊은 계곡에 위치한 기도도량"이라며 "이 곳에 일반 불자들이 머물고 수행하는 요사채를 짓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02)3441-8077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미륵사 복원추진

익산시, 올내 계획안 마련

전북 익산시는 9월18일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본산이자 백제시대 최대의 사찰이었던 미륵사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2005년까지 추진할 '백제 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미륵사 복원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올 년말까지 7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사찰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기본계획안에는 국내·외의 문헌과 발굴자료, 고분화와 고건축자료를 토대로 미륵사 복원을 위한 방향, 복원 위치 및 규모, 토지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익산 미륵사지 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익산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이래 1년만에 구체화됐다.(본지 193호 10면 참조)

익산시는 이 안이 마련되면 1천억원을 웃돌 복원사업비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국비지원비 외에도 불교계민자유치도 모색하기로 했다.

미륵사지(국가사적 150호)는 부여문화재연구소가 지난 80년부터 95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 가람의 규모와 형태를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미륵사가 복원되면 국내 최대 불교문화 재현단지로서 역사교육장으로서의 기능과 관광자원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8명 새로 지정



◇김종욱씨

경기도는 10월 20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단청, 화각공예등 5개 분야 8명의 기능보유자를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분야별 무형문화재 지정자는 ▲단청 김종욱(62) ▲화각공예 한춘섭(50) ▲악기 임선빈(49), 최태순(57) ▲경기소리 이성희(30·휘몰이잡가), 임정자(56·긴잡가) ▲상여·회다지소리 박조원(74), 최원산(83)등.

손 양면자수 불교미술 탄생

양면수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새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수기법


관음도(37×83)


어락도(25×25)


인물도(25×25)


연꽃(25×25)


달마도(25×25)

■ 작업소요기간 : 10일 ~ 100일이상
(수작업인 관계로 규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음도·지장도·십우도등 주문제작 가능※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오랜시간 불심의 손끝에서 수만 수십만번의 섬세한 자수작업으로 한땀 한땀 수놓아져 새겨진 놀라운 자수작품입니다.
▷신심이 바탕이 되어 가슴으로 심혈을 기울여 새겨 놓은 불교예술품에서 자수미술의 극치를 경험하십시요.
▷영정, 인물자는 후손들에게 소중한 가보가 될 것입니다.(인물도)
▷불자들간의 선물을 받는 분은 최고의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물고기 두마리는 부부금실이 좋다는 의미도 있으며, 자녀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어락도)
▷관음도를 구입하시는 분께는 달마도를 함께 드립니다.

흔치 않은 불교미술 명품의 소장자가 되십시요.
불자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명 화 자 수
전시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6-6 살롬빌딩 3층
전화 : 02)3446-5090/ H.P : 011)327-5094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 피라밋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²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 황토주택시공 및 황토 흙벽돌 판매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찾습니다

금년 초 현대불교에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가 연재된 후 많은 불자들이 크게 감명을 받고 단행본으로 묶여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에 현대불교는 창간 5주년에 맞추어 『선방일기』를 단행본으로 출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선방일기를 쓴 지허 스님의 행방을 알 길 없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현대불교나 여시아문으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허 스님의 직계 가족(속가) 되시는 분은 언제라도 '여시아문'으로 연락주십시오.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사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99년 10월 6일
도서출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8881 팩스 : 737-0697

세존도 소원성취기도 및
방생법회 유람선취항



△ 세존도 - 500인승 사랑의 유람선 지향

여지껏 불자의 입으로만 전해오던 불가의 전설적 성지이며 소원성취한다는 석가세존의 신비를 간직한 남해의 최남단 세존도에 마침내 500인승급 **대형 크루져 유람선**이 취항함으로 불가의 전설적인 세존도에서 소원성취 기도 및 방생법회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해는 신라고대사찰인 금산 보리암, 용문사, 화방사**가 있는 불교의 산교육장으로 고대사찰 삼사순례와 세존도 소원성취 방생기도법회는 부처님의 대자대비 하심과 불자여러분의 불심을 한층더 새로이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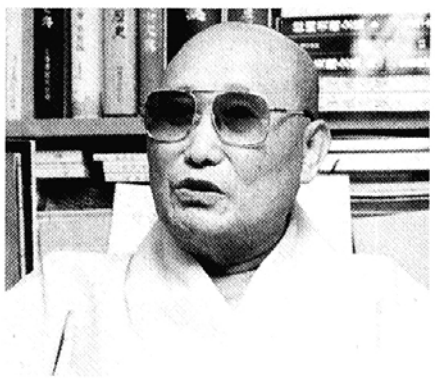
■ 소요시간 : 왕복 3시간,
(매주 일, 월요일 10시 정기운항 및 수시운항)
■ 전 화 : 0594) 862, 863-0947

남 해 해 상 관 광 레 져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해수욕장

"마음 속과 밖을 하나로"

숭산스님의 가르침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 미첼 엮음/최윤정 옮김/여시아문 펴냄



숭산스님의 법문·편지글 제자들과 선문답 등 모아

한 사람이 담배를 피워 문 채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의 얼굴에 연기를 내 뿜기도 하고 손에 담뱃재를 털기도 한다. 당신이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망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마음 맑히는 책들 3' 〈부처님께 재를 털면〉은 그릇된 견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우주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임을 알도록 도와준다.

66년 일본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120여개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숭산스님이 외국인 제자들과 주고받은 선에 관한 대화, 독참, 법문과 편지글을 모아 엮은 이 책은 '선(禪)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곧장 들어가는 책이다.

하루는 시카고에서 온 학생이 숭산스님을 찾아와 "선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주장자를 치켜들고 "이해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학생이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그 모르는 마음이 바로 네 자신이다. 선이란 바로 그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라며 자세한 가르침을 준다.

이 책은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 온 숭산스님의 선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숭산스님이 외국인 제자들과 주고받은 선에 관한 편지글(1973~1975)과 제자들이 자유롭게 던진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식적 친근함과 현장감이 읽는이에게도 전해져, 마치 독자 스스로가 숭산스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번뜩이는 선의 불꽃을 포착하게 된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선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은 오늘의 한국인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맛이다.

수행의 정도가 제각각 다른 여러 제자들의 질문에 알맞게 답을 주는 숭산스님의 가르침은 대기설법과도 통한다. 독자들에게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자신의 공부 길을 점검해 볼 계기가 될 것이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고 마음에 드는 제목부터 골라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만일 진리를 알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모든 견해를 몽땅 놓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생각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생각 이전'의 깨끗한 마음에는 안과 밖이 따로 없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여여한 경지'가 진리인 것이다. 고려원의 부도로 절판된 이책은 독자들의 요청으로 10년만에 여시아문에서 다시 펴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경전·고서에 담긴 지혜의 말씀 묶었다

구미래씨 '수행의 강을…' 등 두권 펴내





수행·지혜·사랑·행복·죽음이라는 삶의 다섯가지 주제를 경전과 고서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엮은 두 권의 신간이 동시에 출간됐다.

우리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구미래씨가 오색시리즈 두 번째 권으로 펴낸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와 세 번째권 〈수행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한세 刊)가 바로 그것.

〈사랑의 꽃을…〉은 빨간색으로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 '계산없는 사랑' 등 자비와 사랑에 관한 57가지 이야기들을, 〈수행의 강을…〉은 파란책으로 마음닦는 공부에 관한 57가지 이야기들을 각각 모아 엮은 것이다. 이 두권에 실린 이야기들은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일본 등 동양 각국의 경전과 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 두 권에 실린 이야기의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 함축한 변상도(變相圖)를 적절히 수록,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와 읽을 재미를 더하게 한다. 변상도는 주로 고려·조선시대 목판경전을 토대로 했다. 값 각권 4천5백원.

간추린 불교

대안스님 '알기쉬운 불교강좌'



불교교양대학 학인들이 불교교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 금화사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스님이 엮은 〈알기쉬운 불교강좌〉(보광 刊)는 교리와 신행등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의 요지만을 간추려 싣고 있다. 이 책은 사찰의 구조와 예절에서부터 부처님 일대기, 불보살, 불교의 사상, 경전결집, 불교의 역사, 불교미술·건축·음악·무용, 재가불자의 식, 참선 등 모두 21장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또다른 특징은 심도있는 교리공부를 위한 각주 및 참고문헌 수록, 신행과 교리 동시 수록, 친근함을 위한 구어체문장 등이다. 대안스님은 "생활불교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은 이책의 내용정도는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값 1만5천원.

현진스님 '수능엄경정맥소' 번역출간



중국 명나라 때 교광 진감스님(1586~1596)이 12년에 걸쳐 저술한 대작 〈대불정수능엄경정맥소〉를 저본으로 한 〈수능엄경정맥소〉(법공양 刊)가 번역 출간됐다.

〈능엄경〉 독송을 수행으로 삼아온 현진스님(직지사 승가대학 강주)이 은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정맥소를 연구하여 번역한 것. 이 책은 〈정맥소〉 40권중 7권~13권(능엄경 1~2권)의 내용이다. 〈정맥소〉의 구조는 1권에서 6권까지는 〈능엄경〉에 대한 전체의 개요를 설명한 부분이고 7권부터는 경문해석이 시작된다.

신간 〈수능엄경정맥소〉는 〈능엄경〉으로는 서분과 정종분 중에서 견도분에 해당한다. 전체 견도분의 내용 중 절반 가량이 포함되어 있고, 회통사과(會通四科·오음, 육입, 십이처, 십팔계)에서도 오온까지만 설명하고 있다. 값 2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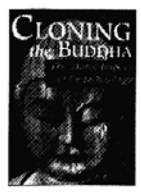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풍경	원 성	이 레
2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시화	나무심는사람
3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4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	최인호	여 백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6	여든살의 연꽃 한송이	이남덕	불 광
7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효 림
8	거지성자	전재성	선 재
9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우사
10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구입문의:(02)737-6695

해외신간



▲복제된 부처님= 97년부터 과학자·생태학자·윤리학자 간의 뜨거운 찬반론을 일으킨 '생명 복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영국의 저명한 불교학자 리차드 하인버그가 최근 〈복제된 부처님(Cloning the Buddha : The Moral Impact of Biotechnology)〉을 발간, 이에 대해 해답을 찾고 있다.

이 책은 상가라시타, 달라이 라마 등 영국불교계의 지도자를 비롯 정치·경제·과학계의 인사 20명과의 인터뷰를 각 장마다 소개하고, 복제에 대한 과학적 배경이 없는 독자들이 '생명 복제'를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Quest Publishing 출간 ISBN 0835607720



▲고향으로= 불교와 기독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인간과 사회의 구원에 앞장서는 세상을 그린 〈고향으로(Going Home:Jesus and Buddha As Brothers)〉가 출간됐다.

프랑스 프럼빌리지에서 눈 푸른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틱낱한스님(베트남)은 이 책에서 "각 종교계는 반목과 지나친 포교 전쟁 보다는 이해와 신뢰를 쌓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야 하며, 함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틱낱한 스님은 동·서양의 신앙 형태와 대상을 경시하기 보다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iverhead Books 출간 ISBN 1573221457



▲부처님의 발자취= 아시아 각국의 사찰에 봉안된 부처님의 모습이 한권의 책으로 엮어졌다. 라제스와리 교수(홍콩대·아시아미술)가 발간한 〈부처님 발자취(In the Footsteps of the Buddha:An Iconic Journey from India to China)〉에는 중국, 일본, 홍콩, 미얀마 등지의 대표적인 불상 121구의 사진과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또 각 불상이 조성되면서 지역 사회에 미친 정신·문화적 영향을 추적·분석하고 있어, 아시아권 불교문화사에 관심을 둔 불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Odyssey Publications 출간 ISBN 9622176429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약역 신화엄경론 | 효산스님 역해

화엄경 80권 이해쉽게 보충설명



이통현 장자(635~730)가 최초로 〈화엄경〉 80권을 주석한 〈신화엄경론〉 40권을 효산스님이 〈약석 신화엄경론〉(운주사 刊)으로 역해해 출간했다. 선재동자 선지식의 법문을 요약한 〈약석신화엄경수행차제결의론〉, 십이인연법을 근간으로 삼아 열가지 문을 세워 밝힌 〈해미현지성비십명론〉, 화엄경 80권의 대의를 간략하게 서술한 〈대방광불화엄경중권권대의약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역해자의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이통현 장자의 〈대론과〉과 청량국사의 〈화엄경소〉 등 대가들의 논소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값 2만7천원.

화제의 책

학파로 보는 인도사상 | 김형준 옮김

인도철학 학파별 특징 상세히 소개



〈학파로 보는 인도사상〉(예문서원 刊)은 인도철학 각 학파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인도철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도입부에서는 인도철학의 전반적인 특징을 비롯 각 학파들의 이론을, 이어 각 학파의 소개 부분은 도입부에서 얻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각 학파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인도에서는 베다에 대한 믿음을 기준으로 정통학파(니야야, 바이쉐쉬카, 상키야, 요가, 미맘사, 베단타)와 비정통학파(차르바카, 자이나, 불교)로 구분된다. 김형준씨가 옮긴 이 책에서는 인도철학의 학파를 아홉 개로 나누어 소개한다. 값 1만3천원.

화제의 책

용수의 공사상 연구 | 남수영 옮김

모든 사물을 '空性'으로 보는 까닭



신간 〈용수의 공사상 연구〉(시공사 刊)는 공성(空性)이라는 관념의 이해를 위해 쓰여진 책이다. 동국대 남수영 강사가 옮긴 이 책의 1부는 용수가 베푼 종교적 가르침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간략한 조사이다. 2부는 공성이라는 용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3부는 용수가 사용한 공성의 용법을 인도 종교사상의 다른 표현들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있다. 4부에서는 모든 사물을 공으로 보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일반적인 종교적 관심의 맥락, 즉 제한된 인간 존재를 가장 완전하고 자유로운 실재로 전환시키려는 관심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값 9천원.

마음 맑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부처님께 재를 털면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바,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전하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한국전통산사 가람 배치 영지신앙과 관련깊다"

유네스코한국위 국제심포지엄서 이상해교수 '…한국전통건축' 발표


◇이상해 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는 10월7일~8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서양 건축문화비교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동·서 문화비교' 프로그램의 제1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건축문화의 비교를 통해 동서양 건축문화의 정체성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는등 심도깊은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1주제인 동서양 건축문화의 정체성과 차이점에서 '문화·공간 도식과 한국전통건축'을 발표하는 이상해 교수(성균관대)는 배포된 논문에서 "자연관, 토속신앙, 풍수지리사상, 불교적 세계관, 유교적 자연관과 사고 등의 요소는 한국 전통건축의 기능이나 용도에 적합하도록 다양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동시에 한국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전통건축 특유의 건축 공간도식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사찰이 경치가 아름다운 산 속에 자리잡고 있는 연유를 불교 신앙이 한국 고유 토속신앙의 하나인 영지신앙(靈地信仰)과 결합하여 민간신앙으로 널리 행해진 것과 연관짓는다. 영지신앙이 한국의 전통불교사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초기 한국사찰들은 중국사찰과 마찬가지로 마당을 중심으로 회랑이 둘러싸고 필요한 위치에 건물들이 자리잡는 대칭적이고 기하학적인 배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불국사인데 이 교수는 이러한 배치형식은 한국의 지형조건에 맞는 사원배치로 바뀌면서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구례 화엄사처럼 대칭구조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산지에 조성된 많은 불교사원들은 대웅전 등 본전 건물의 앞마당이 사원의 중심공간을 형성하며 그 앞으로 누각이 조영되어 사찰의 출입과 경관구성을 위한 주요 전각이 되고 마당 좌우에는 요사와 선방이 자리잡게 되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 교수는 "이러한 사원배치와 공간형식은 사찰에 들어선 전각들을 중심으로 불교적 세계관으로 볼 때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 등 삼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통건축에서 드러나는 공간구성은 사찰의 건물배치가 불법을 깨닫도록 처리됐다. 사진은 부석사.

부석사는 대지 전체가 여러 단의 석단(石壇)으로 구축돼 있고 이 석단을 적극적인 구성요소로 활용하여 진입축과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어 한국건축 특유의 공간도식을 보여준다. 봉정사 영산암의 구성기법과 공간처리는 한국전통건축의 특성을 이루는 빼어난 면모를 보인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불교적 공간이 그곳에 전개되는 것이다.

이상해 교수는 "한국전통건축에서 찾을 수 있는 건축공간의 특성이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경지에 속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규명하는 차원을 떠나 그 처리기법은 불법을 깨닫게 하는데 훌륭한 건축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부석사, 봉정사 영산암 등은 한국 사원건축 공간구성의 한 특질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매월당은 儒佛·禪敎 융합회통"

진성규 교수 '김시습 학술강연회'서 주장



"본령은 유학자나 자취로 봐서는 승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매월당은 유·불을 회통한 인물로 설잠(雪岑)이라는 법명을 받은 승려다."

9월의 문화인물 김시습을 기리기 위해 강릉문화원이 9월28일 개최한 매월당 김시습 학술강연회에서 진성규 교수(중앙대)는 "설잠의 운수행각은 21세 삼각산 중흥사를 처음으로 하여 부여 무량사에서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어졌으며 매우 신실한 승려였다"며 "어느 곳을 가든지 불경공부와 참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선을 강조했던 매월당에게 운수행각은 한을 씻으려 전국의 강산을 다닌 것이 아닌 깨침의 한 방편이었다"고 지적했다.

매월당의 화엄관은 선과 원융하여 둘이 아닌 이와 사를 일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의 저작 〈대화엄법계도주〉에서 드러난다. 매월당의 저서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것은 〈묘법연화경별찬〉 1권, 〈십현담요해〉 1권, 〈대화엄법계도주〉 1권, 〈매월당시서유록〉 4권, 〈매월당집〉, 〈조동오위요해〉 등이다. 특히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매월당전집〉에도 수록돼있지 않은 〈조동오위요해〉는 도교에서 파생된 유교의 태극도와 불교의 조동오위가 융화될 수 있음을 설명한 책이다. 매월당이 유불에 회통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묘법연화경별찬〉은 매월당이 교(敎)를 선(禪)으로 해석하여 선교(禪敎)를 회통(會通)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대화엄법계도주〉에서 드러나는 설잠의 화엄관은 선과 원융하여 둘이 아닌 이(理)와 사(事)를 일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저술을 통해 보여지는 설잠의 불교관은 선을 강조하는 선사이면서도 어느 법통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인의 모습이다. 교학적 측면에서도 화엄·법화사상을 선과 융합함으로서 원융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자세는 주목을 요한다.

진 교수는 "매월당은 원효의 화쟁사상, 의천의 교관병수, 지눌의 정혜쌍수 등의 교학정신을 계승하여 함허 득통에 이어 조선 초기불교사상을 이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보르헤스의 작품세계 불교사상이 바탕"

김홍근 교수, 탄생100주년 분석

소설가 보르헤스가 본 불교는 어떤 것이었을까. 서구인으로서 불교의 깊은 맛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을 분석하며 보르헤스의 불교세계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서울대 스페인 중남미연구소가 주최한 보르헤스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김홍근 교수(한국외대)는 "보르헤스는 포용력과 관용의 정신을 가장 인상깊었던 불교의 특징으로 들면서 이것이 장구한 세월을 이어져 내려온 불교 생명력의 이유라고 보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르헤스는 붓다의 가르침의 결론을 인생이란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업과 무아를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보르헤스는 쇼펜하우어와 붓다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둘 다 세계를 하나의 꿈으로 보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은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르헤스는 선불교의 매력을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의 죄와 그 속죄라는 문제보다는 우리 삶의 본바탕이 무엇인가를 직시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본다. 죄의식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헛된 환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르헤스의 작품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의 저층에는 불교적 사고방식이 깊게 깔려 있다"며 "서구인들에게 참신하게 다가왔던 보르헤스의 환상세계가 사실은 불교사상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동서사상 간의 교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지적했다.

학술단신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6일 오후2시 동국대 역암세미나실에서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을 주제로 설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고려시대 대장경의 역사'를, 임기중 교수(동국대)는 '한국 불전 전산화의 범주와 방향'을, 이종철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는 '다언어 불교 용례 사전의 전산화'를 윤용석 실장(고려대장경연구소)은 '고려대장경의 인터넷 검색 및 열람'을, 이용규 교수(동국대)는 '한국불교전서 전산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금석·정승석 교수(동국대),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진월스님(종교연합 한국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두타산성과 삼화사의…'

삼화사(주지 원행)는 동해시와 함께 '두타산성과 삼화사의 민족정신'을 주제로 7일 오후2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남현 교수(관동대)의 사회로 정태혁 교수(동국대)가 '불교의 호국사상과 한국불교'를, 홍사성 주필(불교신문사)이 '삼화사의 역사적 성격과 민족정신'을, 이상수 학예연구사(관동대 박물관)가 '두타산성의 현황과 역사성'을, 이청희 교사(삼척삼일고)가 '복재 민용호의 의병활동과 삼화사'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법산스님(동국대 교수), 현각스님(조계종 종회의원), 차용걸 교수(충북대), 방동인 교수(관동대) 등이 참여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젠마운틴 사원

미국내 일본불교의 현주소 가늠

팔문법·정행등 다양한 정보 열람

젠마운틴 사원은 미국에서 일본불교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사이트. 미국에서 대표적인 선사로 꼽히는 다이도 로리스님이 주석했던 이 사원은 출가승의 수행도량으로, 재가불자들에게는 실천적 수행과 생활선을 배울 수 있는 사찰로 각광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원에서 가르치는 수행법인 팔문법(Eight Gates) 정행(Right Action)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침묵과 깊은 성찰로 요약되는 팔문법은 매일 7~10시간의 좌선, 염불, 공양, 행선, 울력 등 직관적 수행과 육체·감성적 실천이 병행된 젠마운틴 사원 특유의 수행법이다.

정행이란 죄수교화, 환경보호, 에이즈퇴치 등의 실천적 보시행을 일컫는다.

뉴욕주립교도소의 요청에 따라 1984년부터 시작한 죄수교화운동은 교도소에서 죄수들의 선수행을 지도하고 일반 죄수들의 귀의도 돕고 있다. 또 1992년부터는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운동 등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전자앨범에서 제공하는 40여장의 사진은 이같은 활동을 가늠케 한다.

또 젠마운틴 사원은 인도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경전 1백여종에 대한 영역 전자출판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일본의 하나조노대학의 하나야마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비롯 10여종의 경전이 제공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일본의 불교학자들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편집된 것으로 방대한 불교경전 가운데 불교사상의 정수만을 뽑아서 모아 놓은 것이다.

에이즈 예방과 치료, 환자들에 대한 봉사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정보다. 이 사이트에서는 에이즈 감염 환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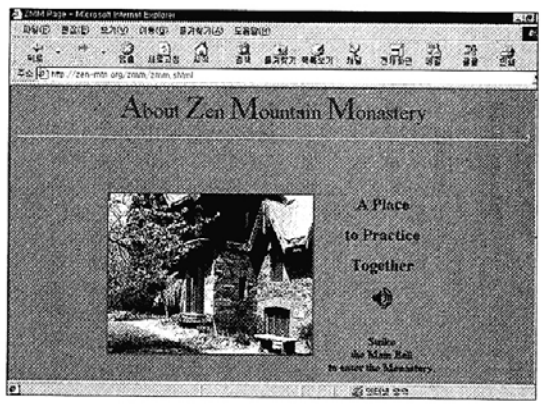
에이즈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도시빈민들에게 젠마운틴 사원의 헌신적인 노력은 바로 진정한 신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생활의 도〉 〈선의 팔문(八門)〉 〈살아있는 것의 불성〉 등 로리스님의 선서와 '원과 바위' '무명석(無明石)' '바위와 물' 등 선화 8점도 열람할 수 있다. 또 골리어와 범어 그리고 영어로 색인된 139종의 경전과 산스크리트어 경전의 전산화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가운데 가장 이색적인 것은 단연 불교음반 편도 승차권. 리얼오디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 음반은 그동안 불교를 주제로 한 곡들을 발표해온 대중음악 그룹인 다이까조(리더 짐 진먼)의 최근 앨범. 디지털 음악파일로 제공되고 있어 불자 네티즌이 언제라도 로딩(가져오기)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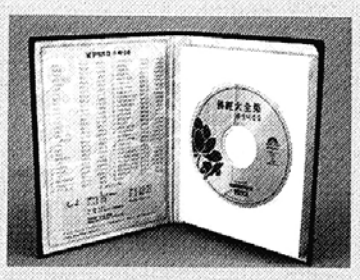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http://zen-mtn.org/zmm/zmm.shtml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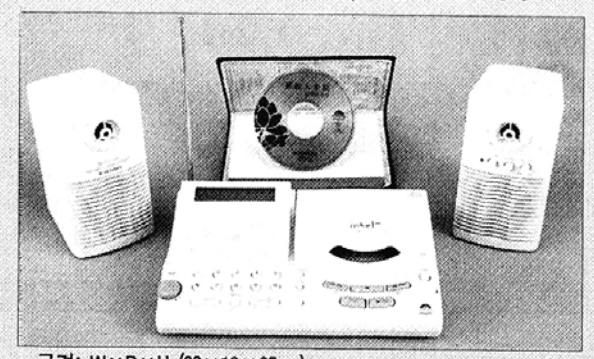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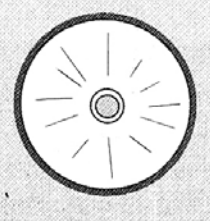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CD 한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스님들의 포교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높은 법력이 담긴 좋은 법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CD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간: 1999. 8. 16 ~ 8. 21
(기간안에 주문한 분에 한함)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회숙)

■보급처 : 법운 총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범부도 정토에 날수 있다

경전 속의 禪 사상 36

관무량수경 (下)

중생이 부처되는 수행법 16관 제시

信·行 어우러져 행복 찾는길 전개

글쓴이



강동균

〈동아대 철학과 교수〉

불교의 실천을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信)의 입장과 행(行)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본다. 양자는 대조적이지만 상호연관적(相互聯關的)인 관계에 있으며, 모두가 다 깨달음의 실현을 위한 불교의 실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관경(觀經)〉에서 말하고 있는 실천도로서의 십육관(十六觀)을 살피도록 하자. 〈관경〉의 십육관은 인도 불교에 있어서 행(行)의 실천 수행법을 기틀로 삼았으며, 그것이 신(信)으로서 정토교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 관법은 관불(觀佛)의 실천수행을 통해서 정토왕생을 성취한다는 입장에서 견불(見佛)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처와 중생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들어내고 있다. 견불(見佛)은 신불(信佛)이며 신불은 견불이다. 〈관경〉에서는 일관되게 견불(見佛) 견토(見土)가 설해져 있으며, 견불은 아미타불에 의한 견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관경〉은 바로 '행'과 '신'이 어우러진 대승불교적 전개인 것이다.

〈관경〉의 관법은 십육관(十六觀)이다. 일상관(日想觀)으로부터 잡상관(雜想觀)에 이르는 십삼 종의 관법을 선도(善導)는 정선관(定善觀)이라고 보았으며, 다음의 상중하(上中下)의 삼배관(三輩觀)을 산선관(散善觀)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관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결론은 바로 이 산선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도가 〈관경〉을 통해서 내세우고자 한 사상은, 범부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구제하시고자 하는 중생은, 언제나 미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며, 결코 성자(聖者)가 될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다. 아미타불의 이루고자 한 것-본원(本願)-은 어디까지나 미혹할 수밖에 달리 길이 없는 무력한 범부에 대하여 세워진 것이며, 또한 극락 정토도 미혹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려진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미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진실한 세계-보토(報土)인 것이다.

중국에서도 정영사 혜원이나 가상사 길장 등의 여러 사람들은 극락정토를 방편의 세계로 보고 화신(化身)이 머무는 화토(化土)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담란대사나 도작선사, 선도대사, 그리고 신라의 원효대사 등은 모두가 극락정토를 보신(報身)이 머물러 계신 보토(報土)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극락왕생이 가능하며,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진실보토(眞實報土)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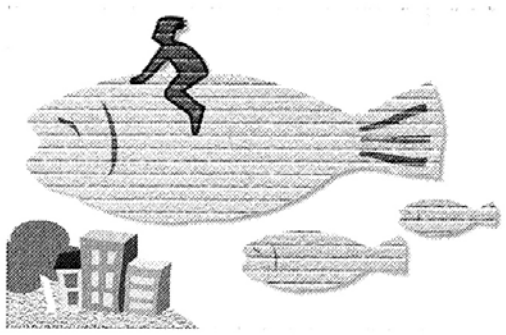
인류의 역사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에 있는 행복이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 되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불평불만이며, 채워질 수 없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시샘하고, 저 멀리 행복이 있을 것으로 알고 미래에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없이 몸부림쳐 보지만, 행복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식이나 후배들에게, 내가 못다 이룬 행복을 꼭 성취하여라 하고 의탁하고서 끝난다. 이렇게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행복추구를 거듭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한다.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행복이라고 하지만, 나 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더 불행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소 불평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달래며 납득시키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행복을 자처하더라도 달래고 납득시키는 한,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도, 용수도, 세친도, 담란도, 도작도, 원효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진실한 행복을 찾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끝내는 찾았던 것이다. 〈관무량수경〉은 그런 행복을 중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설해진 경전인 것이다.

과학산책

통일장 이론

표면상 다른 것처럼 보여도 근원적으로 평등과 통합



우리 불자는 계속해서 분별심을 쉬는 생활수행을 하고 있다. 분별심은 차이만을 보고 같은 점을 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분명 인간과 다른 생물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관점인 불성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보다는 같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같음에 근거하여 표면적인 차이는 기능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높게 볼 것도 낮게 볼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별심을 쉰다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기능상의 차이를 애써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통합된 관점에 근거하여 사물 혹은 관계를 파악하여 자연스럽게 평등심을 키우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들이 더욱 근원적인 관점에서는 통합된다는 진리는 현대 물리학의 성공적인 발전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간략하게 대통일 이론에 이르는 통일장 이론의 역사를 살펴본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모든 자연현상을 간단한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 해왔다.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양, 태극이론으로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설명했다. 서양에서는 뉴톤에 의해 우주의 별들 상호간에 작용하는 인력과 지상에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만유인력에 의해 천상과 지상이라는 두 세상에 작용하는 인력이 통합되었다. 또한 맥스웰은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자신의 전자기 이론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은 장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후 헤르쯔에 의해 전파의 존재가 실험으로 증명되었으며 맥스웰의 이론에서 예견된 것 처럼 전파와 빛은 단지 주파수가 다른 같은 전자기파라는 것이 밝혀졌다.

20세기 들어 물리학은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발전을 계속하여 양자장이론을 낳았다. 이 양자장이론은 상대성이론이 적용된 양자이론으로 기본입자 물리에 현대적 틀을 만들었으며 서양과학 역사에서 가장 심오하고 성공적인 이론이 되었다. 파이만은 1949년에 처음으로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하였고 이 공로로 동료와 함께 1965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이 이론은 양자전기역학(quantum electrodynamics)이라고 불리는데 약력이나 핵력 및 중력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빛 알갱이인 광자와 전자와의 상호작용을 잘 설명해 준다. 이 이론은 본질적으로 전자 상호간의 힘을 광자의 교환으로 설명하는 전자기력의 양자장 이론인데 놀랄만큼 정확하고 이해가 잘 되는 이론이다. 좀더 보편화해서 말하면 전기를 띠고 있는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 입자에 의해 방출되고 다른 입자에 의해 흡수되는 가상광자(virtual photon)의 교환으로 본다. 광자가 가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험실에서 직접 관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자장 이론에서는 모든 힘들은 입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본다.

1960년대 후반에 그라쇼, 사렘, 와인버그 등은 전자기력과 약력을 통합하는 이론인 약한 전자기이론(Electroweak theory)을 제안하였으며 그 공로로 1979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4년 후인 1983년 이 이론이 예견한 W와 Z 보존이 유럽의 입자가속기 실험소에서 발견되었다.

이 입자의 발견으로 인해 표준모델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모든 힘들을 통합하는 이 표준모델은 약한 전자기력과 강한 상호작용을 하나로 묶는 대통일이론을 증명하기에는 아직 실험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가장 타당성 있는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이 표준모델에 근거하여 단지 6개의 쿼크와 6개의 렙톤(경입자)으로, 관찰되어지는 모든 물질 형태를 설명할 수 있으며 4개의 힘을 전달하는 입자만으로, 관찰되어지는 모든 힘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조원희 본사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상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17

말(馬)의 웃음 ②

있는 그대로 보라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
조건에 끄달리지 않을때 평화 얻어

참고 견뎌내는 공부,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장애와 망집, 들뜬 마음 따위를 견뎌내고 그리고 밖으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일단 깨닫기만 하는 날이면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재미있는 최신식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도 만일 깨달을 수가 없다면 틀림없이 그 때는 크게 실망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미안하게도 부처님의 지혜는 교만과는 매우 거리가 먼 지혜이다. 오히려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려면 엄청난 참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의 지혜는 유별나거나 매혹적인 것이 아니다. 그 지혜는 핵 물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또는 철학자가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이다. 붓다의 지혜는 대단히 겸허한 것인 바, 모든 생기하는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며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이나 정신에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조건지워진 것임을 알며 이 조건 역시 생기한 것이기에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쯤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금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이라 말했는데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을 안다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일일까? 우리들은 응당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른다. "나는 절대자인 신이랄까 법이랄까, 얼마나 기막히게 재미나는 일인가. 그것이야말로 온통 축복이요 황홀한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하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경험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런 경지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이 주는 재미는 마치 이 방 안의 공간과 같은 것이다. 거기엔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기에 공간을 깨달으려면 방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붙들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조건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왔다가 갈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만두어도 사라져 간다. 따라서 구태여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물을 제 갈 데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있게끔 충분히 자유롭고 참을성 있고 버틸 힘이 강해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투쟁과 갈등으로부터 무지한 마음이 벌이는 끝없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못 견딜 것 같던 일도 참을성으로 대하면 견딜만하게 된다. 남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참고 견딜 수 있게 된다. 그것에서 굳이 잘못된 면만 찾아내려 들고,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고야 말 것인데 하고 고집부리지 않게 된다. 이 세상은 제 나름으로 갈 길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럴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세상을 참고 수용하는 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거나 좋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내 말은 자신의 혼란을 실체로 인정해주어 그렇지 않아도 혼란투성이인 이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뜻, 불평하고 저항하여 마찰과 혼란을 빚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그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오종욱기자〉

이제 자연식품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약사보살님의 원력으로 모든 중생이 건강한 정토를 기원하며.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인체를 흐르는 기가 조화를 잘 이룰 때를 말합니다. 기의 조화가 깨지거나, 기가 부족해지면 병에 걸리는 것은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공해와 경쟁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질병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에서는 무공해 자연재료를 가지고 선조들로 부터 전래된 비법으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의 무공해 자연식품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본사생산제품 : 불로화정, 원기대보탕, 익수영진고, 보혈청신탕, 치신왕기환, 신비환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참 다슬기 엑기스

무공해 청정지역인 지리산 뱀사골, 백무동에서 채취한 자연산 참다슬기(민물고동)를 달여서 만든 엑기스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으로 소화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다.

◇내용량 : 1000ml(2개월분)
◇가 격 : 50만원

참 다슬기 환(丸)



소화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가가 탁월한 지리산 참다슬기(민물고동)를 환(알약)으로 제작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다.

◇내용량 : 500g(2개월분)
◇가 격 : 30만원

유황오리 죽염간장



서목태유황오리죽염간장 사리장은 서목태콩을 우리밀 누룩과 전래의 기술로 띄워서 유황오리와 밭마늘, 홍화씨를 달인물을 죽염과 숙성, 발효시킨 무공해 간장입니다.

◇내용량 : 360ml(2개월분)
◇가 격 : 50만원

혼합솔순식초



햇솔순과 솔잎을 벌꿀, 벌집 등과 함께 오랫동안 발효 숙성시켜 부드러운 맛과 함께 체내에 흡수되기 쉽도록 만든 고기능성 솔순식초 건강음료입니다.

◇내용량 : 1000ml(2개월분)
◇가 격 : 30만원

무우엿 청



무공해 무우, 찹쌀, 생강, 마늘 등을 가마솥에 장작불을 피워 옛 선조들의 가르침대로 정성껏 고아 만든 최상의 상품입니다. 무우엿 청은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내용량 : 500ml(2개월분)
◇가 격 : 20만원

무우엿 환(丸)



옛부터 매일마다 무우 한조각을 먹으면 산삼을 먹는 것보다 좋다고 하였습니다. 무우엿 청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내용량 : 250g(2개월분)
◇가 격 : 20만원

솔효소정액

솔잎, 솔순, 솔씨방 등 지리산 조선 소나무 12가지 원료에 당귀, 감초, 표고버섯 등을 배합 발효시킨 효소정액으로 고단위 영양소가 함유되어 자연 치유의 힘을 길러준다. 기적의 솔종합영양 강장식품으로 질병예방은 물론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내용량 : 2800ml(2개월분)
◇가 격 : 70만원
(회원 50만원)

솔선식

곡식종류는 전혀 첨가하지 않고 솔효소정액과 같이 소나무의 12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작은 알갱이로 만들었다. 밥을 먹지않고 3개월만 복용하여 비만체형이 바뀌고 당뇨를 포함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내용량 : 환약(2개월분)
◇가 격 : 70만원
(회원 50만원)

한방식초

검은 쌀밥에 농주를 붓고 상황버섯, 검정깨, 누릅껍질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하고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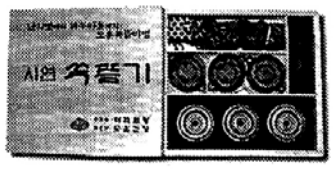
◇내용량 : 1800ml (2개월분)
◇가 격 : 50만원

신개발품

시연쑥뜸기

난치병치료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아 왔습니다.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모두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요통, 신경통, 당뇨병, 위장병 등 각종 질병을 치유

◆가격 : 20만원(1 Set) -압축쑥 1개월분, 쑥뜸기 일체, 안내책자 포함.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金葉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산문밖의 禪 시조시인 정완영 翁

약력 · 1919년 경북 금릉 生. 호 백수(白水) · 1946년 동인지 오동 발간 · 1960년 국제신보 신춘문예 〈해바라기〉 당선 · 196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조국〉당선 · 1969년 시조시인협회 부회장 · 1976년 문인협회 이사 · 1979년 문인협회 시조분과회장 · 1992년 시조시인협회 회장 등 역임
· 저서 〈시조창작법〉 〈고시조감상〉 〈시조신책〉 〈採春語〉 〈墨痕圖〉 〈失日의 銘〉 〈山이 나를 따라와서〉 〈꽃가지를 흔들듯이〉 〈백수시선〉 〈潮과 바람〉 〈湖보다 푸른 물〉 〈오동잎 그늘에 서서〉 등

"등불 밝히는 심정으로 詩作"

"사람이 외로우면 정을 지어 원(願)을 두고, 하늘이 외로우면 솔씨 심어 솔 가꾼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한동안 묵언삼매에 들었던 백수(白水) 정완영(81)옹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학처럼 고고하면서도 기품이 있다.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 자체가 운율을 지닌 시조 그 자체다.

이 땅의 정신과 정서와 삶의 가락이 만들어 온 시조 짓기에 평생 전념하고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조시인 정완영 옹은 "사람은 늙었지만 시(詩)는 어립니다. 오늘도 3장6구 속에서 헤메고 있을 뿐 아직까지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라는 말로 60년 시작(詩作)활동을 간추린다.

시조는 그 본태가 우리 역사의 근간이며 한국문학의 종가이다. 민족정서의 총화이기 때문에 그 속내를 한 사람의 한 생애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미로. 아니 천지의 말씀을 다 내려앉혀도 오히려 그 그릇이 차지 않는 명기(名器)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한 것일까.

고향 자연 그리고 사찰을 주로 시조에 담아온 정옹은 시조를 사랑하고 시를 즐겨읽는 사람들은 민족을 사랑하고 불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시(詩)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말씀(言)과 절(寺)입니다. '말씀의 도량'으로 시는 곧 부처님 말씀이란 뜻이지요. 〈법구경〉을 비롯 모든 경전들이 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경에는 시와 불교가 하나가 됩니다. 세계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가 가장 높은 시적 경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이상적인 만다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불교자체는 시의 덩어리이며 매장량이 무궁무진합니다. 시의 정신이 불교인 것처럼 부처님의 옷자락은 넓습니다."

인간의 드높은 정신세계를 관조하고 자연과 정서가 혼연이 되고 승화되어 나온 시를 읽다보면 자절로 부처님 가르침이 훈습되듯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정완영 옹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고향인 사찰마다 시비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

"절 입구에 백가지 풀이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백초시불모(百草是佛母)'를 새겨 놓으면 누가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겠습니까. 자연히 엄숙하게 되지요. 이것이 불교이지 법문만 듣는 것이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적인 내용의 시 한수가 한 인간의 생애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고 만인을 교화시키며 또 그 자체가 화두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시조를 하다보니 시의 매장량이 많은 불교에 귀의하게 됐고, 그속에서 시정신이 불교정신이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불교정신은 경전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대로 실천수행하는 사람이 수화이고, 잘 우려낼 줄 아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시인은 진인(眞人·참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왜일까. 시는 부드러움, 여유, 타이름, 치유라는 근본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과 시정신이 사라지면 세상은 복잡한 아수라의 세계가 될 수 밖에 없다. 시를 많이 읽고 시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이고 그런곳은 곧 정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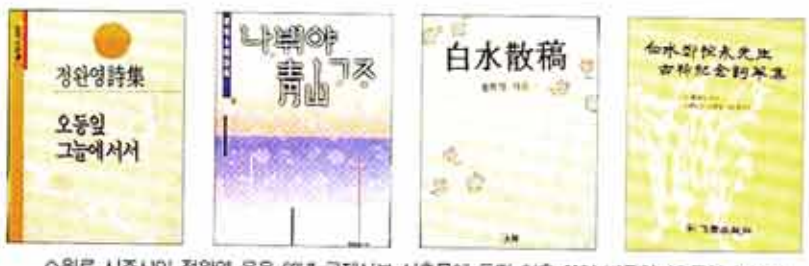
"인간살이는 문명이 발달할 수록 여유가 없어지게 되지요. 옛날에는 한끼 양식만 있어도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10년 먹을 양식이 있어도 여유가 없습니다. 시정신이 생활에서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또 시는 거칠어지고 굳어지는 것을 부드럽게 순화하고, 생활에 여유를 주며, 정신에 든 병을 말끔히 치유해 줍니다." 이처럼 그는 시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문학장르로 꼽는다.

"말로만 쓰는 것이 시가 아닙니다. 말과 말의 행간에 침묵을 더 많이 심어두는 것이 시조입니다." 정형시 시조는 불과 45자 안팎이다. 하지만 그 행간에 숨어있는 수는 무궁무진하고 변화무쌍하다.

이러한 수를 함축해 내기 위해서는 온갖 탐욕과 망상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마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번뇌를 없애고 또 없애는 수행자처럼, 시인도 각고의 수행을 통해 함축적인 시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탄생한 한권의 시는 읽는이에 따라 각자의 화두가 될수 있다. 정토를 일구는 감로법문도 되는 것이다.

'詩=言+寺' …시는 부처님 말씀
"시정신 사라지면 아수라세계"

"시의 행간 읽다보면 망상 털어내"
"순리대로 자유롭고 겸허하게…"



◇윗줄로 시조시인 정완영 옹은 60년 국제신보 신춘문예 등단 이후 600여 년동안 〈오동잎 그늘에 서서〉 〈나뭐야 靑山 가즈〉 〈백수산고〉 〈고희기념시화집〉 등 100여권의 시집과 산문집을 냈다.

산이 나를 따라와서

桐華속 갔다 오는 길에
山이 나를 따라와서

도랑물만한 피로를
이끌고 들어선 茶집

따끈히 끓여 주는 茶가
丹楓만을 곱고 맑다

산이 좋아 눈을 감으신
부처님 그 無量感

머리에 서리를 떠며
귀로 외는 楓岳 소리여

어스름 앉는 黃昏도
허전한 정 풀아라

친구여, 우리 손 들어
작별하는 이 하루도

天地가 짓는 일들의
물일만한 몸짓 아닌가

다음 날 雪晴의 銀嶺을
다시 뵈려 또 옴세나

"내적인 수행과정을 거치면 선사들처럼 오묘한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지요. 이때가 되면 시적 감흥은 손자가 할아버지 품에 사랑스럽게 안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순간 문자를 매개체로 종이에 옮겨 놓는 것이 시인이지요."

옛 선사들의 오도송을 읽고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그런 오도송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각자(覺者)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을 통해 시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시인은 끊임없이 내적인 수행과 정화를 통해 우주의 진리를 자유자재로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완영 옹의 아호는 백수(白水). 글자의 뜻대로 하면 '흰 물'이다. '검은 물'이 오염되었거나 혼탁한 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흰물'은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물, 아니 세속의 때를 씻어내는 물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백수 정완영 옹은 '흰 물'처럼 맑고 조용하고 정갈하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정갈함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52년 동안 매일 일기형식의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그의 심적 정화작업으로 인해 태동한 시어들은 혼탁한 겨레의 가슴을 맑히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른 시인의 시는 소리로 화하여 꽃이 되고, 꽃이 그대로 세상이 되고, 그것이 온통 삶임을 깨닫는 조화로움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는 속세인에게는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지만 뭇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처럼 환하게 다가 오는 것이다. 마치 확철대오한 선사들의 오도송처럼.

"시를 쓰던 날들은 나름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마다에 등불 하나씩 달아 준다는 심정으로 향 사루고 정좌하고 지성을 다했습니다"라는 그는 1960년 국제신보 신춘문에 〈해바라기〉로 등단, 〈산이 날 따라와서〉 〈潮과 바람〉 등 1천여편의 시조를 썼다. 한국 현대 시조문학에서 그의 위치는 우뚝하다.

그의 시는 고향에 대한 동경과 지극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향한다. 인간의 고향이 속세의 현상학적인 것들과는 멀리 있는 것이어서 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문답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버려진 인간성을 다시 찾고자 흐트러진 심중에 늘 불심을 다지며 시상에 빠져 있다. 그의 이러한 휴머니즘은 자연의 목소리이며 곧 부처님의 목소리이다.

"문지방에 드리운 산그림자 아무리 풀아도 안나가고, 마당에 드리운 달그림자 아무리 비로 쓸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저 순리대로 겸허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가을을 맞아 조계사 근린 수송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원로시인 백수 정완영 옹의 심경이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봉대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조각은 원각사지 10층석탑을 차용하여 철과 FRP를 재료로 만들어진 탑. 서울 종각사거리 종로타워옆에 최근 세워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밤거리 밝히는 종로타워옆 대형탑

서울 종로 종각사거리에 신축된 하이테크놀로지 건물 종로타워(구 화신백화점터) 옆에 대형탑이 세워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각가 최정화씨가 "세기의 선물"이란 주제로 조성한 이 탑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탑인 경천사지 10층석탑(국보 86호)과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 2호)을 혼합한 형태. 합성수지와 철을 재료로 조성됐으며 13.5m의 황금빛 탑은 밤마다 조명을 받아 화려한 서울거리를 더욱 환하게 하며 도시민들의 정신적 위안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정화씨는 "석탑의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전통을 보여주기 위해 건립했다"고 조성배경을 설명했다.

고영배 기자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광고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형상화 "순금카드"위에 세계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0242663호) 했다. 천만불짜리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배현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세계 비날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3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세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토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현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팩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⑪

但諦觀殺盜狀妄 從性而起 起卽無起
단체관살도음망 종성이기 기즉무기

다만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자세히 관조한다면 일어남이 곧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當處便寂 何須更斷 所以云
당처변적 하수갱단 소이운
不怕念起 唯恐覺遲
불파염기 유공각지
又云念起卽覺 覺之卽無 故悟人分上
우운염기즉각 각지즉무 고오인분상
雖有客塵煩惱 俱成閑酒胡但照惑無本
수유객진번뇌 구성제호 단조혹무본
空華三界 如風卷煙
공화삼계 여풍권연
幻化六塵 如湯消氷
환화육진 여탕소빙
若能如是念念修習 不忘照顧
약능여시염념수습 불망조고
定慧等持 則愛惡自然淡薄
정혜등지 즉애오자연담박
悲智自然增明 畢業

당처가 적멸이니 모름지기 다시 끊을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 하였고 또 '생각이 일어나거든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곧 없어진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관 세계에 대한 번뇌가 있다 해도 그것은 다 제호(醍醐:우유를 정제하여 만든 맛있는 음식. 여기서는 부처의 성품에 비유했음)를 이룬다. 다만 미혹이란 근본이 없는 것임을 관조하여 알면 허공의 꽃처럼 실체가 없는 삼계(三界)는 바탕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고, 허수아비와 같은 객관 세계는 마치 끓는 물에 녹는 얼음과 같을 것이다. 만일 이처럼 생각생각에 닦고 익히며, 마음을 관조하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없어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밝게 드러날 것이다. 죄업이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이 절로 늘어나서 번뇌가 다할 때에는 생사도 끊어질 것이다. 만약 미세한 한 번뇌의 흐름도 영원히 끊어져서 원만히 깨달은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천 백억 화신을 나타내되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감응하게 되니, 그것은 마치 하늘에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응용이 무궁하여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고, 즐거움만 있고 근심이 없으리니, 이를 일러 크게 깨친 세존이라 한다."

問後修門中 定慧等持之義 實未明了
문후수문중 정혜등지지의 실미명료
更爲宣說 委示開迷 引入解脫之門

경위선설 위시개미 인입해탈지문

물었다."깨친 뒤에 닦아나가는 문중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동등히 가진다는 뜻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하시어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게 해 주십시오."

答若說法義 入理千門 莫非定慧
답약설법의 입리천문 막비정혜
取其綱要則但自性上 體用二義
취기강요즉단자성상 체용이의
前所謂空寂靈知是也
전소위공적영지시야
定是體慧是用也
정시체혜시용야

답하다."만약 법과 그 뜻을 말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은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그 요강을 든다면, 단지 자기 성품의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뜻이니, 앞에서 말한 비고 고요함과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그것이다. 선정은 곧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 말고
깨달음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

큰스님 수행한담

"계를 지키지 않으면

석산스님〈성북동 정법사 회주〉



약력
- 1919년 출생
- 37년 건봉사서 사미계 수지
- 56년 범어사서 비구계 수지
- 77년~91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역임
- 성북동 정법사 주지 역임
- 현 정법사 주석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어느덧 들판의 곡식이 무르익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울어대는 새소리도 한결 정겹게 들리고, 바람도 한결 맑아 지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원래는 북천암이라는 암자가 있던 곳인데 1960년에 정법사를 지어 중창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때만 해도 칠성각 한채만 덜렁 있는 고즈넉한 암자였지요. 그 후 큰 법당을 짓고, 팔상전과 요사채, 산신각, 종각 등의 불사를 하나 하나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저 아래 대원각까지가 모두 산이었고, 깨끗한 냇물이 정법사 앞을 가로질렀지요. 그 길을 매일 걸망을 메고 내려가서 장을 보고, 물소리 바람소리를 벗삼아 올라오곤 했습니다. 길을 걷다 잠시 쉬어 갈 때면 멀리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경관이 수려했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등산객들이 이곳 정릉 등산길을 통해 산에 오르곤 했었는데, 몇십년 사이에 개발되어 정법사 앞까지 차도가 뚫리고, 이렇게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 버려 예전같은 낭만은 사라져버린지 오래입니다.

저는 16살 때 강릉 칠성산 법왕사에서 절밥을 먹으며 1년간 생활했었습니다. 법왕사 노스님 밑에서 〈천수경〉 읽는 법도 배우고, 예불하는 법도 배우고, 또 스님 찬은 어떻게 만드는지,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다 17살 되던해 봄에 함경도 안변 석왕사에 가서 머리를 깍고 본격적인 불교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정때라 그때는 한달에 2원을 가져가야 절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8원을 가져가서 4개월간 〈초발심자경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가을에 건봉사에 와서 박보광스님께 사미계를 받았습니다.

보광스님은 항상 〈법화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화택의 비유가 있지요. 집이 활활 타는데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놀이에 빠져있자 아버지가 양거, 우거, 록거로 그들을 이끌어내 구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것은 중생이 오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오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타라고 하신 부처님 법입니다. 보광스님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며, 오욕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일평생 중노릇 해도 나쁜 과보를 받는다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건봉사는 염불만일회가 유명한 곳입니다. 건봉사의 31인이 염불을 하다가 살아서 극락으로 승천했기 때문이지요. 겨울내내 건봉사 강원에서 낮에는 사집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염불을 배웠습니다. 어장 만일스님이 염불을 가르쳐 주셨는데 염불공부는 따로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장스님이 한 소리를 하면 그것을 잘 익혀두었다가 저녁으로 모여서 잘하는 이를 따라 소리로 배웠습니다.

염불을 처음 배울때에 거불을 먼저하는데 "나아--무 청어엉-정법--신 비이로자아나부울 ."

〈천수경〉을 먼저 하고 거불을 하는데 그냥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를 배운사람은 소리를 세마디로 해서 거불부터 배우고 헌좌송, 공덕게, 질영게, 옹호게, 청(관음착어), 고와게, 다게, 신중작법순으로 공부합니다. 신중작법을 배운뒤에는 짓소리를 하기도 하나 나는 신중작법까지만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를 안참이라고 합니다. 법당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짓소리는 전문가를 두고 더 배워야 하는데 이걸 다 제대로 배우려면 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염불은 한 5년 공부해서 소리를 딱 맞추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보통 20여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염불은 20명 가운데 그 곡조를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장스님에게 1시간 정도 배우고는, 먼저 곡조를 배운 한두사람을 따라서 몇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지요. 그러한 과정을 5년정도에 다 마치는 이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절에가서 다시 염불을 가르치게 됩니다. 다 같이 배워도 다 익히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강원공부를 해서 그 중에 강사가 되는 이가 한두 사람이 될까말까하듯이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봉사에서 염불을 배울 때 내가 남들 보다 좀더 잘 되었고, 그래서 염불을 전공하게 된 거지요.

태고종 스님들은 아직도 염불을 하는 스님이 있지만 조계종에서는 거의 가르치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이들도 없어요.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도 장애가 됩니다. 1년을 죽기로 해봐도 거불하나 마치기 힘들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다들 선(禪)으로만 치우쳐서 지금은 염불당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계종 사찰에는 선방만 있지 염불당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지금은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를 나와야 사람구실을 하지 학교 안나오면 어디가서 대우도 못받으니, 모두 다 학교에 다니려고 하지 어디 염불 배우려 하겠습니까.

염불은 지성으로 하면 공덕이 아주 큽니다. 소리는 스님네가 하는 것이고, 재가신도는 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고 했는데 '나무극락세계아미타불'을 아침 점심 저녁시간을 정해서 각 1시간씩 열심히 하면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염불하는 가운데 부처님 가호가 오고, 신심이 바로서고, 내 길이 밝아지

"살면서 탐진치가 쌓이니
정작 불성은 가려지고
중생으로 빠져들어요"

신개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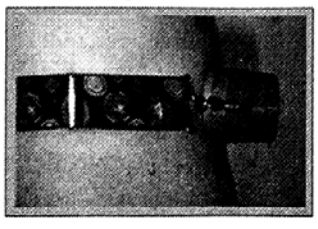
김시연스님

시·연·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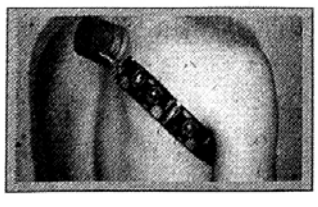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슈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량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삼·부·농·산·은·유·기·재·배·약·초·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황토삼백초 건초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大悟居士(김봉서 원장)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당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 도 좋습니다.

97.11.6 / 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삼부농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큰스님 수행한담

불자일 수 없습니다”



◇은사인 보광스님 환갑때 대중들과 함께 한 석산스님. 맨앞 중앙이 보광스님, 그 오른쪽 옆이 석산스님.

“닦을 것이 없는 걸 알고 닦아야 바로 닦는 것이지 닦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닦으면 바로 닦지 못해요”

“오욕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수행도 헛일”

“자신에게 엄격해야 흐트러지지 않아요”

고 하는 것이 다 공덕이지요.

그곳 건봉사에서 염불을 배우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공부하던 그 시절, 만해스님이 건봉사 조실로 계셨는데 가금 법문도 해주시고, 강원에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만해스님은 법이 워낙 크신분이라 곁에 가 뵙기도 두려웠을 정도였어요. 스님의 말씀을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분의 법에 딸려가기 마련이었습니다.

단해스님은 강사스님들의 법문과는 달리 항상 선 법문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법상에 올라가 먼저 주장자를 세 번 딱 치고는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이곳을 향해 물어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겁이 나서 나서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 꼼짝 않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워낙 크신 분이셨지요.

해방 되기 1년전에 건봉사에서 서울로 나왔는데 은사인 보광스님의 가회동 건봉사포교당에서 사형인 설산스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모두들 들떠 가지고 온 장안에 군인들이 입는 광목천으로 만든 옷이 마구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그 옷을 사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은사인 보광스님은 가회동포교당에서 재가신도를 위한 포교활동을 하셨는데 그 밑에서 원주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6.25전쟁이 터졌고,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쟁동안 경기도 평택 만기사에서 지내다가, 정전이 되자 해인사로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화가 일어나기전이라 대처승들과 같이 있을때였습니다. 그때에도 강원에서 공부를 하려면 쌀이나 돈을 내야 했어요. 피난다니던 가난한 중이 돈이며 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쌀과 돈 대신 건봉사에서 배운 염불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강원공부를 했습니다. 사교과를 거기서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범어사로 갔습니다. 범어사에서 노전생활하며 대교를 공부했습니다. 역시 염불도 가르쳤지요. 36살부터 41살까지 7년간 그곳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염불을 할 때면 동산스님도 그러고, 다들 염불잘한다고 감탄하곤 했지요. 듣는 사람마다 “스님이 염불하면 부처님이 하강한것 같다”면서 말이지요. 허허. 지금은 나이도 많이들고 목이 쉬어서 잘 못하지만 그때는 그랬지요. 아무도 흉내를 못낼 정도로 염불을 잘했으니까 말입니다.

7년간 내가 지켜본 동산스님은 정말 신심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사찰에 가 있어봐도 동산스님만큼 신심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내가 노전을 봤으니,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 도량석 목탁을 쳤는데 스님은 목탁소리가 나자마자 일어나서 세수하고, 도량석하는동안 비로전, 관음전, 지장전, 산신각, 팔상전, 탑전 등 각 당을 일일이 돌아다니시면서 염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웅전에 와서 제일 먼저 턱 앉아계셨습니다.

내가 종을 다 치고나면 대중들이 예불시간에 맞춰서 대웅전에 하나둘씩 모여드는데 동산스님은 추우나 더우나 항상 어김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몸으로 실천으로 법문을 해 주셨던 겁니다.

동산스님의 특징이 바로 그와같은 신심이요, 또 하나가 도량청소입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공양이 끝나면 반드시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청소를 했는데, 조실스님이 도량청소를 하는데 어찌 대중이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70여명 되던 대중들이 부리나케 뛰어나와 빗자루질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산스님이 한갓 마당에 쓸게 있어서 쓴다고 보면 스님의 가르침 제대로 못알아 듣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닦을 것이 없는 걸 알고 닦아야 바로 닦는 것이지, 닦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닦으면 바로 닦지 못한다고 했어요. 본래 부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 탐진치를 자꾸 부려가지고 탐진치에 쌓여 가려서 정작 불성은 가려지고 중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본래 그 당시가 바로 부처인데, 자꾸 자라가면서 탐진치가 쌓여가지고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산스님 법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닦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닦는 것이지, 닦을게 있어서 닦는다 생각하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말입니다. 매일 쓰는 마당에 뭐 딱히 쓸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날마다 빗자루로 쓸거든요. 그저 도량을 청소하는 것으로만 알고,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닦을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닦는 것이 바로 스님의 가르침이요, 부처님 가르침이요, 불법입니다.

범어사에서 지내다 보광스님이 돌아가시자 내가 가회동포교당을 맡게 되었는데 100평정도 되는 가정집을 개조해 사용했던 그곳을 정리하고, 지금 이곳 정법사에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온 이후 재가 있으면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불사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계정혜 삼학을 닦자’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불자도 이를 좌우명으로 삼고 생활해야 합니다. 좌우명을 정해놓고 항상 염심히 닦는 것이 최선의 수행입니다. 염불은 예전처럼 못하지만 틈날때마다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붓글씨는 범어사 있을때 많이 써 보았는데 〈반야심경〉을 주로 씁니다. 한자한자 써나가다보면, 수행자로서의 내 삶을 곧추세우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게 되고, 그 힘은 생활속에서 하루하루 나자신을 지탱시켜주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나는 요즘도 방에서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내 방은 내가 직접 청소합니다. 나이를 먹을 수록 자기자신에 엄격해야 하기때문입니다. 한시라도 흐트러져서는 안됩니다.

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戒)가 바로 중입니다.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모든 업을 닦고, 계율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중입니다. 불자에게도 계율이 있지요. 내 배우자외에는 음행을 하지말라는 한가지만 다르지 둘다 똑같습니다.

계율을 닦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중이지, 법문 잘한다고, 강 잘한다고, 염불 잘한다고 중이 아닙니다. 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결코 부처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한 성 룡 〈대한불교예술원장〉

〈상〉

사업부도로 1년여간의 타락생활

새삶과 재기위해 보궁기도 떠났다

무속인이었던 어머니로 인해 나는 갓난아기 때부터 집보다는 법당을, 아버지보다는 부처님을 더 친근하게 여기며 자랐다. 부처님을 보면 울음을 그치고 절을 했을 정도였다. 숙명처럼 맺어진 불연은 질긴 생명줄처럼 지금까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불교를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 문경 운암사 학생회에 가입하면서 부터다. 불교학생회에 가입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무속인의 아들이었다는 점이다. 유년기를 보내면서 서서히 무속이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당의 아들’이란 명함이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 때 무속인이 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다. 그러나 결코 원망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무속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를 위해 자식된 도리로 무언가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 대한 지식을 습득, 조금이나마 어머니의 힘이 되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부처님을 꼭 껴안기 위해 불교학생회에 가입했던 것이다. 불교학생회에 가입한 후 〈반야심경〉 독경, 절 그리고 불교서적을 손 닫는 대로 탐독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하면 할 수록 환희심이 나기 시작했다. 힘이 절로 난다는 느낌 보다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야릇한 느낌이 더 강했다. 나는 대자대비한 불법의 바다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갔던 것이었다.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대학시험을 보게 되었고, 1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후 나는 운명의 인연처럼 운암사로 들어가 비승비속의 기도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지 해종스님은 남다른 기도의 원력을 세우시고 실천하신 분이라 기도하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스님과 함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기도로 일관했다. 해가 뜨면 법당에서, 해가 지면 골방에서 대학입시공부를 했다.



쉼없는 기도생활은 대학에 합격하면서 종지부를 찍었고, 축산학을 전공하게 된 나는 대불련에 가입했고 4년 여 동안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계림광업소에 취직했다. 그후 어머니의 도움으로 광산을 직접 운영하게 됐다. 광산 운영권을 손에 쥐면서 끈끈했던 불연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됐지만 왠지 마음은 항상 허전했다.

이런 느낌이 점점 깊어질 무렵 잘 운영될 듯한 광산이 갑자기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했다. 난생 처음 겪는 시련이었다. 인부들의 아우성, 여기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퍼붓는 빚독촉은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술에 의지해 고난을 이겨내려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한잔 술이 두잔이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었다. 이같은 악순환은 가속도가 붙어 시간이 갈수록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알콜에 의지해 극복해 보려던 내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술이 전부가 됐다. 심지어는 밤을 새워 술을 마시다 육신의 고통을 참지못해 약국 앞에 쓰러져 잘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타락과 방황의 깊은 수렁에서 헤메고 있던 어느날 해종스님이 나타났다. 스님은 이런 생활은 육신과 정신만 파괴할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보궁기도를 하자고 권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전혀 귀에 안들어 왔다. 오직 빚독촉 아우성만 머리속에 가득했다.

스님은 며칠간 계속해서 뒤쫓아 다니며 다독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며 점점 스러져가는 나의 정신을 꼭 잡아주셨다. 결국 나는 스님의 자비심으로 1년 여간의 타락생활을 접고, 새삶과 재기를 위해 강원 영월 사자산 법흥사를 향해 발길을 옮겼다. 〈계속〉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가을 호

지상강연 /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❹ - 釋강좌
탈마 대사의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불교계진단 10 / 불교계 영상문화의 현주소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취약한 불교 영상문화(만화영화)의 현재를 진단하고 영상포교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

최초완역 /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두번째(卷中)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의 또 하나의 역작, 『중편조동오위』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이창섭 선생이 국내 최초로 번역 소개하는 『중편조동오위』를 통해 일연 스님의 선사상을 새롭게 조명해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10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절의 건축문화체험 ❷ — 불국사, 돌로 만든 부처님 나라

특집 / 불서 번역,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지적되는 漢典의 한글번역에 의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팔리어 원전의 번역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 등 경전 번역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와 근원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21세기 불교의 대표 경전 편찬의 시급성을 환기시킨다.
- 佛典 번역과 우리의 현실
- 불경 번역오류의 예
- 불교계 번역의 문제점과 제도적 과제
- 새천년을 위한 『불경』 프로젝트 시급하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강의와 인터넷 불교대학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재가불교은동편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 탄생 100주년 맞은 대원 장경호 거사의 원력과 회향
- 아기 불자들의 아버지 추용 조인좌 선생

브라이언 베리의 동남아불교문화기행
불교의 디즈니랜드, 태국에서 신심을 되찾는다

불교와 풍속 / 걸림승(乞粒僧)
유랑집단과 불교 풍속의 사회사
21세기 길목에 서서, 민중의 삶 속에서 존재 양태도 각양각색이었던 불교 주변집단인 유랑집단을 새롭게 조명하여 대중불교사의 스러져간 한 축을 복원시키고자 한다.

연재소설 / 『관세음보살본행경』 평역 · 관세음보살 이야기 〈2〉
『산은 산, 물은 물』, 『만행』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가 정찬주 선생이 소설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9. 4 - 1999. 8)
불교 관계 각종 자료(단행본, 논문, 학위논문)를 목록으로 정리

불교계 주요일지(1999. 6 - 1999. 9)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E-mail:kbpf@chollian.net

삼화사(철불 · 석탑)문화재 지정

축하 대법회 및 학술 발표회

귀의 삼보하옵고
두타산 삼화사에서는 근간에 신라시대 문화재 철조노사나불(보물 제1292호)과 3층석탑(보물 제1277호)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삼화사와 동해시에서는 21세기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금넌 지역 향토축제인 제16회 무릉제와 시개청 19주년을 기념하고, 문화재 지정 축하 법회와 학술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최: 동해시 ■주관: 삼화사 시문화원(0394-534-7661~3)

다 음

축하법회
▶일시: 1999년 10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두타산 삼화사 대적광전
▶증명: 오고산 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김현해 큰스님(오대산 월정사 주지)

학술발표회
▶일시: 1999년 10월 7일(목) 오후 2시 ▶장소: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주제: 두타산성과 삼화사의 민족정신

제 1 부
○불교의 호국사상과 한국불교 - - - - - - 정태혁(전동국대교수)
○삼화사의 역사적 성격과 민족정신 - - - - 홍사성(불교신문사 주필)
○두타산성의 현황과 역사성 - - - - - - - - 이상수(관동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복재 민용호의 의병활동과 삼화사 - - - - 이정희(삼척삼일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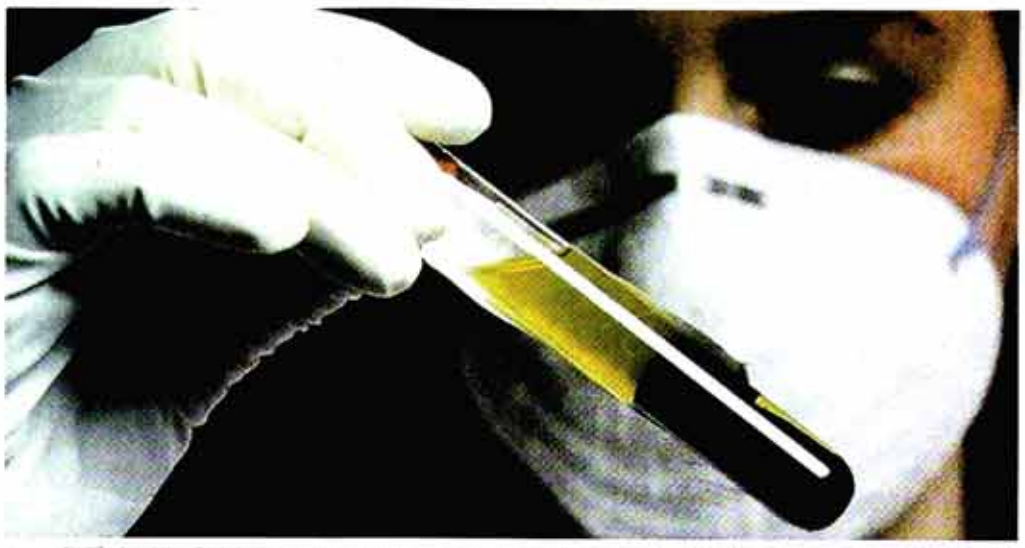
제 2 부
토론 법산스님(동국대교수) · 차용걸(충북대교수)
현각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방동인(관동대 사회과 교수)
김영기(강원일보 논설위원)
사회 김남현(관동대 사회과 교수)

에이즈·암등 病앞에 무력한 인류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9

질병과의 전쟁

질병없이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그동안 인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쉼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의학을 발전시켜오면서 갖가지 질병을 극복해왔다. DNA칩으로 유전병을 진단할 날이 코앞에 다가왔고 소아마비의 완전퇴치도 눈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유전자지도가 그려질 날도 몇 해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의학이 뛰어온 것만큼 질병도 달리고 있다. 사라졌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는가 하면 인간의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물질들이 속속 생겨나 인류의 대재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뿐만 아니다. 농약, 중금속, 세균, 환경호르몬, 항생제, 전자파…, 우리가 먹는 음식과 숨쉬는 대기, 주거시설 등 생활공간 곳곳이 유해물질로 넘쳐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도둑' 맞고 있는 우리의 생명.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 어쩌면 21세기에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지도 모를 인간과 질병과의 전쟁.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복당할 것인가.



◇ '도둑' 맞고 있는 우리의 생명. 21세기 인류의 건강은 빈틈을 여지없이 파고드는 질병과 이를 정복하려는 의학의 대결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환경호르몬·전자파도 위험
결핵·콜레라 재출현 창궐 조짐
"탐진치 삼독심 버려야 질병치유"

20세기 초반까지 감염질환은 인류생존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였다. 페스트, 매독, 나병, 천연두 등 인류는 끊임없는 감염질환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경제발전, 백신·항생제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감염질환은 극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감염질환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갔고 인류는 감염질환을 '정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포도상구균을 치료할 힘을 잃어버린 것은 이미 1953년대의 일이다. 지난 97년에는 드디어 포도상구균을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항생제였던 반코마이신에 대한 내성이 일본에 나타남으로써 의학계를 절망에 빠뜨렸다. 에이즈를 비롯해 레지오넬라병, 라임병, 에볼라출혈열, 한타바이러스 등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종 감염질환은 지금까지 30여개에 이른다. 특히 에이즈는 이미 1천2백만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매일 1만6천여명을 감염시키면서 사상 최초로 세계인구증가율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요인으로까지 등장했다.

지난 3월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는 치명적인 연쇄상구균이 출현 10여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또 지난 4월 말레이지아는 원인모를 괴질에 감염된 돼지 1백만 마리를 도살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60여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전염병 외에 퇴치된 것으로 믿었던 전염병균도 다시 고개를 들며 맹렬한 기세로 세계 곳곳을 휩쓸고 있다. 미국에서는 결핵이 다시 유행하고 구소련지역에는 디프테리아가 다시 출현하는가 하면 남미에서는 1세기만에 콜레라가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사라졌던 말라리아와 공수병 등의 전염병이 새롭게 다시 출현해 창궐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 인류의 3분의 1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 아마도 이런 우려는 혜성충돌을 그린 영화처럼 과장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의학계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독감 하나만으로도 인류는 얼마든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918년 유행했던 독감은 세계적으로 2천만명을 죽였다.

이런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퇴치된 전염병이 재유행하는 것에 대해 학자들은 ▲기상 변화 ▲산업의 발달 ▲국가간의 교류증대 ▲미생물의 적응변화 ▲공중보건위생 결핍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엘리뇨나 라니냐같은 기상이변과 산업발달에 따른 새로운 미생물의 출현등은 현재로서도 속수무책이다.

의료수준의 비약적인 발전과 다양한 백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요인으로 갖가지 전염질병에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전염질병 외에 지구의 오염은 암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먹고 숨쉬고 생활하는 공간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전문가들은 암, 무기력증, 두통, 우울증 등 많은 질병들이 유해한 환경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얼마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파문은 식품오염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환경이 오염되고 농약과 식품첨가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식품오염은 생명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환경호르몬의 위협도 심각하다. 인간의 생식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기형·성장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활용기에 포함돼 있다. 인체의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전자파는 또 어떤가. TV, 컴퓨터, 핸드폰, 의료기기 등 각종 장비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고환암, 알츠하이머병, 유산, 피부질환 등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이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른다. 또 대기오염은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폐암, 기관지천식의 발생원인이 되며, 납과 아연, 비소와 같은 중금속의 오염으로 인한 질병도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

불교에서는 '생노병사'를 인간의 네가지 괴로움으로 본다. 그리고 현실에서 삶을 이어가는 생생한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바로 직시하라고 가르친다. 이중 질병에 대해서는 탐욕과 우치(愚痴)와 교만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그 병인(病因)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를 살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자신감을 지니라고 말한다.

또 불교에는 합장·배례로부터 시작해 독경이나 염불로 이어지는 아침의 근행(勤行), 발우공양, 좌선 등 현대인에게도 필요한 건강법이 많다. 한마디로 불교는 마음(心)과 몸(身)을 위한 종교인 것이다. 즉 중생 모두가 건강하고,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넓게 열려진 길이다.

질병을 정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21세기 준비는 2천5백년전부터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부여해온 불교의 총체이자, 의학과 심리학, 생태학, 물리학과 같은 폭넓은 분야의 지혜를 결집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질병별 사망률 (97년 통계청)

질 병	%
순환기계 질환(고혈압, 심장, 뇌혈관성 질환)	23.4
각종 암 및 백혈병	22.2
미분류 증상·징후(숙환 등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닌 경우)	17.1
각종 사고사	13.6
소화기계 질환(위·십이지장 궤양, 간질환등)	6.6
호흡기계 질환(폐렴·인플루엔자 등)	4.7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당뇨병 등)	3.9
정신 및 행동장애	2.7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1
기타(비뇨생기기계 및 신경계 질환등)	3.7

21세기 의학계 전망

지구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도 의학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21세기 의학은 질병에 정복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는 달리 모든 질병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현재 인류는 질병과의 싸움에 분자생물학, 면역학, 생화학, 유전학, 생명공학 등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적·의학적 성과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런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백신,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중이다. 백신이나 치료제 뿐만 아니라 미생물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를 통제하는 연구도 한창이다.

과연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인간은 미생물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감염질환 및 알레르기 연구소 안토니 파우치 소장은 "미생물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생물과 적절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학자들은 21세기에는 건강과 의학의 이상(理想)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명과학이 바로 그것이다. 생명복제와 생물의

면역학·생화학등 발전
1백년내 난치병 정복

유전자지도 완성 및 나노생명공학 등은 21세기 인류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복제는 인간복제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인간복제 연구 및 시도를 철저히 금지하는 대신 동물복제 연구만 지원하더라도 의학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가지, 극초소형의 잠수정이 환자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레이저로 환부를 치료하고 환자의 눈물을 통해 밖으로 나온다는 나노생명공학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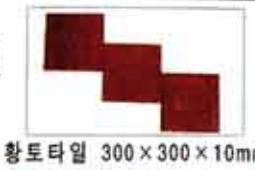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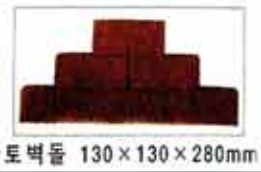
나노생명공학은 생명체의 구성단위인 분자 또는 원자를 인위적으로 조작·응용하여 나노미터(1나노=1억분의 1미터) 수준의 분자장치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약의 효용실험을 위해서 동물대신에 가공된 세포배양을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해지며, 인간의 신경시스템을 이용한 신경컴퓨터의 등장도 가능하다.

현재 인류는 '게놈 프로젝트'(인간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알아내려는 연구)를 통해 인간 생명체의 비밀을 벗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출생후 언제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를 예측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20세기가 의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면 21세기는 질병정복을 위한 신발견의 시대로 명명될 것이다.

기획취재팀
장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地 水 火 風
지정황토침대
황 토 침 대
"지정황토침대"
한불자가 오랫도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황토침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 가치를 평가하십시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함을 느낄 수있는 황토 천연적으로 만든 지정황토침대에서
흙의 기(氣)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지정황토침대는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찜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순수황토와 쑥, 느릅나무액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건강은 물론 자연의 향이 더없이 상쾌함을 주며 황토매트에서
아무것도 깔지 않고 잘 수 있는 독성과 전자파와 수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허출원 제99-11447호●

※ 지정SILVER 황토침대 싱글 (규격 190×96×39)

※ 침대에 왕골돗자리를 매치하여 더욱 시원한 모습의 지정황토침대 (규격 : 190×96×39)
황토타일

황토타일 300×300×10mm
황토벽돌

황토벽돌 130×130×280mm
(주)지정황토산업
본사 : (032)427-8080, 427-7898~9
공장 : (032)697-2365~6
FAX : (032)427-7997 / PCS :016-360-2236
전국대리점 및 영업사원 모집중

심천식사혈요법
자기의 병은 자기가 고쳐라!!
우리의 인체 구조는 혈액순환만 잘 이루어지면
아플 이유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병이 드는 원인은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못돌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심천식사혈요법
인체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는 어혈을 인위적으로 빼주어, 혈액순환이 잘되게 해줌으로써, 인체 스스로 모든 질병을 복원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의술이다.
■ 심천식사혈요법학회 전국지부 ■
· 부산시 사하구 김상학 051-205-1505
· 부산시 사상구 이지호 051-347-4448
· 대구시 달서구 석장균 053-629-3797
· 경기도 부천시 류인채 032-651-6565
· 인천시 북 구 한상한 032-545-9751
· 울산시 중 구 정용한 052-245-1239
· 경 북 영천시 이관태 0563-331-3420
· 경 북 울산군 현상용 0565-783-1819
· 경 북 상주시 최인호 0582-333-8670
· 경 남 창원시 오세진 0551-299-3450
· 경 남 창원시 김숙희 0551-282-0926
· 경 남 양산군 정정우 0523-382-5816
· 광주시 광산구 김 규 062-951-9436
· 충 북 충주시 추선동 0441-851-2510
· 경 남 마산시 손창기 0551-222-0382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못믿고 현상에 끄달리면 늘 제자리 걸음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푹 믿고 놓으세요
살아 있으면서 죽어야 화신 나툴수 있어

갑자기 멍한 느낌 들어요

문 얘기를 하는 도중이나 어떤 생각을 할 때 갑자기 멍하면서 다른 곳에 와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무기공 상태라고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현상이며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답 그게 어떤 현상인가가 뭐이 궁금합니까.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뭐가 궁금합니까. 제 뿌리에서 제 싹이 나서 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런데 왜 그 뿌리를 못 믿는 겁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뿌리에서 가지 잎사귀 다 나오고, 흔들리는 것도 다 거기서 나왔고, 바람 부는 것도, 비를 맞는 것도 눈을 맞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다면 자꾸 되풀이되지를 않지만, 못 믿고 궁금해하고 그러면은 자꾸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죠. 푹 믿고 놓으세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끄달리지 말고, 또 그것이 멍하건 멍하지 않건 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계들을 바로 그 자리에 놓는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생사의 문제도 거기에 다 그냥 놓으세요. 언제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말고요. 죽고 사는 것도 또 남을 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부터 건져야 남을 건지지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몽땅 믿고 놓으세요. 그냥.

'마음의 중심' 점검받고 싶어

문 공부를 하다 보니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 점검받고 싶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이름인데, 굳이 참나, 거짓 나 가릴 것 없이 일단 나부터 바르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불법공부를 한다 어쩐다 생각도 말고 내 '삶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부지런히 자신의 해야할 바를 찾아 실천하고 노력하는 강한 의지와 삶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참된 공부가 아닐까요.

답 전부 공생으로서 공용을 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자 천 가지 만 가지 마음으로 나와 돌아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탤런트들이 주인공이 되어 연기를 하지만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어요. 영화에서도, 그러듯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생멸에 대해서도 죽고 사는 게 없단 얘깁니다. 영원한 겁니다. 주인공을 찾는 것은 바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수 억겁 광년 전서부터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적인 주인 자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그냥 그대로죠.

맷돌의 심봉

움직이지 않고

맷돌 돌아가게 하듯

주인공은

마음을 돌립니다



그림 · 최주현

맷돌에도 심봉이 있습니다. 아래 위 심봉을 끼워야 물질이 들어가서 갈려지죠? 물질과 맷돌과 물과 모든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세가 돼가지고 돌아가서 물건이 갈려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아요.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고 맷돌만 돌아가죠. 그러는데도 물질이 다 갈려나온단 말입니다. 심봉은 힘만 가하지 맷돌과 같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주인공은 힘만 가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서 돌아가는 게 맷돌 돌아가듯 하는 거죠. 우리 이 몸뚱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을 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게 꼭 맷돌에 물건 넣는 거와 같은 겁니다. 물건을 넣어서 갈려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또 넣고 하면서 살림살이를 하고 가죠. 그래서 영원한 자기의 참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진실히 발견하라.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없는 게 아니니 찾는 게 아니고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문 1. 죽은 후에 영혼은 의식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아뢰야식만 남으므로 잠든 형태와 같다고 합니다. 또 의식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후 영혼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합니다. 육체와 관련된 5식이 사라지므로 영혼은 보고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영계에 있을 때 생각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2. 위 질문과 관련하여, 죽은 후의 영혼은 성불할 수 있습니까? 티베트 사자의 서를 읽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죽은 후의 상태는 지금 상태의 연속이므로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때에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49일만에 환생이 이루어진다고 하므로, 영계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계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는 도를 닦지 못합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도를 닦고 성불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답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차원의 그릇을 가지고 죽어봤던들 뭐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차원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아주 야무지게 알고 죽어야 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서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옛날에 어느 큰스님께서 날더러 눈뜨고 삼년만 푹 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뜨고 잠을 자라고 한 뜻이 뭔 줄 알겠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의 심부름꾼으로 알고 그냥 거기다가만 놓고 가는 게 푹 자라는 거예요. 쉬는 거고, 이유를 붙이지 않고,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하고 따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유가 들어가서 벌써 놓질 못해요. 생각해서 한 생각에 '아, 이게 옳지.' 그래도 그냥 거기다 맡겨놓고, '이게 그르지' 그래도 거기 맡겨 놔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르게 된 건 옳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옳게 되는 것도 놔라' 하는 것은 옳게 된 것이 좋다고만 하면 언짢은 게 거기 붙으니까 그것마저 것도 값비싸게 옷을 벗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옷 벗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옷 벗을 수 있어도 그게 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마음에서 옷을 벗고, 옷을 벗는대도 즉 말하자면 자기가 분명하게 이 도리를 알고 옷을 벗어야 하겠죠. 옷을 벗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게 열반계예요, 이를테면. 옷을 벗기 전에 알아야지 옷을 벗고 나서 알았다는 거는 안 게 아니죠.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죽어야지 진짜 죽는 거지 육신 옷을 벗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돌이 아니게끔 공부하는 것이 천백억화신으로도 나툴 수 있고… 그게 숫자가 없는 숫자죠, 천백억이 아니라 숫자가 없는 걸 천백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요걸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요게 돼 주고 저걸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저게 돼주고 아파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돼주고 가난해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관세음이 돼주고, 이렇게 나투는 자체가 바로 죽어야 그렇게 나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물보다 못한 삶 사는 까닭

문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도 가끔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동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견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스님이 신도 몇 명과 정신지체자 수용소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스님에게만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방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정신지체자들에도 급이 있어서 가장 낮은 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었는데 마치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자기 몸도 스스로 잘 가누지 못한 채 뒹굴고 있더랍니다. 청소는 수용소안에 호스를 대서 물을 뿌려대는 식으로 하루 2차례 해주고 있었으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르는 애완견이 한 마리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호강하지는 않지만 가족 모두가 귀여워 해주며 때로 산책도 시켜주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이 두 경우를 보았을 때 과연 전자가 사람이라서 후자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 짐승들의 생활이나 사람들의 생활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고 생활 자체의 문제가 달라서 그렇지 사는 거는 아마 매 일반일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따라서 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연어도 있듯이 말입니다. 개미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알을 낳아서 죄 벽에다 매달아 놓는 개미도 있습니다. 마구 돌아다니다가 그 알이 채일까봐 잘 두려고 하는 걸 보면 자식을 위하는 거는 아마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을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리가 없는 사람, 곱사가 된 사람, 눈이 부실한 사람, 팔이 없는 사람, 또는 병고로 반생을 앓는 사람,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형상을 떠나 마음에 개금불사를 하라

고려 말의 호국충신 최영 장군이 평생 좌우명으로 간직했던 말은 '황금보기를 돌 같이 하라'였다. 황금을 탐욕의 상징으로 보고 늘 무욕(無慾)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다.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으니 그 또한 독실한 불자였을 것이고 불자인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을 것이다.

양(梁)나라의 무제(武帝)는 달마대사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힘써온 거국적 규모의 불사를 자랑하면서 그 공덕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없다.!'고 대답한다. 왜인가?

달마대사의 일갈 속엔 무주상(無住相)의 법문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양무제! 그대가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에서 불사를 했으니 아무리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법당을 장엄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상을 키운 것일 뿐 부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마음 닦기엔 단 한 치의 진보도 없노라. 그러니 공덕은 무슨 공덕이랴?」

어느 때 인도의 아사세 왕이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올린 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로 돌아 가시는 길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등불을 켜 놓았다. 그것을 본 난타라는 노파도 감격한 나머지 구걸한 돈으로 기름을 사서 등 하나를 밝혀 놓았다. 새벽이 되자 아사세 왕의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 꺼져 갔으나 난타의 등은 여전히 밝았다.

날이 밝아오매 목련존자가 이를 끄려 했지만 오히려 더욱 밝아졌는데 그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위신력으로는 끌 수 없다.' 하시며 이 노파는 30겁 후에 부처가 되리라 수기하셨다.

그 유명한 빈자일등(貧者一燈) 이야기이다. 왕은 돈이 많아 수많은 등 공양을 했지만 거지 노파는 부처님을 뵙고 감격하여 마음의 등을 밝혔기에 공덕이 왕보다 수승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복을 짓는다.' '공덕을 쌓는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보시 많이 하고, 공양 자주 올려야 복덕이 높이높이 쌓인다고 믿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복덕은 어디에 쌓이는가? 서방정토일까, 극락세계일까?

또 그 복덕은 언제 되찾을 수 있는가? 내세일까, 현세일까?

또 그 복덕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일까? 극락 세계를 가는 승차요금으로 쓰일까, 아니면 은행 예금처럼 찾고 싶을 때 찾아 쓰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숲에 머무시며 탁발과 분소의만으로 지내셨다. 겉 모습으로 말하면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신 부처님께서 과연 황금을 좋아하셨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불사(佛事)로 장엄케 하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다. 심지어 '나를 의지처로 삼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하셨다. 다름 아닌 '네 마음에 집중하여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라.'하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아니고 형상이라면 만불·만등 불사인들 공덕이 있을 것이며 황금 불사인들 공덕이 되겠는가?

부처님의 거룩하심에 감동했다면 그분이 직접 보여 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을 따른 역대 조사들이 초개 같이 몸을 던져 공부하신 게 숭고해 보이고 존경스럽다면 그분들이 하신 대로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참 불자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도 역대 조사님도 마음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개금불사(皆金佛事)를 하라고 하셨지 아상을 자극하는 형상을 권하는 말씀은 한 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

경전마다에는 '사구게' 하나만이라도 수지한다면 그 공덕은 칠보를 수미산만큼 공양하는 것보다 크다.'고 쓰여 있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그릇이 비어있어야 항상 담을 수 있어요

☞ 15면에서 계속

한 생전을 얇는 사람, 또 반생을 가난으로 이어가는 사람, 별의 별 사람이 다 많은데….

우리가 사생(四生), 사생하는데 사생을 어떤 의미에서 사생이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생이라는 뜻을 똑바로 아시고 그 사생의 천차만별의 문제들을 자신들이 잘 직감하고 행동으로 취해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생이라는 것은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것을 말하는데, 습한 데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알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또 화해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태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 천차만별 가운데 영혼이 깨끗하고 밝고 정갈하게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건데, 그 불성을 말하기 이전에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치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육신이 튼튼하고 정상이며 불구가 아닌 분들도 영혼이 아주 불구인 분이 있고, 몸은 불구이나 영혼은 아주 건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불구로 나오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불구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구가 된 자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닥치면 눈물을 흘리면서 뼈저리게 울면서도 자기가 불구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밑에 섰기 때문이죠. 자기가 위가 됐으면 잘 보질 못할 텐데 밑에서 보기 때문에 관단을 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육신이 멀쩡한 분들 중에도 마음이 불구가 돼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절룩발이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아주 불구죠.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육신이 불구라고 해서 영혼도 불구냐, 육신은 멀쩡한 사람들이 영혼이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으냐를 비유해 볼 때에 몸이 불구인 사람일수록 영혼은 더 깨끗한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 복도 주어지는 것인데 영혼을 그렇게 불구로 만든다면 지금 불구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생들이 다 그래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육지에서 사는 짐승들도, 물에서 사는 고기들도 또 질척한 땅에서 사는 생명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누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력하지도 말고 저럭하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또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사랑을 하되 자비로 해라. 여북하면 자비에 '비' 자를 무슨 '비' 자를 썼습니까? 슬플 '비' 자를 썼죠? 가엾어서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가엾어서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너를 건지는 데 내가 네가 돼주마. 이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가 주지 않는다면 건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선 사생자부라고 그랬습니다. 일대사의 인연을, 그 사생인연을 다 맺어서 그렇게 인연을 해놨기 때문에, 둘이 아닌 까닭에 자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생들의 과정을 면밀하게 다 보고 살죠. 지금은 밝은 세상이니까. 사생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뿐이지 삶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생명도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부모 자식이 돼서 형제가 돼서 사는 것도 또 둘이 아니죠. 애통해 하고 자기는 껍데기가 돼도 자식을 위하여 다 주는 것도 똑같고요.

그러나 법의 부모는, 우리 모두 다 법의 부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불성이라는 것이 법의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수 억겁으로부터 진화해서 형성시켜 나온 장본인이니까요. 이 모습이라는 건 한철 살다가 망가지면은 다시 바꾸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꾸어지죠.

오늘 아무렇게나 살다 뭐 죽으면 고만이지 이러지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자기 각자 하나만 잘못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단추 잘못 끼우는 거와 같아서 죽 내려가면서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한 분이라도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두이면 더더욱 좋구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부모를 두고 자식이 그냥 별안간에 죽거나 부모도 자식들을 두고서 별안간에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해놓고 자식이 못 잊어서 그 죽은 자리에 몇번이고 가서 울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과 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분들을 보거나 생각이 나도 불쌍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냥 주인공에다 탁 맡기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서로가 구제하는 길이요, 자비성이요, 알팍한 사랑이 아니고 자비란 말입니다.

예술 · 과학 관념의 찌꺼기인가

문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학문, 예술, 종교, 철학, 문명, 문화…따위는 진화 행위인가요? 아니면 자연을 거스르는 관념의 찌꺼기에 불과한가요? 대자연 그대로가 소위 말하는 부처요, 불성이며, 한마음의 나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업덩어리(관념)가 요동치는 대로 원래의 주인공 자리에 순간순간 되돌려 말겨 놓는 것이 아닌가요. 한마음선원에도 심성과학연구원같은 것이 있지요. 과학, 학문 따위를 발전시켜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인간(중생)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자연(자성, 한마음)에 귀의해야만 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언젠가 외국 사람인 뉴욕의 어느 과학자가 불교만이 과학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과학이 평등공법에서 나오는, 즉 말하자면 공용(共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면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다, 연구가 되지 않는다, 허공으로 쏴 올리는 것도 내 영상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 좁은 그릇에 묶여서 인식을 가지게 되면, 또 그것만 알아서 자꾸 그렇게 해나가려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 자리에서 트여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길이 달리 나고 발전이 되고 이러는 대로 여기서 트여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아리 속에서 벗어나야 그 벗어난 위치, 허공에서 내 자력을 모두 성취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허공에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활약할 수가 있는 것이니깐요.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씻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근본이 돼서 현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씨가 없어도 아니 되고 밭이 없어도 아니 되듯, 씨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밭에다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착을 두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모든 것을 놓는 작업을 해야 내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죽어서 불구덩이를 만난다면 '아유, 내가 불이 뜨거워서 타죽지.' 하고 못 들어가지마는 그 인식이 살아 생전에, 내가 마음은 불에 들어가도 타죽을 염려가 없다는 걸 상식적으로 배운다면, 그게 완전히 배워졌다면 착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물질의 착이 뚝 떨어진 거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알게 되고, 마음으로 움죽거리게 되면 이 육체도 움죽거리게 되고, 마음으로 움죽거리게 되는 건 무(無)의 쪽에서도 쓸 수 있고 유(有)의 쪽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바퀴, 앞뒤 없는 불바퀴 속을 들락날락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저승과 이승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된다 이런 소리죠. 또는 어느 소용돌이 속이라도, 땅속을 들어가도 이 마음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깊이를 알 수가 있죠.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이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되는가도 자기가 알수 있고 그 속이 어떻게 된 것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도 정신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정치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공업이라든가 또는 물리학이라든가 과학도 전부 정신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니 되는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물질계로 이론적으로, 이게 그르고 저게 옳고 이게 정법이고 저것은 아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그 세계에 따라설 수 있으며 앞장설 수 있겠냐 이거죠.

이 몸으로 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몸으로 뛰는 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연구를 해서 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마음으로 인공의성을 띄워놨다 하더라도 만약에 악의 의식이 점령을 한다면 이쪽에서는 그거를 또 못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인공위성은 항상 어디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한 생각을 내서 쓸 수 있는 것이 마음의 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성과학연구원은 말 그대로 심성을 공부합니다. 그 어떤 분야든지 심성이 빠지면 100%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신계가 빠지면 말입니다.

외국어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문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홈페이지에 스님들께 질문하는 코너가 있다 하여 들어왔습니다. 저의 학교 점수는 90점입니다. 하지만 마음공부의 평균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외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주세요. 그리고 저도 주인공에게 마음을 놓고 잘 관하겠습니다. 요즘은 관해서 답을 찾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되었는데요. 스님 이 글을 쓰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제가 외고 들어가는 길이 나으면 외고로, 인문계로 들어가는 것이 나으면 인문계로 가게 해주세요.

답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다니는 자신을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거푸거푸 말하지만 불안한 생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벌써 '야! 영원한 친구야,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 하고 뜻으로 전달이 돼서 그냥 자기가 마음이 스스로 안정이 돼요.

그런데 그냥 설 믿고, 믿다가도 그냥 말아버리고 주인공이라는 게 뭐 말라빠진 건가 하고 내던지면은 하나로 될 수 없지, 그것이 즉 말하자면 전 우주에 통신처라고도 볼 수 있어. 통신도 하고 보기도 하고 가고 오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알게도 하고 그러는 보배처거든. 거기서 내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얘! 뭐 그렇게 걱정을 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고 뜻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저절로 그냥 든든해지게 되지. 그런데 그것을 가소롭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듬직하지가 못해. 그냥 바깥으로 방황하게 되지. 진짜로 믿는다면은 저절로 그렇게 믿고 저절로 든든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진짜로 또 알게 되고 말이야. 그렇게만 한다면 되겠지. 그러니 거기에 말기면서 열심히 해. 알았지?

희망 갖고 살고 싶습니다

문 삶에 희망을 갖고 싶은데 어떤 희망이 좋을까요?

답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있으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거, 욕망, 착이 있는 거, 욕심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내 생명까지도 다 광개쳤다면 아무 것도 붙을 게 없어요. 하늘이 지금 당장 무너져서 그냥 납작해진다 하더라도 '허허, 그래?' 이러고 웃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웃게끔 될 수 있어야 하늘을 떠받칠 수 있어요.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오직 하나의 바람이랄까, 희망은 오직 여러분 개개인이 하루속히 그저 콩싹이 콩씨를 알아서 영원토록 그 콩씨로 인해서 모두 먹고 콩씨가 되남고, 또 먹고 되남아도 영원하고 끝간데 없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죠, 뭐, 어떨 때 여러분이 걱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뭔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밥을 굶는다 해도 '허허, 밥 굶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 뒤로 넘어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팔짱을 끼고 있던 주인이 '아,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있단 말이지.' 하고 나서서 아마 둘 아니게 이끌어 줄 겁니다.

> "주인공 밖에는
> 이끌수 없다는
> 마음을 항상 갖고
> 자기를 지켜보며
> 실험하고 체험할때
> 불가사의 한 법
> 거기서 나와요"

공부하는데 잡념이 많습니다

문 공부할 때 힘든 점이 많습니다. 유달리 승부욕이 강한 편인데다 신경까지 예민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욕심으로 몸이 아프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인지, 장애를 공부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다 잡념까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공부, 공부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공부의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의 장애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답 잡념이 일어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왜냐? 자기 현재의 자기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억겁을 거쳐서 내가 구르고 굴러서 모습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살던 습이 잠재 의식 속에, 그냥 억겁으로 거쳐 나오면서 잠재 의식 컴퓨터에 차곡차곡 입력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이 나오고 때로는 저런 것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거기다가 되놓으면은 바로 전자에 입력된 거는 지워지는 겁니다, 자꾸자꾸….

그리고 잡념도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잡념이 아니었다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죠. 잡념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잡념이라고 생각으로 붙들고 걸리지 마세요, 잡념은 바로 성숙되는 과정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안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들었으니까 오관을 통해서 들이지 않겠소? 또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보고 듣고 잡념이 생기는 것도 있고 생활 과정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놓으세요. '이열치열' 아시죠? 그냥 거기다 믿고 놔버려요, 잡념이라는 것조차도 놓으세요. 그리고 '빨리 공부하겠다, 왜 이렇게 더딜까, 나는 왜 이렇게 안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도 놓으세요.

기독교인 아내와 결혼후 시련이

문 저는 직장인으로서 갈급한 마음으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마음공부를 하는 도중 중매로 기독교 신자인 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속였고 또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하고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서 세례식이나 성찬식에 참석할 때는 마음속으로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속이면서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또한 저와 아내가 또한 영적으로 통하지 않고,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없고 다른 교회분들과 교제할 수 없어서 결혼후 부산에서 낯선 수원으로 올라온 아내는 극도의 불안감과 외로움으로 잠을 못 이루고 몸조차 많이 아픕니다. 저도 결혼후 교통사고 및 식중독을 겪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수난을 당하고 설상가상으로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돼 마음공부에 대한 용기와 의욕을 잃고 슬픔과 우울함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 내가 이 세상에 빈손 들고 나와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졌고 상대가 있고, 또 내가 쓰다가 찰나찰나 즉 말하자면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가 되어 다시 빈 몸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빈 몸으로 와서 빈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착 · 욕심 · 아집 · 아상 · 증오 또는 너, 나 둘로 보지 말고 살면, 이 다음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릇이 비었기 때문에 항상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릇이 비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의 우주천하도, 사생의 모래알같이 수효가 헤아릴 수가 없는, 무량수의 공덕을 그 그릇에 다 담아도 손색이 없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좁지도 않아요. 내 마음의 집이 말입니다. 담은 사이도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을 다 담아도 좁지도 않고, 그리고 넓지도 않고, 다 내놔도 줄지도 않고 항상 풍족하죠.

그래서 마음으로써의 자비와 성스러운 지혜가 없이 나라는 조건을 세워서, 항상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나라는 게 없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뭐! 내가 짊어지고 나온 내 탓이지! 하고 이렇게 돌리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인공에 모든 것을, 식구가 마음이 풍족치 못한 것도 우리가 차원이 똑같으니까, 금은 금방에 모이듯이 우리 식구가 똑같이 차원이 그렇기 때른에 만나지 않았나. 그러니 그저 "주인공 당신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당신만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어, 당신만이 우환을 없앨 수 있다."고 믿고 놓으세요. 모든 거를 "주인공 낫게 해주시오."가 아니라 "당신밖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주인공 찾는 것도 둘로 찾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인공을 그렇게 찾았는데도 안 된다는 소리하시죠? 그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다리 건너가니까. 그것도 미신 짓이죠. 주인공이라고 이름만 해놨을 뿐이에요.

또 재차 말합니다만, 주인공밖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없고, 병고를 낫게 할 수 없고, 장사를 하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 없고, 잘 이끌어 줄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항상 떠나지 않게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면서 실험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체험함으로 해서 믿는 것이 더 단단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불가사의한 법도 거기에서 다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한 발 비켜서서 살펴보고 상대에게 하나가 돼주는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관하고 공부하다보면 상대방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오히려 한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빈몸으로 와서 빈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
잡념있어 부처되니 붙들고 걸리지 말길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갑상선 · 간질 당뇨완치
한국불교태고종 **서산사**
주지 한진성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전화 0667)761-5799
H.P 011)696-4848
팩스 0667)762-2204

체질식 =무병장수
100% 체질분류비법
(난치병 상담)
미타암
0552)
582-6013

강좌

남녀 철학원생 모집
◆인생의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사주 작명 관상 풍수 부적
구달마포교원 **달마 스님**
02)999-4804/02)999-5551
02)921-4804/02)928-5551
051)418-4804

정/성/활/인/방
손끝의 활·인·술
· 십분활인 · 신체의 썩은 탁기를 없애 고밝은 정기를 들여보내는 천연 활인법
정성활인술을 빌으시면…
▶몸이 시원하고 가벼워진다
▶얼굴색이 달라진다
▶입맛이 바뀌어진다
▶눈의 생기가 돋는다.
02)518-2453

수맥파 (나쁜기운) 차단
1. 수맥찾기 강좌(신비의 추 L-로드)
2.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종일 온몸이 나른 하신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등
3. 수맥 차단제 판매
4. 활동 공간의 기 균형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과학기술을 이용한 견성공부 수련테프 판매!!
①. 학습 집중력기인 릴렉스이즈를 이용하여 관법으로 쉽게 견성할 수 있음
②. 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성품이 볼래야 볼 수 없는 성품을 보고 그것이 나임을 깨닫는다.
③. 八苦해탈/습관/세균/감정/잡념/불안/만성난치로부터 자유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구인

수행 정진하실 스님 모십니다.
비구 · 비구니 구분없음
011)
582-1736

신심있는 행자와 기도하면서 여생을 함께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0582)
541-8420

스님지망생,법사구함
본사찰은 유치원, 학원을
운영하며 도심포교의
진력하는 포교도량으로,
주지스님도와 포교에 매진하며
공부할 젊은 인재를 구함.
군필한 30세 미만 고졸이상 성실한자.
(인천소재)
017)321-4883

보람을 느끼면서 안정과 확실한 사업에 힘이 되어줄 보살님 또는 처사님 모십니다.
· 법적보장 해드림.
· 중고차(코린도, 갤로퍼) 싸게 보시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373)373-4787
011)374-4755

부전스님을 구합니다.
구참스님이면
더욱 좋습니다.
천축사
02)954-1474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탈종공고

탈종공고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고원사
◇주 지: 석정현
◇창건주: 최태해 최수해
◇소재지: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9. 14.

탈종공고
한국불교총화종 귀중
◇사찰명: 백련암
◇주 지: 정묵스님
◇소재지: 경남 거제시 능포동 633-22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9.

기타

건강에의 신비! 준전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승복을구합니다.
강원에서 공부하는
확인으로 사정으로
승복을 맞춰
입을 형편이 못됩니다.
어떠한 승복이더라도
보내주십면 감사히
입겠습니다.
보내주실곳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218-23 (우. 480-102)
박호연 거사

간 병 인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
불심깊은 불자간병인
TEL:02)363-7884
FAX: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전통범패 불교의식 모집
(기초반 · 중급반)
■강의내용:
예불, 아침쇳송, 저녁쇳송
상단축원, 중단작법태공,
도량석, 도량계, 복청계,
천수바라 태징 찍는 법,
북치는 법, 관음의식, 현자계
※개인지도 가능
0351)865-4893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832-0742 / 011)381-8157

天書 인연불자 보급
마음 다스리는 글 · 사업번창 이루고 고민 다스리는 글 · 화두 불수 있는 글 · 불법 이루는 글
미륵보살님 홍강 만등불사
1등 - ₩5,000

※ 홍광 사진 보급 ※
미덕사 0441)852-8990

전통불교 의식 연구원
02)
511-0108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대지 : 80평 외 추가사용 30평
◆건물 : 법당(단청) 30평 / 요사 : 35평
◆가액 : 3억 3천만원
◆위치 : 인천부평
◆대지 : 100평, 추가사용 대지임야 300평
◆건물 : 법당 20평 / 요사 : 40평
◆가액 : 답사후 절충
다보불사 02)3545-056 019)234-5506

전통사찰 및 납골당 안내
◆위치 : 서울(전철역)서 10분거리
◆부지 : 5,300평
◆건물 : 대웅전, 관음전, 미륵전, 산신각, 선행방 일주문, 진신사리탑
◆창건 : 500년전 태종대왕
◆가액 : 13억 8천만원
◆특징 : 전통고찰로서 천연약수, 권리한 교통환경을 구비하였고, 납골당 및 영탑공원의 요지로 태종대왕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원하였던 유서깊은 도량임
연락처 : 02)389-7880 / 019)390-6110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법당 : 20평(목)
◇요사 : 70평
◇부지 : 800평
◇가액 : 5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양도 · 운영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충북 ◇법당: 35평(철포집)
◇부지: 400평 ◇요사: 40평
◇가액 : 2억 3천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 중구 선화동
삼성생명빌딩(도청옆) 대림관광호텔 옆
◆대지 : 50평 3층 법당
◆시설 : 최고시설 완비
◆가격 : 시설비 3천만원
전세 3천만원(절충가능)
월세 가능
042)253-1016

토굴 안내
◆위치 : 광양시 진월면 부근
◆대지 : 137평(건평40평)
◆가액 : 3천 5백
◆천연안반수, 방3, 주방, 큰창고 (법당가능)
◆조용한시골 (바닷가 차편 10분거리)
0667)772-6968

포교원 (급) 안내
◆위치 : 장안평 시거리 전철역 앞
◆규모 : 총45평, 법당15평,
시설최상급, 거실1, 주방1, 목욕탕,
화장실1, 대중화장실 별도, 살림방
3, 상담실 1-살림편리, 5층건물의 5층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3천만원(총3,500만원)
011)660-4631
02)2216-3377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내 인가에서
100m산중, 바다가 한눈에 보임
◆부지 : 399평, 현 임법당
◆가격 : 2억 5천
051)248-9390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법륜사**
서울 수색과 경기 화전 10분거리
◆서울 일산 포교에 적합
◆평수 총 26평(법당)
◆시설외 일체 인수
◆가격 : 1억(시설비 없음)절충가능
◆전화상담요망
02)3158-3448/018)382-3448

포교원 안내
◆3층 건물 내 건평 30평
◆권리금 상담후 결정
◆방 1개, 기름보일러
◆주방, 화장실 有
◆가격 : 보증금 5백만원(월 60만)
0346)577-2485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용리
◆대지 : 300평 (종교용지 148평)
◆법당 : 가건물 30평, 요사채 : 35평
◆석불(문화재급)있음.
산세좋고 조용함
◆가격 : 5,500만원(시설일체 양도)
0431)254-6277
011) 459-7779

사찰 안내
◆위치: 장호원 경기 이천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만원(스님잉수시 대폭 절충가)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

사찰 안내
◆위치 : 대전 논산 국도 중간지점
◆산속에 위치하여 기도도량으로 적합
◆법당 : 35평(목조건물 외 5포 내 7포)
◆삼성각 : 5평(목조건물)
◆요사채 : 35평(현대식 건물)
◆대지 : 602평
◆가액 : 답사후 가격절충
0461)733-3048/011)458-3048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
321-47(89번 버스 종점옆)
◆평수 :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신중단,
방3, 세면장, 주방
◆가액 : 보증금 1,500 월7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8)385-1234

사찰(급) 안내
◆위치 : 천안시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용궁,
칠성각(각각 반목조 단청)
◆요사채 : 2동(석재 미륵입상,
탑, 대종, 명부시왕 10분 등
◆부지 : 1천 3백평(1년 쌀 한가마 도지)
◆건물 : 사찰등록, 개인소유 등기필
◆가액 : 1억
※ 아늑하며 식수 최고의 맛 ※
0417)566-5892/02)838-2929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합천
(댐부근 경관좋은도량)
◆부지 : 1100평 ◆법당:33평(단청필)
◆요사 : 40평 ◆기타 19평
◆특징 : 산속버스틈에서 나오는 일급 생수 무한량 준공4년, 당시 소요된 공사 금액 3억6천만원, 급한사정으로 답사후 최저가격절충, 시설비 일체 무상기증
0599)933-8599

포교원 안내
◆위치 : 미아삼거리
(길음전철역에서 3분거리)
◆평수 : 50평
◆가격 : 전세 7천만원
※ 시설비 무료 (A급시설 완비)
탱화, 부처님 등 일체 조성 완비
0366)432-4347
02)941-3195

포교당 안내
◆위치 : 충남 대전시
◆평수 : 40평
◆방 2개, 주방1,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산신탱화
◆가격 : 전세2300만원 시설비
◆즉시법회가능
019)211-8533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김천
◆대지 : 600평
건물28평 1동 · 20평1동 · 방 5,
입식부엌 · 임법당 · 욕실 · 삼성각
◆가격 : 대출금 5천만원 안고
6천 5백만원에 인수
◆특징 : 가든 또는 별장으로 적합.
계곡과 경관좋으며,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의 절반가격임.
0547)437-5390
011)9738-9221

토굴 안내
◆위치 : 함양군 덕유산
◆규모 : 대지 25평, 황토집,
5~6평 1채
임법당 및 요사채 30평
◆경관수려, 식수가 좋으며
종교부지 허가 받음.
◆가격 : 5천만원
0597)962-3528/011)842-3525
※현재 스님 거주중

포교당 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69-1 2층 · 3층
◆평수 : 18평
◆가격 : 전세 5천만원(월세가)
◆즉시 입주 가능
032)464-6140
032)875-4035

암자부지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내
◆지목 : 대지 250평평
◆가격 : 3천 5백 (건물1동 있음)
◆특징 : 경치 교통좋고 조용함.
주인이 고건축가능 보유자로
목조건물 신축원할시 최저가로
시공해드림.
0563)336-4480 박허운 합장

사찰 안내
서울 · 부산지역
사찰구합니다.
서울 · 부산 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합니다.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부지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강의원
(음성톨게이트에서 3분거리)
◆평수 : 임야 5,500평
◆가격 : 평당 15,000원
한국불사 02)521-3389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여주군내
◆부지 : 1400평
◆법당 : 25평(주삼포, 단청 완료)
◆요사채 : 2동 80평
◆산세 좋음, 백년고찰임
◆가액 : 4억 3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대구시 수성구 파동 445-1
◆부지 60평, 법당 13평
◆산신각 · 용왕당 · 방6칸
시유휴부지 사용 可
◆가액: 1억 8천만원(절충可)
053)768-578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 시설 완벽
◆ 가격 : 보증금 5백만, 월30만
(시설비 천 3백만원)
053)942-0700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대지 : 85평
◆건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가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특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융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스님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분당 율동공원 15일 국화축제

(생활) 최근 '도심 속 호수공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율동공원에서 15일 국화축제가 열린다. 축제기간에는 주민노래자랑과 그림전시회, 글짓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명예퇴직금 세금환급키로

(세금)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작년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물러나면서 퇴직금 이외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서만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0월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화물차·버스 1차로 못다닌다

(교통) 빠르면 11월부터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대형승합차량의 1차로 통행이 다시 금지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대형승합차는 편도 3차로 이하의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된다.

국내선 항공요금 큰폭 인상

(교통) 대한항공은 18일부터 현행 국내선 요금을 주중(월~목) 13.5%, 주말 19.8%, 성수기 25.6%씩 인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13일부터 국내선 항공료를 평균 16.7% 인상하고 주말-주중 요금을 차등화한다.

커피 하루 한잔 간암 억제

(건강) 일본 산교(産業)의과대 연구팀은 지난달 29일 11년간 7259명을 조사한 결과 커피를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간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밖에 안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커피를 가끔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간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70%라고 밝혔다.

태양전지 휴대용 충전기 개발

(신상품) 태양빛으로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휴대용 충전기가 개발됐다. 개발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대체에너지연구부 이만근박사팀.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전원장치인 이 휴대용 충전기는 일조량이 좋을 때 4시간정도 태양빛을 쐬면 완전히 충전된다. 반영구적이고 산속이나 계곡 등 전원이 없는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3월 출시예정

"더불어 살아야 할 지구촌"

서울 NGO대회·강원 관광엑스포등 잇달아

이젠 서로 남이랄 것도 없는 지구촌 시대. 더욱이 동양사상이 서양에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요즘, 세계를 하나로 잇는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거나, 펼쳐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들 '지구촌 축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한 자리에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오늘'을 가늠해보기에 충분하다.

▲'99서울 세계NGO대회='21세기 NGO의 역할'을 주제로 전세계 3백여 NGO단체 및 국내 시민단체, 일반참가자 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서울 올림픽공원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술 프로그램과 토론회가 진행될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도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이 특징. 지금까지 국내 7개 단체와 해외 단체 43개 단체가 대회기간에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상태. 이와 함께 동북아 민속예술제, 태국 필리핀 민속공연 등 주최측이 마련한 문화행사도 풍성하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난달 11일 시작돼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를 비롯해 국내 지자체와 200여 관련기업이 참여하며, 관람객만도 3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엑스포에 마련된 전시관은 모두 18개로, 세계 각국의 관광현황을 소개하는 국제관만도 4개이며, 환동해권, 아시아, 미주·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각국별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최첨단 영상과 전시조형물로 보여준다. 지난해 제주 세계섬문화축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이어 관광한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행사.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지난달 21일부터 경기 하남시 미사리 조정·카누경기장에서 시작됐으며 이달 20일까지 계속된다. '환경, 그 생명시대의 개막'이란 주제로 10만여명의 세계 환경인들과 150여만명의 일반 관람객들이 참여한다. 주제관, 미래환경생활관, 첨단기술관, 환경사업관, 환경과학교육관, 환경농업관, 환경재활용관 등의 전시관이 운영되며 환경생태파크, 국제환경영화페스티벌 및 의상패션쇼, 희귀조류전, 환경해양전시전 등의 볼거리 위주 이벤트도 펼쳐진다.

▲'9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지난달 30일 개막돼 이달말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조화의 손-미래에서 날아온 화살'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250명의 국내외 초대작가 작품전과 분야별 공예품 전시회 등을 통해 각국 1만5천여점의 공예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조선왕실 혼례식, 거리 퍼포먼스와 공예 워크숍, 거리 퍼레이드 및 야외 영화제,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지난 1일부터 시작돼 10일까지 안동시내 낙동강 주공연장과 하회마을 일원에서 계속된다. 안동민속축제와 병행해 열리는 올해 축제는 국내탈춤 중요무형문화재 14개팀과 일본 중국 대만 멕시코 말레이지아 캐나다 등 모두 7개국에서 22개 단체가 참가해 탈춤과 민속놀이, 예술행사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펼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동티모르 가는 상록수부대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동티모르에 파견될 상록수부대 선발대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특전사 흑룡부대에서 신고식을 마친뒤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나눴다.

일본근해 지진 발생후 90분만에 한반도 해일

빈번한 지진을 겪고 있는 일본. 일본 근해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기상청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지진해일 재해경감을 위한 워크숍'에서 서울대 사범대 지구과학교육과 안희수 교수는 일본 연안 7개 해저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90~120분만에 동해안 일대에 해일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발생함으로써 해일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일본 지진에 대한 조기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83년 아키타지진(리히터 규모 7.7)때 한반도에서는 해일로 3명이 사망하고 8억여원(당시 금액)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었다.

노령층 실업자 5년새 9배 증가

50대도 7배 증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50, 60대의 장년층과 노령층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령층의 실업자수는 94년에 5000명에서 96년에는 7000명으로 늘어난 뒤 97년 1만5000명, 98년 4만7000명으로 5년만에 9배이상 증가했다. 또 50대 장년층의 실업자수도 94년 2만3000명에서 95년 2만8000명, 97년에 4만명, 98년에 16만2000명으로 5년전에 비해 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중 구조조정 등으로 전체 실업자수가 49만명에서 146만1000명으로 2.98배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장년층과 노령층의 실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성별로는 60더 이상 남자 실업자가 94년 4000명에서 98년 3만6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여자는 1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증가, 여성의 실업률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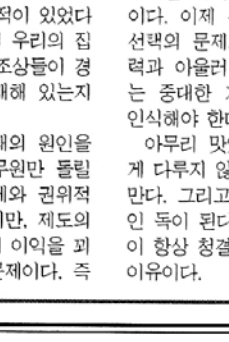
60세 이상에서는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도 90년 128만2000명에서 98년 194만7000명으로 51.9%가 늘어 이 기간의 60세 이상 인구 증가율 42.2%에 비해 높았다.

통계청은 공공근로사업 등 노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령층의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명우 기자

시론

부패지수



박승원
〈새시대불교포럼 대표〉

"부패한 사회구조 결국 IMF체제 맞이한 이유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직업별 부패지수를 보면 정치인, 세무공무원, 경찰 등이 가장 높으며, 목사와 스님 등 성직자의 경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에 서열을 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누구든 부패의 연결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청렴하다고 인정된 계층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 부패해 질 소지를 안고 있다.

부패의 원인을 찾자면 우선 각종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동안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려면 농지법에서 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이르기까지 15개 법 24개 조항과 공장건축허가에 4개 법 15개 조항을 통과해야만 했다. 최근들어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권위적 통치속에 있다. 게다가 엿장수 맘과 같은 인허가권자의 주관적 판단도 문제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의 기업활동을 '장애물경주'에 비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래도 낫다. 문제는 시작하고 나서부터이다.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에 뜯어먹으려는 곳이 수십군데이다. 관할 시군구청, 경찰서, 세무서, 환경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집권여당, 각종사회단체 등이 벌떼처럼 달려든다. 어쨌든 정치인, 공무원 할 것없이 얻어먹는 것을 너무도 좋아한다. 말 그대로 public servant, 공노비라서 그런지도 모른다. 하긴 조선중기에 노비의 숫자가 전국민의 절반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현재 우리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는 조상들이 경험한 노비의식이 잠재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부패의 원인을 모두 정치인이나 공무원만 돌릴 수는 없다. 각종 규제와 권위적인 관료의식도 문제지만,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는 국민의식도 문제이다. 즉 법을 지키기 보다는 뇌물을 이용해 쉽게 해결하려는 풍토가 그것이다. 쉽게 말해서 기업인이든 공무원이든, 적당히 바치고 또 적당히 해먹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비교적 사회의 공정성이 잘 확립된 나라들이다. 또한 경쟁력 약화로 무너져내리는 국가들은 한결같이 부패한 나라들이다.

부패의 문제는 단지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 나라의 부패지수는 96년말 27위에서 97년 34위, 98년에는 43위로 후퇴하고 있다. TI가 발표하는 부패지수란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현지 기업인 등의 인식을 기준으로 청렴한 국가부터 10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이처럼 부패한 국가로 낙인이 찍힌다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국가의 부패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부패에 찌든 국가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또한 부실이 만연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은 다른 국가의 부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제적인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다국적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생산, 판매, 금융 및 자금조달을 강화함에 따라 국가시스템까지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부패 라운드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 현재의 IMF체제도 총체적으로 부패한 사회구조가 자초한 결과이다. 이제 부패의 문제는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아울러 국가존립을 좌우하는 중대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청결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내 부패하고 만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항상 청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폐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 후원회 ARS : (02)700-0108

▨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모두 한뿌리이니 더불어 살아야"





◇ "고통받는 이웃과 삶을 나누자"는 대행스님의 법문(사진왼쪽)에 따라 한마음선원 캠페인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9월 법회-안양 한마음선원

장기기증 51명·화장서약 548명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가 지난달 1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거행돼 간일 법회로는 최대인원 동참을 기록했다.

정기법회와 함께 열린 한마음선원 캠페인에는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2개 지원의 신도 3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부부와 가족단위의 참석자들이 많아 가을나들이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51명이 장기기증을, 548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하는 등 모두 599명이 동참했다. 특히 51명의 장기기증자중 5명이 생전 골수기증을, 3명이 생전 신장기증에 서약하는 등 지금까지 열렸던 어느 캠페인보다 다양한 분야의 동참자가 많았다.

생명나눔측에서도 서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다른 캠페인때보다 일찍 서명대를 설치하고 평소 2~3명만 배치했던 자원봉사자를 7명으로 늘려 배치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또한 곳곳에서는 신도들끼리도 서로 캠페인에 참여하자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법회에서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은 '고통받는 이웃과 내가 둘이 아니다'는 의미가 담긴 법문으로 불자들을 숙연케 했다. 대행스님은 "모든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이며, 주고 받는 것이 둘인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주고 받는 그 순간 하나가 된다"며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 둘이 아닌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삶을 값지게 하는 뜻깊은 일"이라고 법문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이모저모

가족불자 참여 많아

O…부부와 가족단위의 참석자가 많았던 이날 법회에서는 이들의 캠페인 참여도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서울에서 온 이성웅(65)·방정식(60)씨 부부는 함께 온 딸과 사위 네 식구가 모두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명. 또 강방근(35)·황경희(31)씨 부부와 박춘봉(40)·정옥희(34)씨 부부 등 20여 부부가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특히 강방근씨는 생전 신장 및 골수기증을, 아내 황경희씨도 골수기증에 서약해 생명나눔측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받기도.

자원봉사자도 화장서약

O…이날 법회는 참석자가 많은 탓에 주변 주차정리를 위해 신도 30여명이 자원봉사경비에 나서기도. 이중 서울에서 온 윤기수씨(50)는 자원봉사 활동중 한마음선원 경비원인 박정상(38)씨와 함께 나란히 사후 화장서약에 서명했는데, 두 사람은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사후에 화장을 해달라고 말해왔는데 마침 생명나눔에서 캠페인을 벌여 기꺼이 동참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투병동료 생각나 동참

O…서울에서 온 회사원 홍성기씨(44)는 회사 동료중 투석을 받으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동료를 생각하니 서명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사후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하기도. 또 법회 안내를 맡아 숨돌릴 틈없이 바쁜 중에도 김선화씨(39)와 이경숙씨(46)가 화장유언에 서약하고는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서명대 늘어선 행렬 눈길

O…대행스님 법문이 끝나고 법당을 빠져 나온 신도들이 캠페인 서명대 앞에 10여명 이상씩 줄을 서 생명나눔 관계자들을 뿌듯하게 만들기도.

이같은 장면은 지금까지 다른 캠페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 생명나눔의 원석준 사회복지사는 "많은 신도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니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며 서명하는 신도들에게 일일히 "고맙습니다"를 연발하기도.

2층선 '법당 증축' 서명

O…이날 법회에서는 생명나눔캠페인 외에도 2층법당 입구에서는 또다른 서명캠페인이 전개되기도. 이 서명캠페인은 한마음선원이 합법적으로 추진중인 건물증축을 둘러싼 이웃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이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도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열린 것. 이 서명대에서도 생명나눔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신도들이 많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서명이 이뤄지기도.

"남의 생명이 곧 내 생명"

선원장 대행스님 법문



우리는 살면서 고(苦)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생각 돌이키면 바로 그 고가 자신을 승화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닥칠 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경험이고 여기에 끄달리지 않게 되면 고도 고가 아니게 됩니다. 고통은 마음이 가두고 가두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통일 뿐입니다. 고통이 없고 있고를 둘로 보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길을 찾아나서면 모든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공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자기인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진정한 자기는 보이지 않고 말할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와 상봉해 보세요. 서로 통하게 되고 세상 모든 것이 자기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이 둘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아니라는 것은 말로써가 아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뿌리는 한 순간 서로 합쳐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놓고 준다는 생각없이 나누어 보세요. 가는 줄 모르고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오게 되고 그래서 둘이 아닌 줄 알게 되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게 됩니다. 모두가 한 뿌리인데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물건이 남의 물건이니 이런 생각 하나가 만물을 살리고 그 이치를 터득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는 게 없이 삽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따로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그냥 종자일뿐 인연따라 가고 옵니다. 여기에 집착이 있을 수 없으며 애지중지해서도 안됩니다. 인과응보의 도리를 안다면 어찌 나와 남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마음 쓰는 데 마다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들고 나고, 나고 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스스로의 자기를 바라보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나 하나로만 보면 안되듯이 말입니다.

동참자 명단

장기기증서약(51명)

강방근 고은주 고필선 권선행 권정숙 김경연 김금옥 김성자 김윤성 김형기 류현숙 박경덕 박규환 박기임 박성례 박성수 박순옥 박영애 박용숙 박춘봉 배준우 서지연 송미영 심복신 심숙희 안석순 윤영인 이기영 이랑애 이위숙 이응호 이정임 장삼수 전복순 전승희 정영숙 정옥화 정용태 정의진 정재환 조규범 조순지 진옥례 청담스님 최정화 태동석 한경자 한용수 황경희 황영숙 황향숙(세부내용: ▲사후 각막기증 서약 47명, ▲뇌사시 장기기증 서약 44명, ▲사후 시신기증 서약 36명, ▲생전 골수기증 서약 5명, ▲생전 신장기증 서약 3명)

화장유언서약(54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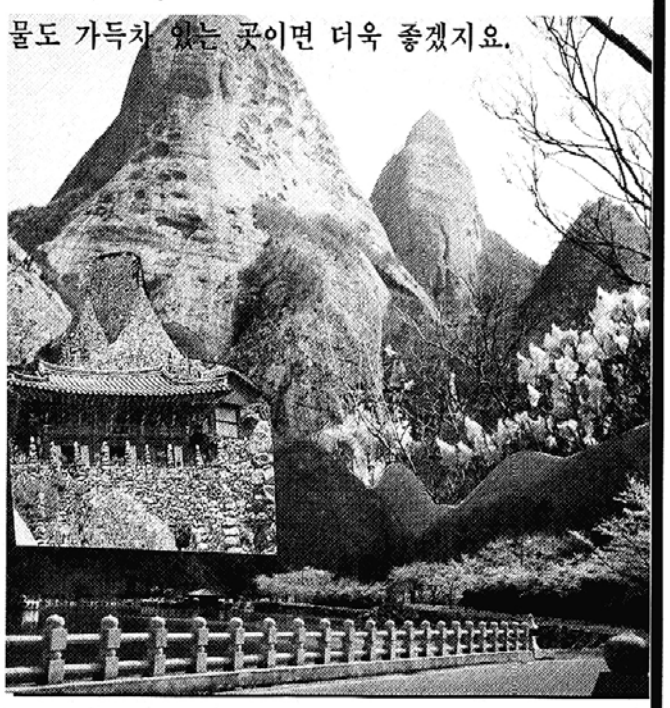
강경희 강귀화 강만석 강방근 강상욱 강상호 강선화 강신흥 강신홍 강오순 강옥자 강정숙 고건화 고은주 고재숙 고필선 고화자 고희원 곽금연 곽춘자 구명순 국참래 권경란 권근모 권명순 권민정 권선행 권영순 권오광 권오삼 권은숙 권이신 권정숙 권정임 권지현 권진순 권진혜 귀기민 김 호 김광삼 김귀매 김금선 김금순 김금옥 김금천 김금희 김남선 김남오 김달원 김동난 김동자 김동휘 김말순 김명숙 김명애 김명자 김명현 김명희 김문조 김미숙 김미자 김미정 김미화 김민경 김병익 김복재 김선화 김성식 김수현 김순련 김순분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엄 김시교 김애주 김연자 김영만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영자 김영진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옥성 김옥정 김외선 김용숙 김용순 김용자 김용호 김운신 김유선 김윤성 김윤주 김은희 김의청 김인자 김일심화 김재성 김재옥 김점수 김점순 김정란 김정신 김정애 김정옥 김정인 김정자 김정자 김정희 김정희 김종숙 김종희 김중선 김증연 김진미 김진순 김차숙 김태순 김향신 김헌옥 김현아 김형규 김형기 김형열 김혜경 김혜숙 김혜원 김혜자 김홍록 김희성 김희화 남기희 남명숙 남춘우 노갑연 노봉임 노영님 노옥련 노옥순 도경준 도새준 류현숙 문나형 문승의 문정순 문주형 민경숙 민숙자 박경숙 박광호 박규환 박기님 박대근 박명식 박명자 박명희 박무순 박미림 박상숙 박상우 박선희 박성례 박성수 박순득 박순옥 박순진 박언조 박영애 박영자 박용숙 박용환 박우나 박장외 박정례 박정상 박종화 박죽선 박춘봉 박춘선 박현숙 박형숙 박혜진 반명희 방문석 방정식 배경숙 배미숙 배재일 배준우 배진숙 배현관 백갑현 백균우 백길수 백길수 백승민 백승자 백승진 백종만 백길용 변춘섭 봉종욱 봉하신 사공영선 서경원 서경자 서내순 서범석 서복희 서부성 서상중 서영수 서옥순 서은주 서재영 서정현 서지연 서청자 서태순 성경순 성영애 성지은 손숙자 손순옥 손영효 손정숙 송미영 송불심 송시화 송정희 송창이 송춘가 신동식 신임연 신재순 신재철 신적자 신정자 신현주 심복신 심상준 심숙희 심승웅 심영자 심장수 안삼영 안석순 안성애 안성자 안수환 안신희 안영숙 안우현 양수광 양영희 양임정 양희숙 엄남태 엄영자 엄용자 엄정임 엄정임 엄춘득 여인길 염효란 오세원 오운주 오장현 오정애 왕기빈 우연희 우익환 원미원 원향희 위성환 유국현 유신욱 유영숙 유영자 유정은 유준근 유형숙 윤경순 윤기남 윤기수 윤란영 윤명한 윤상민 윤소희 윤순희 윤여형 윤영선 윤영인 윤영자 윤유미 윤은석 윤효건 윤화순 이 씨 이갑희 이경대 이경해 이군자 이규남 이기숙 이기연 이기영 이기정 이남석 이대섭 이동준 이동호 이동환 이동희 이랑애 이미경 이미숙 이민순 이반임 이병달 이보심 이복실 이봉수 이봉순 이석택 이선옥 이성규 이성웅 이세우 이순덕 이순업 이순옥 이순재 이순희 이승향 이시형 이영희 이옥주 이용권 이월례 이월숙 이위숙 이은자 이은화 이응호 이자혜 이재영 이재철 이점숙 이점숙 이정규 이정남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임 이종립 이종옥 이준석 이준재 이준환 이지연 이지윤 이지혜 이진환 이창선 이춘복 이태호 이한희 이현선 이현정 이형우 이훈로 임금지 임기훈 임병세 임석춘 임인자 임정숙 임정혜 임창희 임혜림 임혜옥 입화자 장경애 장경은 장명자 장복남 장삼수 장석분 장세환 장순임 장승원 장영옥 장영재 장춘자 장혜경 전복순 전상용 전숙경 전숙희 전승원 전승희 전이분 전정자 전진수 전창배 전해남 정교현 정금희 정기용 정덕업 정무현 정미영 정세연 정세윤 정순아 정영숙 정영자 정오순 정옥찬 정옥화 정용태 정의진 정인숙 정재환 정재현 정중섭 정진순 정차효 정해상 정혜란 정혜영 정희정 조귀연 조규범 조금례 조금숙 조길자 조난수 조덕상 조동석 조말희 조미숙 조미진 조병화 조성삼 조성준 조소영 조수신 조순지 조영숙 조용순 조원순 조유진 조재룡 조정기 조정현 조철규 조하원 조한봉 조향미 주미숙 지순배 진선경 진옥례 진옥자 진임주 차병숙 차영희 채순임 채재수 천영자 최경희 최귀숙 최규순 최도영 최동호 최명희 최미숙 최봉례 최성철 최숙자 최순희 최양순 최영란 최영자 최용석 최용준 최윤희 최은정 최인자 최점순 최정숙 최정관 최하용 추경석 탁경숙 태동석 표대규 하근수 하선옥 하정숙 한장우 한경숙 한경자 한복희 한상순 한용수 한영순 한정선 한종훈 한청찬 한화운 허선복 허수자 허숙자 허영자 현외주 홍미애 홍민자 홍상률 홍성기 홍은란 황미경 황미경 황보경숙 황선숙 황성균 황순수 황애란 황영숙 황영자 황울용 황의숙 황인형 황정자 황해순 황향숙 황향숙 황호익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02)734-8050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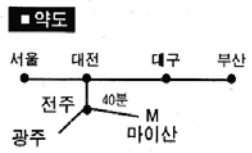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433-2900, 0303
(0655)432-0652, 0072

■약도



짧은 이야기 · 긴 깨달음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기,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1권 ❁ 행복의 문을 여는 이야기
제2권 ❁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
제3권 ❁ 수행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이라는
삶의 다섯 가지 주제를,
불경(佛經)과 고서(古書)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이 조명해 봅니다.
'바라만 봐도 복이 오는' 아름답고 귀한 변상도(變相圖)와 함께
이야기 하나하나에 깃든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노라면,
'하나뿐인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래 엮음
200쪽 내외
각권 4,500원



② 핸간책
① 노란책
③ 파란책

오색시리즈(전5권)
제4권(하얀책) 『지혜의 길로 이끄는 이야기』
제5권(까만책) 『죽음의 재를 태우는 이야기』 가 곧이어 출간됩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면 출판사로 연락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한세
전화 : 02)3219-6441 팩스 : 02)653-4611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기획 선물 상품 특판전

헌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컨셔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빠른 서비스, 고급화된 매장, 깜짝퀴즈의 상품,
현상공덕향 마하몰 경품 대잔치 등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마하몰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것입니다.

(마하(摩訶)는 범어 mah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크다는 뜻과 많다, 초월한다, 신묘하다는 뜻으로 경전의 이름이나
불교용어의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주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용어 입니다.)

경 상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시봉의 길잡 · 스님 오시네 · 불자들의 경건함기 · 자녀들의 학습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 크기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 느릅나무 원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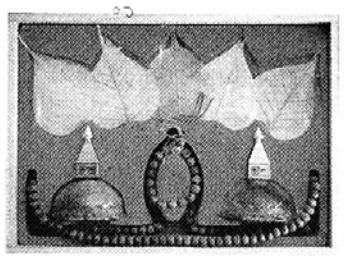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힌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잣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헛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팝은 수련을 하더라도 최고의 퍼연을 하고 싶은 수험생 안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평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걸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줌 안마사가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골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56,000(2개 한세트)

석가모니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엽(오색잎), 성토, 성수,성주 <인증서 첨부>

본 성품을 소장하거나 늘 가까이 하면 삼재팔난 소멸, 소원성취, 무병장수무유사완전 입시필승, 순산, 형통, 재앙 한 다하니, 이 성품을 소장하는 불자 모두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비로운 탄생축복을 골고루 나눠받아 늘 행복한 삶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성품은 네팔 룸비니 동산을 복원하기전 있었던 아소카 탑 및 성수, 마야헤븐, 살트리를 덮은 피플트리로 만든 탄생관련 성품입니다. 사원에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 1000세트 한정판매 합니다.

- 가격: ₩148,000원

패각 불상 (貝殼佛像)

신상품



담수 진주를 양식하는 방법으로 3-7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물 속에 전연상태로 양식한 천연진주입니다. 연좌대는 다른 응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소불 안치 등) 원하는 상(像)에 맞추어제작해 드립니다.

패각상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비로자나불

규격 : 25cm X 30cm(가로 X 높이)

- 가격:₩100,000

반야심경지통

신상품



돌가루를 사용하여 반야심경을 양각으로 만든 지통. 붓글씨 한지종이 모음통. 실내장식용 등 다응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규 격 높이 32cm, 지름 25cm (지통 대)
높이 26cm, 지름 20cm (지통 소)
재 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 가격:지통(소) ₩140,000
  지통(대) ₩220,000

108 진주목걸이



흑진주



진주(베이지)

천연 담소진주를 이용하여 만든 목걸이

- 가격

16,000원(베이지 3mm)
30,000원(베이지 5mm)
40,000원(베이지 8mm)
50,000원(흑진주 8mm)

달마순금액자

신상품



상반신



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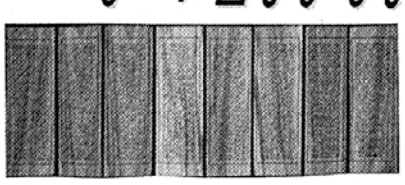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종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66 호

- 가격:₩120,000

향나무 금강경 병풍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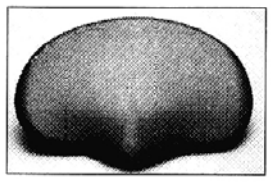
- 규격 : 8폭,
- 크기 : 가로 102cm × 세로 38.7cm

▶가격: ₩50,000
(고급 오동나무 Box 포함)

최고급 먹박신쇄(붙변)

- ♦처녀나 성모(직접 지니고) 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전 공부할 때 경상위에 놓으면 다른 사물에 방해되지 않게 정진할 수 있습니다.
- ♦사찰방문 및 귀빈께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불자님들은 각 가정에 한점씩 소장하세요.

참선 명상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지세는 수린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징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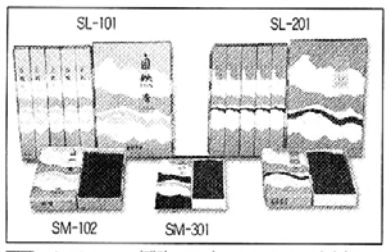
제품의 특징

영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비르게 유지하게 한다. 영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비르고 자연스럽게 펴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지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머리가 맑아지는 순수자연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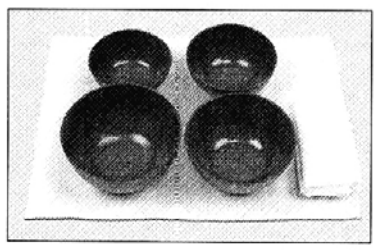
참나무 숯탄가루

본제품(향)은 국내최고 양질의 참소생탄과 세계적인 최고급 천연 향료만을 사용, 오랜 전통의 비법으로 만들어진 향제품으로, 특무연향등을 개발 청정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제품을 사용하는 지역은 전위가 높아지고 동시에 자기(磁氣)도 강해지며 전자장이 높은 환경지역으로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 규격 : (가로×세로×높이)
  - SL-101 26.5×16.5×5cm
  - SL-201 26.5×16.5×3cm
  - SM-102 15.5×8.5×3cm
  - SM-301 15 × 15×2.5cm

가격 · SL-101 ₩10,000(개당 ₩2,000) · SM-201 ₩12,000(개당 ₩2,400)
· SL-102 ₩4,200 · SM-301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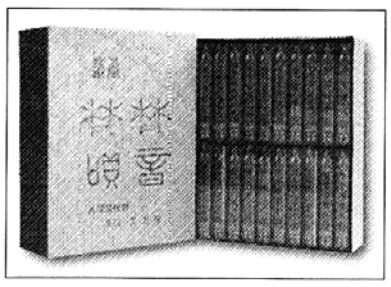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발우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이 할 도구의 하나로 빕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빌다라(鉢多羅-patra)인데 재료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양에 맞는 그릇(應量器)' 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외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외발우(瓦鉢玉)이다

- 가격
  - 와발우(4합) - 가 격: 60,000원 무게 : 2.7Kg
  - 와발우(2합) - 가 격: 30,000원 무게 : 1 Kg
    (2합은 재가 불자를위한 발우 입니다)

문구암 스님 범음 · 범패집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심심이운 3.신장청 · 손중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겨묵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II 8.대령 · 관욕의식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 I 11.영산작법 II 12.영산작법III 13.영산작법IV · 지장청사 I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영전점안 20.종성 · 천수작법 · 요잡

- 가격 : ₩60,000

옥돌 액자



아름다운 옥돌로 만든 액자로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사진 등 각종 기념이 될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선물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추석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몸에 좋은 옥에 사진을 넣어 보내 드리면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색상 : 베이지, 분홍, 녹색

- 가격

대 - 17.8 X 22.5 cm (가로x세로) : 15,000원
중 - 3.7 X 18 cm (가로x세로) : 10,000원
소 - 7 X 9 cm (가로x세로) : 3,000원

바위속에 숨은 부처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믿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 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회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정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감독-황기태
상영시간 :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 가격:₩13,000

연꽃 양면 손 자수(소장용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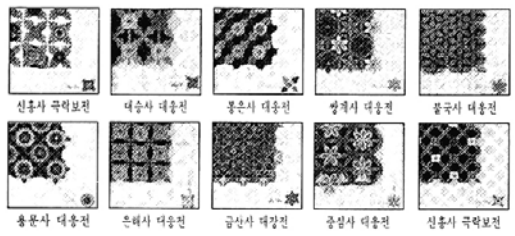
여러가락 굵기의 실을 이용하여 오랜시간 불지님 손인에서 수만 수십만번의 섬세한 자수 직업으로 한올 한올 수놓이져 세겨진 놀라운 작품
신심이 바탕이 된 기술로 심철을 기울여 세겨놓은 불교 예술품에서 자수 미술의 극치를 경험하십시오. 수 놓은 면 앞뒤를 유리로 투명회하여 전등 빛이나 촛불이 어우러질때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운 감동이 함께 할 것입니다. 흔처않은 연꽃자수 명품의 소장자가 되십시오. 작업시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공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면수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새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수 기법 (앞뒤를 보아도 똑같은 형제가 나타남)
- 액자크기 : 25 × 25cm(받침대 포함)

▪가격: ₩600,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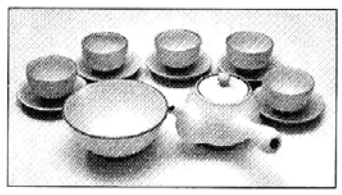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해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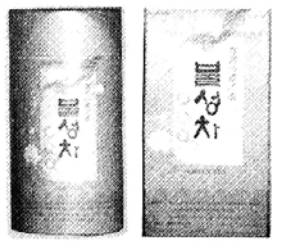
고산다기



고산 이규틱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신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신의 십일대손인 고취정산선생이 그 조산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와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심신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 가격:₩120,000

불성차 (佛性茶)



불성차는 지리산 심산유곡의 야생 차밭골에서 깃 피어난 어린 녹엽을 손수 채엽해
동(銅)기미솥에 전승비법으로 빚어낸 전통 수제차로서 깊고 은밀한 맛과 향
그리고 신묘한 색의 조화가 한데 어우러진 한국 최고의 명차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의 선물을 보내세요.

- 가격: 우전 : 90,000원
  세작 : 50,000원
  중작 : 30,000원
  대작 : 20,000원

반야불교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육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慙力)
강력(强力), 치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총법력(忍法力)
항마력(降魔力)

- 재질 금큐빅(18k,14k-1.5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 size: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 환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지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 녀 ,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저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지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달이지도 않고 분쇄후 물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르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향나무 열쇠고리



고급향나무로 제작했습니다. 부담없이 선물하세요.

300개 이상 주문하실 경우 원하시는 문구 넣어드리며, 500개 이상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가격
  - 안전운행 3,000원
  - 재수대통 3,000원
  - 소원성취 3,000원
  - 달마 향 3,000원
  - 향 합장주(8mm) 800원

법회안내

9일 법련사 초청법회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9일 오전 10시 서울 법련사 큰스님 초청특별대법회.(02)733-5322

12일 부산일보 대법회



진철스님(통도사 한주)12일 화요일 오후 7시 부산일보사 대강당 신라문화원 개원 6주년 기념 영남지역 순회 초청대법회.(051)802-0130

서불청 창립법회

자명스님(관음정사 주지)15일 오후 7시 30분 만해교육원 직할 서울불교청년회 창립법회.(02)730-9108

동대문경찰서 법회

법성스님(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매주 첫째, 셋째주 토요일 낮 12시 동대문경찰서 불교회 법회.(011)239-2050

10월 다보법회 법문

박완일 법사(전 전국신도회장) 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 대한불교진흥원 10월 다보법회.(02)703-010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0월6일 (수)

■관문사 삼천옥불점안 및 창건 1주년 기념대법회=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오전 9시30분 삼천옥불점안 법요 및 창건 1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02)3460-5300

■법륜스님 서울법회=정토회 법륜스님의 전국순회법회 서울지역법회가 11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정토법당에서 진행된다.(02)587-8993

10월7일 (목)

■자비의집 자원봉사자법회=경불련 자비의 집은 오후 1시 30분 10월 자원봉사자법회를 갖는다. 각기 다른팀에서 활동중인 봉사자와 만나 정보공유와 친목도 도모할 계획이다.(02)945-4200

10월8일 (금)

■장애인합동결혼식 및 개관 1주년기념식=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전 10시 30분 제천 유유예식장에서 장애인합동결혼식 및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갖는다.(0443)652-0900

10월9일 (토)

■우리는선우 8돌 기념 화엄십선계 수계법회=우리는선우가 창립 8주년 기념 화엄십선계 수계법회를 구의동영화사에서 봉행한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계사는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02)2278-8672

■상원사·월정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5시 오대산 상원사 보궁 및 남대 지장암과 월정사로 참배법회를 떠난다.(02)2279-1191

10월10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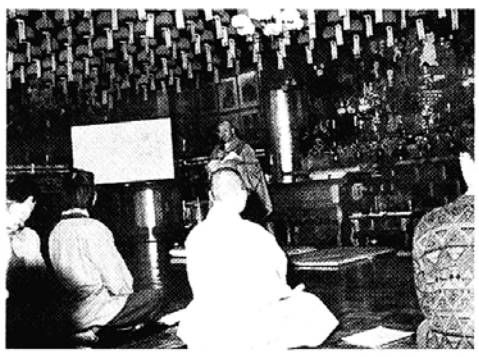
■어린이글짓기 대회=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는 오전 10시 서울 용산 가족공원에서 제1회 어린이 글짓기 및 연예인 초청 큰 잔치를 연다.(02)3281-3251

■계룡산 갑사 동학사 순례=터사랑은 오전 7시 30분 계룡산 갑사와 동학사로 순례를 떠난다. 계룡산 일대의 가마터도 둘러본다.(02)725-1284

■불우노인 무료투약봉사=서울불교청년회는 불자약사회와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실직자 및 불우노인 무료투약봉사를 실시한다.(02)730-9108

■법주사·복천암 답사=여래지 답사회는 오전 7시30분 속리산 법주사와 수정암, 복천암 등지로 답사 기행을 떠난다. 도깨비 축제가 열리는 속리산 현장도 직접 방문한다. (02)3445-0202

■지장보살 점안 및 산림대법회=공주 고불산 성곡사는 오전 10시 지장보살 점안 및 지장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0416)683-3993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불자들에게 좌선하는 법에 대해 강의하는 성해스님.

서울 선학원 추계 선학강좌

11월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가을은 수행하기에도 안성마춤이다.

이런때에 서울도심 한복판 안국동에 위치한 선학원 중앙선원 선정회(회장 배광식)에서 수행에 목마른 불자들을 위한 제4회 추계 선학강좌를 연다.

2일~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선학원 중앙선원 대법당에서 열리는 선학강좌는 〈육조단경〉을 중심으로 참선 수행의 기본과 지향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삼장법사이자 선학원 원장인 성해스님이 지도할 예정이며, 30분 좌선과 90분 강좌로 이뤄진다.

이 강좌를 마련한 선정회는 선학원 산하 재가불자들의 수행단체로써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실수실참을 해오고 있으며,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8시에는 철야정진도 실시한다. 추계선학강좌를 마친 불자들은 선정회의 실수실참법회에 참석해 보다 적극적인 수행을 체험할 기회도 갖게 된다. 뜻깊은 가을을 만들고자하는 불자 누구나 환영한다. (02)732-3327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

평창 월정사(주지 현해)는 13일 금강문과 호지각의 준공을 기념하여 보살계 수계법회와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또 이날 오전 10시 성보박물관 '보장각' 개관식도 갖는다. 월정사는 이와함께 오대산의 법맥을 근세에 다시 세운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선사와 수제자 탄허스님의 부도탑을 올해안에 조성하여 제막할 계획이다. (0374)332~6661.

법계사 적멸보궁 낙성

하늘아래 첫 절 지리산 법계사(주지 진욱)는 6일 오전 11시 30분 보성스님(송광사 방장)초청법회및 적멸보궁 법당 낙성식을 갖는다.

법계사는 3년에 걸쳐 보물 제473호인 진신사리석탑앞에 16평규모의 적멸보궁법당을 비롯하여 요사채 23평 극락전 해체및 보수공사 14평을 완공했다. (0596) 973~1450.

태고종

행자득도 수계산림

총무원(원장 인곡)은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28일간 태고총림 선암사 중앙금강계단에서 제23기 행자득도수계산림을 봉행한다. (02)745-2030

산방사 호국 범종 타종

제주 남군 안덕면 산방사(주지 벽공)는 9월 27일 태고종 인곡 총무원장스님을 증명법사로 호국대법종 타종식을 가졌다.

전태종

대충스님 6주기 열반재

제2대 종정이었던 대충대종사의 6주기 열반대재가 11일 오전 11시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된다. (0444)423-7100

진각종

종조열반 36주기 추모

통리원(원장 성초)은 16일 오후 2시 성북구 총인원 종조전과 전국 각 심인당(오전 10시)에서 종조열반 제36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한다. 이날 추념불사후 제3회 회당백일장대회도 열린다. (02)913-0751

일붕선교종

인천포교원 법선사 개원



인천종무원장 조완경스님(인천 보덕사 주지·사진)은 13일 오전 10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포교원 법선사를 개원, 봉해 종정스님을 증명법사로 봉불식을 갖는다. 011-256-2784

종지종

부산 자석사 신축불사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자석사(주교 법상인)가 신축불사에 들어갔다. 대지 620평 건평 412평의 1층 건물 2동이 들어설 자석사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 자석사는 내년 4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미타종

신임총무원장 월정스님



신임 총무원장에 청련당 월정스님(서울 옥천사 주지·사진)이 선출, 9월 28일 총무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월정스님은 지난 74년 벽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뒤 미타종 교육원장 감찰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미타종은 28일자로 각 부장 등 간부를 새로 임명했다. △부종정=혜우 △종정사서실장=덕운 △중앙종회의장=청암 △감찰원장=덕화 △감사부장=지관 △조사부장=법진 △교육원장=혜봉 △교육부장=도연 △연수부장=법운 △포교원장=법진 △포교부장=선지 △총무부장=진각 △교무부장=법장 △재무부장=지법 △서울시 종무원장=청암 △인천종무원장=혜원 △충남종무원장=천인 △경북종무원장=지덕

15일 종단스님 수계식

총무원은 15일 충북 단양 봉암사에서 종정 벽암스님을 증명법사로 종단 스님 대상 수계식을 거행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알림

▲무료한방진료=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7시30분 지역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침, 뜸, 부항, 한약 등 한방과목일체를 무료진료한다.(0443)652-0900

▲무료도배서비스=자양사회복지관은 노인, 아동, 장애인, 실직자 등 생활보호대상가정을 위한 무료도배서비스를 실시한다.(02)458-1664

강좌

▲기초교리=경주 신라문화원은 제1기 신라불교문화대학을 연다. 불교 기초교리와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신라불교문화대학은 6일 개강한다. 3개월 과정.(0561)774-1950

▲참선기초교실=부산불교교육원은 제26기 참선기초교실을 마련했다. 단전호흡법, 마음 집중법, 생활참선법 등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에 지도한다.(051)466-4080

▲다도교실=불국토는 가을 다도교실 강좌를 연다. 생활다례를 비롯, 차와 건강, 차를 즐기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차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51)868-0951

▲한마음체육교실=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한마음체육교실을 연다. 체육활동이 가능한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농구,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지도한다.(02)989-4215

▲불교기초입문강좌=대구 보림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불교기초입문교리강좌를 실시한다. 3개월 과정.(053)751-4675

▲불교기초교리=서울불교청년회는 제96기 강좌를 실시한다. 3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만해교육원에서 기초교리를 중심으로 지도한다.(02)730-9108

▲입문자교육=부산불교교육원은 제28기 입문자교육을 실시한다.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입문자교육은 불교예절, 사찰구조, 기초교리, 부처님생애, 예불문, 반야심경, 수행방법 등을 지도한다.(051)466-4080

▲실직자 창업교실=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에 처한 이들에게 재기의 희망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직자 창업교실 한식조리사과정을 연다. 11월 31일 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6시.(0342)716-4216

모집

▲독거노인 후원결연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송파구내 무의탁독거노인과 후원자를 연결해 주는 결연사업을 전개하고, 이에 동참할 후원결연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장애인한글교실 강사=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14세~40세미만의 정신지체장애인에게 한글을 지도할 강사를 모집한다. 22세 대학재학 이상.(02)989-4215

▲종무소 여직원 공양주보살=금천 상락원은 사찰행정업무를 맡아할 여 사무원과 공양주보살을 모집한다.(02)941-3416

▲중고 재고물품=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중고 및 재고물품을 기증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전개. 중고 재고물품 기증을 기다린다. 생필품, 의류, 가장, 신발, 가전제품, 운동기구 등.(0342)716-4215

이전

▲진양엔터프라이즈 확장이전=대구 경불련 강인성회장은 9월 18일 안경전문수출업체인 (주)진양엔터프라이즈 확장이전개업식을 가졌다. 새 주소는 대구 서구 평리6동 616-13번지.(053)558-4500

▲솟대문학 이전=솟대문학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 오피스텔 212호로 이전했다. (02)3473-4680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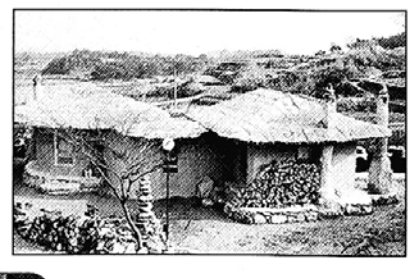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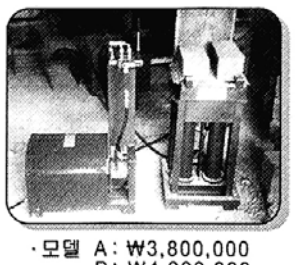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앤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귀의 삼보 하옵고

불자님 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신심이 돈독한 불자님 들과 인연을 함께 하고자 아래와 같이 부처님 봉안식 및 포교원 개원식을 봉행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불자님들의 가정에 복된 삶과 행복한 인연을 두루 하시여 온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시길 부처님전에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아 래

· 일 시 ·
1999년 10월 10일 (음력 9월 2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주 신라 포교원 영인 합장
· 전화번호 ·
(0561)773-3703
· 찾아 오시는 길 ·
경주시 성건동 아래시장 서편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주문이 많으므로 단체주문은 사양합니다. (1가정 1부씩)

복사를 할 경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린 佛字체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 인터넷 ◆
http://www.maharn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대만사찰 지진피해 극심

만불사 · 용산사등 폭격 맞은듯 파손
법륜종 1200만원 구호금 전달

타이완(臺灣) '9.21' 대지진으로 인해 사찰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스님)를 중심으로 한국불교계가 구호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의하는등 자비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이미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효성스님(용암사주지)은 9월30일 타이완을 방문해 만불사 주지 상개(常開)스님에게 구호성금 1천2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타이완의 유명한 사회복지단체인 자제공덕회는 최근 자국의 지진재해민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코소보 사태때와 터어키 지진때 국제구호활동을 펼쳤던 자제공덕회는 대만의 기온이 밤에는 더욱 추워지고 태풍마저 불기 때문에 집을 잃은 지진피해자들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5천개의 임시주택을 지어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선 국제사회에서 담요와 텐트 등 물품들을 보내주면 적극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이완 대지진으로 가장 큰 재난을 당한 우펑시 만불사(주지 상개常開)를 비롯해서 창화시에 위치한 300년 역사의 렁산사(龍山寺)와 남투 영엄선사(靈嚴禪寺)가 건물이 무너지거나 균열이 심하고 기둥이 땅바닥까지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불사는 전쟁터의 폭격맞은 잔해처럼 완파됐으며, 절 옆에 위치한 만불사 재단 자명상공학교(재학생 3000명)도 건물이 주저앉았다. 이들 대지진 피해사찰들은 현재 절 옆에 텐트를 치고 불상을 모시고 기도정진하며 생활하고 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만사찰을 돕기위해 한국불교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법륜종 총무원장 효성스님(사진 오른쪽)은 9월 30일 대만 만불사의 피해현황을 둘러보고 구호성금 1천2백만원을 전달했다.

미주현대불교 바라밀회 NGO 활동

해외통신

○… 미주현대불교(편집인 김형근)는 9월 17일 뉴욕에서 창간 10주년 뉴욕행사와 UN/NGO 활동을 할 단체인 현대불교바라밀회 출범식을 거최했다.

이날행사에는 학담(종회의원) 법타(평불협 회장) 설웅(조계종총무원 사회국장) 해통(뉴저지 텍사스주 휴스턴 소림사주지)스님과 뉴저지 인의법단 이정희 점전사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가했다. 현대불교바라밀회는 UN/NGO 가입단체를 상대로 앞으로 한국불교를 알리고 북한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퀘이커교도들과 협의하여 남북문제 해결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中서 달마대사 묘 발견

○… 선종의 개조 달마대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묘가 발견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화엄학연구소가 최근 중국 허난성 낙양 부근의 외국인 미개방지구인 웅이산(熊耳山)에서 '보리달마대사송(菩提達摩大師頌)'이라고 새겨진 석탑과 묘탑을 발견했다. 석탑은 높이 3.6m, 묘탑은 높이 15m.

석탑 비문은 '양무제찬(梁武帝撰)'이라고 돼있어 달마대사를 중국에 받아들여 새 설법을 펴게 한 양무제(502~549)가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된다. 1,000자 가량의 비문은 달마대사가 527년 중국에 입국해 무제의 도움으로 포교활동을 했고 536년 12월 5일 낙양 부근 용문석굴(龍門石窟)에서 숨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무제는 이 비문을 달마대사가 숨진 직후인 12월 15일 썼고, 묘탑은 538년에 세워진 것으로 돼있다.

오종욱 기자

日 '종교 · 정치모임' 결성

○… 일본 제1 야당인 민주당이 9월 8일 '종교와 정치를 생각하는 모임(회장 구마가야)'을 발족시켰다.

민주당의원 52인과 전일본불교회, 입정교성회, 불소호념회, 창가학회등 불교단체의 간부들도 참석한 이번 발족식에서 구마가야 회장은 창립취지에 대해 "정치와 종교가 왜 있어야 하는지 가야할 방향을 솔직하게 물어 인류의 행복과 평화,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임이 되겠다"고 말했다.

종교와 정치관계를 진정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공감대가 확산돼 발족된 '종교와 정치를 생각하는 모임'은 거대여당으로 화하기 쉬운 연립정권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민복을 꾀하며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원칙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우리절 불사 아산 지장정토원

서해안지역 포교 중심 도량

극락전 등 완공 10일 개원
대웅전 수련원 건립 추진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운다. 또 어지로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지주를 찾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주는 도량을 가꾸는 불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아 새로운 불교수행및 포교, 교육의 중심부 역할을 담당할 도량 지장정토원이 충남 아산시에 건립된다.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영인산 지장정토원(주지 법경)은 1차로 1천5백평부지에 50평의 극락전과 임시요사채, 우물불사,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공하고 10일 오전 9시 30분 석주스님 초청 삼존불상 점안및 개원법회를 개최한다.

지장정토원은 앞으로 대웅전과 수련원 지장전 산신각 일주문을 2천 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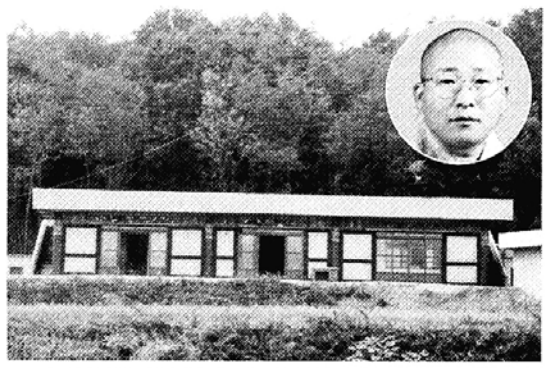
2백평 규모의 불교수련원은 지역불자교육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서교육을 담당하고 불자들의 수련및 신행공간이 되도록 하는 교육가람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사찰에 찾아와 몸과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쉼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도 마련하여 복지도량으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산시 지정 보호물인 어금니바위가 있는 지장정토원은 1984년 북한산 용암사 주지 정천스님의 원력으로 불사가 시작됐으며, 99년 7월 도심포교당인 능인정사 성동포교당에 기증되면서 건립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지게 됐다.

88년 법경스님이 성동지역 포교를 위해 창건한 능인정사 성동포교당은 1백회 이상의 고아원 양로원방문, 경로잔치, 지역의 불우이웃돕기와 소년소녀가장 3가족 돕기등을 펼쳐왔으며 지역포교를 위해 어린이법회, 무학여고불교반 법회등을 이끌고 있다.

법경스님은 "앞으로 여법한 도량으로 가꿔 도심과 농촌을 잇고 인연있는 불자들은 더욱 깊은 믿음을 전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인연을 맺게 해주는 전법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아산시 어금니 바위에 있는 지장정토원은 서해안 포교중심도량으로 불사가 진행중이다. 원안은 주지 법경스님.

구산선문 참선 기행

10월 : 봉림산문(봉림사지) · 성주사 · 장유암

10월에는 현욱선사(787~868)에 의해 개창된 봉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봉림사지를 찾아갑니다. 봉림사지에서는 고려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때 경남 지방의 선풍을 진작시켰던 향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년 고찰 성주사에서는 대웅전(지방문화재 제134호)과 3층석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야시대의 장유화상이 토굴을 짓고 수도하며 불법을 수로국에 전한 효시가 됐다는 유서 깊은 장유암도 참배 합니다.

◇출발: 10월 9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증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대구 · 광주 사찰연합회 '동서화합' 합동 대법회

6일 무각사…5천여명 참가

지역갈등 해소와 동서화합의 장을 열기 위해 대구와 광주의 사찰들이 발벗고 나선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운)는 6일 광주 무각사에서 광주 · 대구불교사원연합회 합동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대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하여 천운, 원명스님등 3백여 사찰의 스님, 박상규 국민회의 연등회장, 박철언 자민련 불자회장등 정계인사와 불자 5천여명이 참가한다.

법회에 앞서 대구불교사원연합회는 5 · 18묘지를 참배하고 시내일원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인후 전남도청을 방문하게 된다. 이윤호 기자

수덕사 '환경살리기'
치어 40만마리 방생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9월 29일 논산 탑정저수지에서 본말사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종 민물고기 치어 40만마리를 방생했다.

방생용 토종 민물치어는 충남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부화시킨 물고기로 환경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방생법회가 뭇생명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살리기 방생이 돼야 한다"는 법장스님의 법문을 들은 불자들은 보시금을 모두 생명나눔운동에 쓰도록 전달해 자연생태계와 인간생명을 살리는 방생으로 회향됐다.

김원우 기자

군법당 항만정사 개원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법당 항만정사 개원법회가 10월 1일 열렸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비롯 3백여명의 군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 개원법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항만정사는 법당 29평과 부속건물 20평에 요사채를 두고 매주 월, 금요일 자체법회와 일요일 법사 초청법회를 열어 군장병들의 신행을 다지게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불교교육원 선방개설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에 청소년, 일반인들을 위한 선방이 개설된다.

부산불교교육원은 매주 월, 금요일 이틀을 시민들을 위한 선방으로 개방하고 생활참선을 지도하게 된다. 시민선방은 그동안 부산불교교육원에서 꾸준히 진행해 오던 청소년 참선교실, 기초참선교실등을 거쳐간 수강생들의 보다 깊은 내면관조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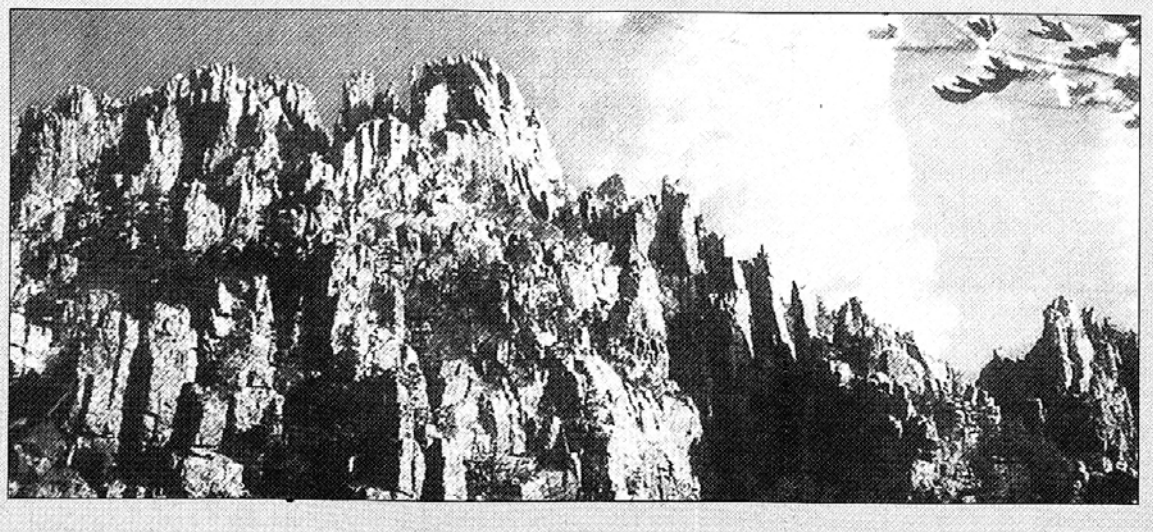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 016-228-2358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함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판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료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2-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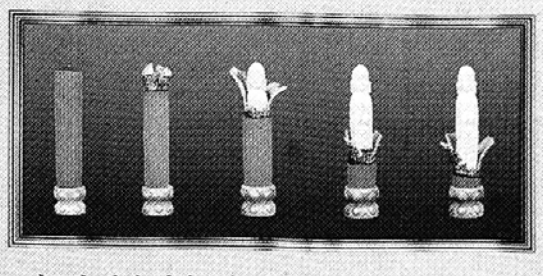
• 제조원 : 금 성 통 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게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8, 마하몰 대구지사 053)768-8008,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 부산 : 삼징원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부디가야 051)865-4383, 부산불교전시관 051)632-7333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966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52)282-705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551)295-8911 · 진주 : 마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밀양 : 부용불교사 0527)352-3756 · 속초 : 광영불교사 0392)631-7907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

은해사 통도사 고운사 금산사 동화사 갑사

개산대제 잇달아

"초발심으로 돌아가 법통계승" 발원

산을 열어 처음으로 절을세운 날을 기념하는 개산대제 열기가 전국의 사찰에서 후끈하다. 사찰들은 개산대제를 통해 개산조의 사상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찰의 법통을 바로세우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불교포교를 지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산대제는 16일 은해사를 시작으로 17일 통도사, 21일 고운사, 28일 금산사, 11월 3일 동화사, 11월 7일 갑사에서 연이어 열린다. 특히 동화사와 고운사 갑사등의 사찰이 올해 처음으로 개산대제를 봉행한다.

은해사(주지 법의)는 16일 오전 9시 부도전의 다례재를 시작으로 제 1150년 개산대제및 주지 진산식, 보살계·만등불사대법회, 산사국악한마당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통도사는 17일 경로잔치와 연예인 축하한마당, 어산법회, 구국영령 천도의 밤을 개최한다. 이에앞서 16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제1회 성보예술제를 개막한다.

고운사(주지 법조)는 의상대사의 사찰창건 이념을 받들어 경북지역의 거점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할 것을 염원하는 개산대제를 21, 22일 이틀간 봉행한다. 고운사는 올해 처음 갖는 개산대제를 계기로 새로운 수행풍토조성과 지역불교 포교거점도량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개산 1400주년 기념행사를 잇달아 벌이고 있는 금산사(주지 도영)는 28일 열리는 개산대제에서 국제보살계 수계식, 제 1.2차 학술회의 논문집및 본말사 사지봉헌식, 10만등불사 회향식을 갖는다.

창건후 첫 개산대제를 여는 동화사(주지 성덕)는 11월3일 오전 11시 통일약사여래대불이 있는 호국불교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민족통일기원대법회 개최를 비롯해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불교문화체험마당을 펼친다.

갑사(주지 장곡)는 국보 298호 괘불을 올리는 괘불재를 시작으로 소장하고 있는 월인석보판본을 영인하여 봉행하는 정대불사와 생전예수재, 성보및 사진전시회, 1600여년의 갑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회의, 만등불사등을 개최해 백제불교성지로서의 면모를 만방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통도사 금강계단 '일제때 개조'

석문·출입구·석축등…"복원공사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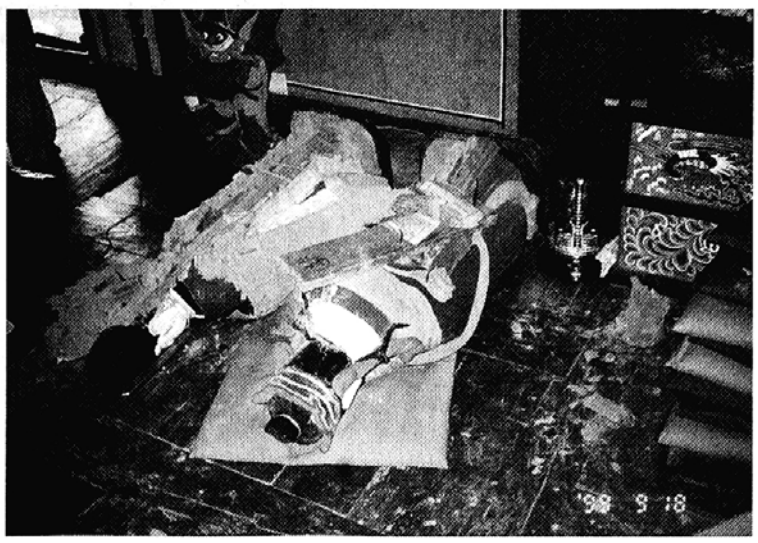
국보 제290호인 경남 통도사 금강계단의 아치형 석문, 출입구, 축 등이 일제에 의해 개조된 것으로 밝혀져 민족정기 회복차원에서 복원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산시와 통도사에 따르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의 출입문과 축대 돌난간은 1911년 조선총독부의 지휘로 일본 양식으로 보수공사를 한 뒤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 금강계단이 일본양식이라는 사실은 지난 97년10월 통도사가 발간한 "통도사 대웅전 사리탑 실측조사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다.

금강계단 내부의 일제양식 석물은 사리탑을 보호하는 안쪽 돌울타리 중심에 설치된 높이 1.5m의 아치형 석문과 1층 기단 중앙면석 배례석과 석등 등이다. 또 바깥으로 대웅전을 중심으로 동, 서방향으로 대칭돼 각각 설치된 길이 12m, 높이 0.6~1.9m의 석축과 그 중간에 설치된 너비 2m의 돌계단, 높이 0.8m의 돌난간 등이다.

1900년대 초기에 발간된 "조선고족도보"사진에서는 금강계단의 축대가 높이 2백30여㎝의 자연석을 직각으로 쌓은 석축으로 위로는 기와를 얹고 대웅전과 붙은 곳에 기와와 목재로 된 전통양식의 출입문이 달려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문화재전문위원)은 "일제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양산시와 문화재청이 보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복장물을 노린 떼강도가 들어와 마구 파괴해 놓은 안동 광흥사 응진전 성보들이 처참하게 훼손된 모습. 이 성보들은 조선 중기~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복원이 불가능할 만큼 심하게 파괴됐다.

안동 봉정사·광흥사 '도둑몸살'

성보노린 절도범 불상 39구 파괴후 도주

올 한해동안 6건의 불상훼손 및 복장물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찰문화재를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북 안동시 광흥사와 봉정사의 성보들이 절도범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도난될 뻔한 것으로 알려져 성보에 대한 특별방범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요즘들어 문화재 절도범들은 한층 흉포화되어 성보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스님들을 칼로 찌르는 등 강도짓까지 서슴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다.

9월 22일 밤11시 봉정사(주지 문인)에 김모씨 등 2명이 영선압촌고에 보관중인 조선시대 목경판(1761년 간행)을 훔치는 것을 총무 성묵스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절도범들은 영선압에서 500여m 떨어진 휴게소 근처에 그랜저 승용차와 1톤 화물차를 대기시켜 놓고 목판 20여장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경관을 던져놓은 채 도망쳤다.

이에 앞선 9월 17일에는 광흥사(주지 일현)에 5인조 복면강도가 들어와 병풍식 서첩 '금사경'을 찾기 위해 응진전(경북도 문화재자료 165호)에 봉안된 39구의 불상을 파괴한뒤 복장유물을 훔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응진전에 소장된 3존불좌상과 가섭·아난존자입상2위, 16나한좌상 14위, 동자입상16위, 제석·사자입상 4위등 불상 39구가 무참하게 파괴·훼손됐다.

광흥사 현지에 내려가 조사한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의 사찰문화재 보호요구에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윤호·오종욱 기자

"사미의제 자발시행" 결의

전국승가학인연 회의

16개 조계종 전통강원을 비롯 중앙승가대 총학생회, 동국대 등 35명의 학인 대표들은 9월29일 봉도사에서 전국승가학인연합 회의를 열고 종단의 사미(니) 의제 전면 시행 방침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종헌·종법 및 중앙종회, 종단 어른스님들의 뜻을 존중해 자발적으로 사미(니)의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다만 중앙승가대학의 경우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년별로 자율적인 시행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강원 학인들은 제10차 전국전통강원연합 학인대회를 26~27일 법주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복지프로 당선작 4편

조계종, 5백만원씩 지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한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에서 지원작으로 선정된 프로그램 4편을 발표했다. 모두 52편의 응모작 중 지원작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금오사회복지관의 '도농 복합도시에서의 농촌노인 이동경로복지사업', 옥수사회복지관의 '가족기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활동을 돕는 집단활동프로그램', 삼전사회복지관의 '저소득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새천년교실', 관음대비원의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여가활용 프로그램' 등 이들 프로그램은 복지재단으로부터 50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한명우 기자

통도사 주지 2명(?)

정화측 신허스님 선출

총무원 인사에 맞대응

월하스님이 주관해 9월 28일 열린 통도사 산중총회는 신허스님(표충사 주지)을 새 주지로 선출했다. 또 영배 지견 태연 명현스님을 제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이미 종법에 따라 현문스님을 주지직무대리로 임명했다"며 "현문스님이 적절한 시기에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스님은 기도와 교화…절 운영은 신도"

지광스님, 능인선원 발전배경 발표

연건평 4천여평에 달하는 초현대식의 복합건물(지상 3층, 지하 5층)에 7백여평의 법당과 사회복지시설을 갖춰 22만여 신도(신도카드는 5만여부)의 귀의처가 되고 있는 서울 능인선원. 1984년 서울 강남의 조그만 상가건물(28평짜리 월세 사무실)을 빌려 시작한 능인선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포교당을 이루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은 9월 20~21일 용인 중소기업개발원 연수원에서 열린 조계종 수도권·강원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에서 이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줬다.

지광스님은 능인선원의 발전과 성취 요인으로 △스님은 기도와 교육만 하고 절 운영은 신도에 일체 위임 △주지가 새벽예불과 기도(매일 3천여명 참여)를 솔선수범 △신행(기도, 의식, 참선 등)과 교리를 겸비한 신도교육(4개월 과정의 능인불교대학, 1년과정의 경전연구반, 1년과정의 법사대학원) △철저한 신도조직(760여개의 지역 가정법회 조직과 불교대학 기별 총동창회 중심)과 관리 △스님과 신도가 하나가 된 원력과 정진 등을 들었다.

지광스님은 절 살림 일체를 평신도에게 맡기고 스님은 오로지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하는 분업의 원칙을 정립한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며, 특히 사찰 재정의 투명화(능인선원 신협 창립, 매일 시줏돈 입금처리)가 이뤄짐으로써 신도들이 직접 재정을 관리(주지는 결재만)토록함으로써 신도들의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행자교육원 상설화' 결의

조계종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일면·교육원장)는 9월 17일 직지사에서 도법(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무관(교재편찬위원장) 철우(영산율원장) 혜능(해인율원장) 지현(송광율원장)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상설 행자교육원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조계종 승가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자교육원 상설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자교육원 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단 내외의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경북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9월 29~30일 제8교구 본사 직지사에서 경북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를 실시했다.

모두 214명의 스님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토론회를 통해 "사찰환경 수호를 위해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경승단 소식지 '등불' 창간

대한불교경승단(총재 고산·조계종 총무원장)은 경승단 소식지 및 경찰포교지인 〈등불〉 창간호를 9월15일 발간했다. 32쪽 분량의 소책자로 발행된 이 소식지는 △초대석-이상현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의 수필 △절을 찾아서(답사 안내) △우리는 붓다(김호철 강동경찰서 경감) △청소년 엿보기(청소년 지도방법 안내) △불자생활 지침(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 연재) △어울림 마당(모범불자, 선행경찰 소개 및 경찰가족 소식) 등이 실렸다. (02)720-7062 김재경 기자

정토회, 서울 NGO대회 참가

정토회(이사장 법륜)산하 좋은벗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제이티에스 등 3개단체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NGO 세계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서 정토회 3개단체는 인간존중과 인권, 윤리와 가치, 경제·사회개발분과에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NGO의 역할' '생태적 깨달음과 소비주의 극복' '제이티에스 합영농장사례및 한국 대북 NGO 농업지원 현황과 주제'를 법륜스님이 발제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

충북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효)은 8일 오전 10시 30분 시내 유유예식장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 및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을 거행한다. 이날 3쌍의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을 거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유마선원 토요수련회
불교수행의 정수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기 금강경 공관법이 있습니다.
· 수행지도 : 유마선원장 적연 이제열 법사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교 통 편 : 유마선원 전철 -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덕양우체국 앞
버스 - 신촌 921(좌), 영등포82(좌), 서울역 907(좌)
· 문 의 : 0344-967-9122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귄行"
귄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코르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구조 :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귄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귄行대표 박동진 합장

창사 20주년 기념
제1회 민족사 새 글 공모전
오는 2000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족사는 새 글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역량있는 필자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에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창의력 있는 원고를 모집합니다.
불자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불교출판의 활기를 불어넣을 재능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분야
■ 불교대중서로서 기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제와 형식의 글
- 불교입문서, 교리해설, 산문집, 불교문화예술, 사찰기행 등(단, 학술서, 시·소설류는 제외)
2. 자격 및 방법
■ 자 격 : 창조적인 글쓰기에 자신있는 모든 분
■ 방 법 : 집필원고의 개요(A4 1장 내외)
집필원고(원고지 800매 이상)
간단한 프로필 및 주소, 전화번호, 본명 명시
우편접수시 겉봉에 '공모작품' 명시
3. 일정 및 수상내역
■ 응모기간 : 2000년 3월 31일까지(소인유효)
■ 수상발표 : 2000년 5월 2째주 불교계 신문(당선자 개별통보)
■ 수상내역 : 대 상 1편 300만원
우수상 2편 100만원
*응모작품은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상작의 우선 출판권은 민족사가 소유합니다.
(또한 출판할 경우 저자와의 계약을 통해 별도의 인세가 지급됩니다)
민족사
민족사는 좋은 책으로 좋은 세상을 꿈꾸는 곳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3층 전화) 732-2403~4, 722-7679 팩스) 739-7675

이 달 의 책



장자

김달진 시인이 번역한 장자는, 이미 30여 년 전 문고판으로 나왔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적 비상의 날개가 된 바 있다. 그것을 다시 다듬어 새로이 펴 낸 것이 이 책인데, 각 편의 첫머리에 붙인 선사들도 장자를 읽는 즐거움을 한껏 고양시킨다.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장자의 세계로 들어서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크게 반가울 책이다.

김달진 옮김
A5신 534쪽
13000원
문학동네



서판 지음
A5신 302쪽
12000원
효형출판

그대가 본 이 거리를 말하라 — 서현의 우리 도시 기행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거지에서 나타나듯이, 거리는 도시의 격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그렇다면 서울의 종로·세종로·인사동, 부산의 광복동, 광주의 금남로 같은 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었일까?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건축가 서현의 대답이다.

머리말에서부터,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허구와 위선으로 가득차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이른 가을 바람처럼 상쾌한 책이다.



류치홍 지음 / 이재정 옮김
A5신 296쪽
7500원
예문서원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유교라는 억압이 강요한 죽음(자살)을 선택한 중국 명·청 시대 여인들이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이 책의 성격을, 유교의 강요된 권위에 도전하고 여성의 수난을 격앙된 목소리로 토로하는 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시종일관 냉정을 잃지 않고 여성 자살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고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낙방한 남성들의 스트레스 분출구로서 여성 정절이 강요되었다는 식의 분석은 눈을 번짝 뜨게 한다.



이중선 글·그림
A5신 192쪽
4500원
산지

어리석은 호랑이

창작 동화와 달리 전래 동화는, 그것을 낳은 시대와 그 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미와 감동의 공명이 크다. 창작자 한 사람의 상상력에 의존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주로 우화 형식인 이 책의 이야기들은, 인도 벵갈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것들이다.

기발한 상황 설정과 극적인 반전은 유쾌한 웃음과 함께 항기로운 여운을 남긴다.



고광삼 지음
A5신 336쪽
10000원
한기사

한국불학사

불학을 한국인의 정체성과 인식틀이 투영되어 있는 사유체계로 보는 학문적 태도에 입각한 한국 불학 통사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사상사' 또는 '한국철학사' 기술의 밑그림으로서 한국불학사(신라·고려시대편)를 정리한다.

한국 불학에 대한 개관에 이어 신라 고려의 불교 사상가를 중심으로 한국 불학의 정체성을 찾아나간다.



서규석 글·그림
A5신 382쪽
14000원
문학동네

이집트 사자의 서

고대 이집트인의 죽음 의식과 내세관의 집약이라 할 '사자(死者)의 서(書)'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의 신비를 탐색한 책이다.

『사자의 서』는 전체가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문을 아는 자는 내세에서 영원을 얻을 것이다."는 류의 주문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사자의 서』는 영원을 희구하는 모든 인간들의 '부활의 서'이기도 하다.



염정 옮김/ 무비 감수
A5신 588쪽
20000원
도서출판 법공양

수능엄경정맥소 (首楞嚴經正脈疏)

능엄경의 대표적 주석서 중 하나인 진감(眞鑑) 스님의 '정맥소(正脈疏)'를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다.

이 '정맥소'의 특징은, 수십 종 되는 주석서들을 꼼꼼히 살펴 뛰어난 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오류는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인 데 있다. 그래서 '정맥소'는 다른 어떤 주석서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용덕 지음
A5신 302쪽
8000원
불일출판사

한 생각 돌이키면 삶이 즐거운 불교 이야기

오래전부터 불교 설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김용덕 교수가, 이곳저곳의 자료를 모으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불교 설화를 쉬운 우리말로 갈무리한 책이다. 설화의 배경이 되는 사찰이나 관련 사진을 중간중간에 곁들여 이야기를 풋바침하고 있다. 그 동안 나왔던 불교 설화집들이 보여온 어설픈 문장이나 엉성한 구성 같은 부분을 찾아 볼 수 없어서 안심하고 자녀들에게 권할 만하다.



달라이 라마 강의
류시화 옮김
A5신 252쪽
7800원
나무심는사람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영국 카톨릭 신부들의 초청으로 사흘 동안 북런던의 한 대학에서 성경 복음서에 담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강의한 것을 묶은 책이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달라이 라마 자신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의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이다. 첨저한 불교 수행자로서의 혜안이 성경의 메시지를 꿰뚫어 보기 때문이다.

스테디셀러 찾아가기

육조단경(六祖壇經)



육조 혜능 어록 / 광덕 역주
A5신 396쪽 / 값12000원

나 여기 '있음'이, 저 푸른 하늘 같을 수는 없을까? 아니, 하다못해 물 속 사이에서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풀포기 같을 수만 있어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어느 때든 그들은 — 엄격히 말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생명들은 —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발버둥질하지도 않는다. 높다고 뻐기지 않고 낮다고 스스로를 업수이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여여(如如)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하다.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시샘한다. 섣부른 희망에 달뜨고, 터무니없는 자부심으로 우쭐하고, 뜬구름 같은 이름을 좇아 발 동동 구르기도 한다. 만사에 주눅이 들어 굴신하다가도 뾰족한 자존심에 찔려 피를리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이 책 『육조단경』을 편다.

"무상보리를 배우고자 할진댄 초학자를 업수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낮고 낮은 사람에게도 높고 높은 지혜가 있고, 높고 높은 사람에게도 낮고 낮은 지혜가 있는 법. 만약 사람을 업신여기면 가없는 죄가 됨을 알라."(79쪽)

내 근거없는 오만의 머리통에 철퇴가 내려지는 순간이다.

"선지식아,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한 미혹한 사람이 있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

선지식아,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며, 스스로를 가리켜 크다고 일컫는다면 이러한 무리와는 더불어 말도 하지 말라. 지견(知見)이 삿되기 때문이니라."(109쪽)

내 '앎'과 '함'이 분열을 일으킬 때, 내 공허한 앎이 거리를 배회할 때, 다시 나를 추스리게 하는 대목이다.

"선지식아, 만약에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고 『금강반야경』을 지송하라. 곧 견성하리라. 마땅히 알라. 이 공덕이 무량 무변함을 경문에서 분명히 찬탄하셨으니 이를 다 말할 수 없느니라." (116쪽)

눈앞의 이익과 시비 분별에 휩쓸려 정신이 혼미해질 때 떠올리는 금강경의 한 구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應無所住 而生其心)." 육조 스님이 언하에 깨달았다는 바로 그 구절이다.

이렇듯 나는 갈피를 잃을 때마다 이 책을 편다. 특별히 어떤 구절을 찾을 것도 없이, 펼쳐지는 대로 다가간다.

정말 '책 속에 길이 있다'면 바로 이런 책을 두고 하는 말일 것 같다.

덧붙임: 이 책에 관한 서지 정보나 혜능 스님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 다만, 선사의 어록에 '경'이라는 말이 사용된 유일한 경우라는 사실만 군더더기로 보탠다.

윤제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jhyun@buddhapia.com

불교 출판계 진단

제1회 '새글 공모전'의 의의

불교계 출판계는 '침체됐다' '읽을 만한 책이 없다' 등의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인색하다. 사실 교계의 출판의 자원은 다른 종교에 비해 무궁무진하다. 부처님이 설한 팔만 사천의 법문을 비롯해 수많은 고승 이야기, 문화와 문화재, 신행담 등의 출판거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대형 서점에 가보면 불교 코너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면 불교 출판계는 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것일까. 이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불교 전문 작가 발굴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출판거리는 많지만 심도 있고 세련되게 풀어낼 역량 있는 불교 전문 작가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창사 2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제1회 새글 공모전'은 뒤늦게나마 박수를 보내고 싶다. 각 출판사들이 불교 소재의 출판물을 기획 출판할 때 몇몇 작가들에게 의존하는 현실과 좋은 기획을 해 놓고도 마땅한 작가를 찾지 못해 사장되는 현실을 볼 때 이번 새글 공모전에 거는 기대는 크다. 공모전의 규모가 작든 크든, 불교 출판계의 최대 과제의 하나인 작가 발굴의 서막이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학술서와 시·소설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참의력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다른 출판사나 교계 단체에서 작가 발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잠깐 독서



실크로드가 남긴 역사세계를 찾아 (1, 2)

김문은 지음 / 크라운판 1권 344쪽 / 2권 적교판 각 권 9000원 / 주이상간호 펴냄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건축과 문화의 원류를 찾고자 시작된 실크로드 여행기이다.

실크로드는 동서양의 고대 세계를 잇는 통로란 뜻으로, 19세기 말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벤의 저서 『중국』이란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비단이 운반되었던 중국의 중원에서 서역에 이르는 길을 비단길이라 표현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오아시스 도시를 잇는 '오아시스의 길'로도 불리웠으며, 대상로(隊商路)로 개척된 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난 15여 년간 실크로드와 연관된 여러 나라(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 튀니지 등)를 두루 다니며 관념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실크로드의 실체를 하나하나 들춰내고 있다.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건축과 문화의 원류를 찾고자 시작된 실크로드 여행기이다.

일반적으로 실크로드는 중국의 장안에서 자중해의 로마를 잇는 통로만으로 인식되어 동서 교류만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 통로는 동서문만 아니라 남북의 교역로로도 열려 있는 등 여러 갈래로 얽혀 있었다.

한없이 결쳐진 사막과 나타의 유목민, 오아시스 마을과 바자르(시장)와 같은 고정된 이미지로 다가가는 실크로드에 대한 생각은, 지역과 환경에 바탕을 둔 서구의 지리학적 접근이어서,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세워진 변화된 실크로드에는 더이상 맞지 않고, 또한 유물로서의 겉모습에 언제까지나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다윈대티 로이 지음/ 정보석 옮김
A5신 324쪽/ 값 8000원/ 문이당

「작은 것들의 신」은 인도인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 내밀한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다. 이 작품은 인도의 편협된 신앙과 위선에 대해 날카롭게 풍자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도인들의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을 말한다

『작은 것들의 신』
사회적 편견, 인간과 사회의 이면상을 날카롭게 풍자한 소설

김중근 기자

인도의 사상, 철학, 종교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영혼의 결정체다. 척박한 땅, 단조로운 기후 등 최악의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인도의 사상이며 문화이다.

인도는 오랜 역사만큼의 뿌리 깊은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인도인들은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상을 유지하며 묵묵히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인도 답사 및 여행기, 문화 관련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출간 사흘만에 초판이 매진되어 세계적인 화제를 뿌리며 당시 세계 문학계의 최대 사건으로 꼽혔던 『작은 것들의 신』은 인도인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 내밀한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다.

이 작품은 인도의 편협된 신앙과 위선에 대해 날카롭게 풍자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도인들의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저자는 1997년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을 수상한 아룬다티 로이. 인도 작가로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비디아다르 나이폴, 셀먼 루시디에 이어 세번째 수상자로서, 식민지 언어로 영국을 정복한 또 한 명의 인도 작가가 되었다.

『작은 것들의 신』은 저자가 성장한 곳이자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던 케랄라 주의 아예메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곳은 기독교, 힌두교 등 여러 종교들과 공산주의가 공존하면서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소요가 상존하는 곳이다. 시기적으로는 1969년 공산주의와 나살라이트(인도의 극좌 정당) 당원들의 폭동이 확산되어 전통적 카스트 제도를 뒤흔들며 두려움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어난 두 주간의 이야기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비극을 맞이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기억과 체험을 공유하는 이란성 쌍둥이 에스타와 라헬의 눈을 통해 펼쳐진다. 이 소설에는 백인들에게 아첨하는 친영파들, 영국적 소아성애의 망령, 무자비한 가부장의 폭력, 잘난 공산적 남성 우월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 신분 제도인 카스트를 비롯하여 인도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이슈들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편협성과 질서, 사회적 편견 등 인간과 사회의 이면상이 통렬하게 풍자된다. 저자는 불의에 대항하는 고양된 감각, 평생 동안 착취당한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고집스럽고 무모한 기질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집요하게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주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은 무엇보다 독특한 구성 방식과 문체에 있다. 저자는 이 소설의 장들을 순차적으로 쓰지 않고, 기억을 역전시키면서 서술에 감도는 불길한 전조를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감적인 문장과 패러디와 반복과 놀라운 비유를 통해 독창적으로 형성되었다.

저자는, "이 책은 장소나 관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과 땅과 공간에 관한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회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다."고 말한다.

이 소설의 진정한 가치는 언어 구사에 있다. 로이는 힘을 실기에 할 만큼 뛰어난 스타일리스트다.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처럼 꿈틀거리는 생생한 문장은 잊지 못할 첫사랑의 연인처럼 기억의 한 켜를 이룬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❶ 현대인과 선 — 가마다 시게오, 기노 가즈요시 지음/ 양기봉 옮김/ A5신 318쪽 대원정사/ 값 7,000원
❷ 선이야기 — 임지 저/ A5신 390쪽/ 운주사/ 값 8,000원
❸ 선 깨달음의 길 — 오고산 지음/ A5신 354쪽/ 반야샘/ 값 8,000원
❹ 선으로 가는 길 — 석지현 지음/ A5신 380쪽/ 일지사/ 값 9,000원
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여시아문/ 값 6,000원
❻ 초보자를 위한 화두 참선 수행기 — 조정연 지음/ A5신 272쪽 / 불광 / 값 7,000원
❼ 살아 있는 선 - 오쇼 라즈니쉬 백일록 강의 — 류원장 옮김/ A5신 376쪽/ 성하출판 값 9,000원
❽ 선, 삶매로 가는 길 — 일타 스님 지음/ A5 224쪽/ 해인사 출판부/ 값 4,000원
❾ 참선의 길 — 대혜 종고 선사 지음/ 장순용 옮김/ A5신 272쪽 / 고려원/ 값 7,500원
❿ 선의 사상과 역사 — 아나기다 세이잔 지음/ 추만호, 안영길 옮김/ A5신 296쪽 민족사 / 값 6,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 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통신판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8,000원 이상은 무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

오시는 길
